



출판사 소개	5
1. 2020년 새 단행본	7
2. 꾸준히 사랑받는 을유 도서	27
3. 을유세계문학전집	67
4. 현대 예술의 거장	171
5. 을유사상고전	183
을유의 발자취	213
아카이브	221

을유문화사 2020 도서목록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펴낸이 정무영

펴낸곳 (주)을유문화사

창립일 1945년 12월 1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9-48

전화 02-733-8153

팩스 02-732-9154

홈페이지 www.eulyoo.co.kr

출판사 소개

1945년(을유년) 12월 1일, 광복의 감격과 의의를 기리며 ‘출판은 곧 건국 사업’이라는 사명감으로 첫발을 내디딘 을유문화사는 한국 현대사와 궤(軌)를 같이하며 한국 출판의 기틀을 다져 왔습니다.

한글의 원상회복을 위해 만든 첫 책 『가정 글씨 체첩』을 시작으로 『청록집』, 『삼대』, 『임걱정』 등 광복 이후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흐름을 대표하는 책들을 출간했고, 출판사상 큰 의미를 갖는 『우리말 큰사전』과 『한국사』, 국내 문고판의 효시가 된 ‘을유문고’(1948~1988)와 ‘세계문학전집’(1959~1975)을 발간했습니다. 이후 『김약국의 딸들』을 선보인 ‘한국신작문학전집’과 ‘을유 신서’ 등을 출간하며 현대 지성의 산실로서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국화와 칼』, 『이기적 유전자』, 『러셀 서양철학사』,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글자 풍경』 등 단행본과 5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을유세계문학전집’, 시공을 초월한 지적 성취를 담은 ‘을유사상대전’,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 ‘현대 예술의 거장’ 등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지향하며 지금까지 쌓아 온 경험을 기반으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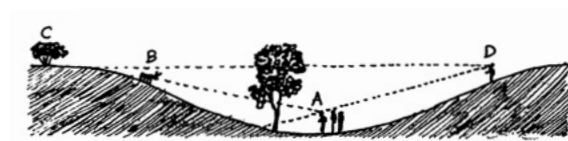
2020년 새 단행본

2020. 4. 30. / 408쪽
16,500원 / 142×195mm



각 지역마다 지리적·기후적인 환경 제약이나 특징이 있고, 환경적 제약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생활양식과 문화를 만들었다. 건축물에도 그런 문화 차이가 드러난다. 비가 적게 와서 땅이 단단한 서양은 돌이나 벽돌 같은 무겁지만 단단한 건축 재료를 이용해 벽으로 지붕을 받치는 벽 중심의 건축을 했다. 반면 비가 많이 오는 동양은 장마철에 땅이 물러지기 때문에 무거운 재료로 만든 벽은 쓰러진다. 따라서 가벼운 건축 재료인 나무를 사용했고, 목재가 물에 젖으면 썩어서 무너질 수 있기에 땅과 만나는 부분에는 방수 재료인 돌로 주춧돌을 놓고, 나무 기둥이 비에 젖지 않도록 처마를 길게 뻗되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어 빗물이 잘 흐르게 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가 형성된 동양과 서양은 교통의 발달로 교류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다.

이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옛 문화를 끌어와 적용하게 했으며, 미술, 철학, IT, 패션 등 각종 분야를 접목시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었다. 현재 우리는 SNS 속 가상공간이 실제 공간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무엇이 우리 문화와 공간에 영향을 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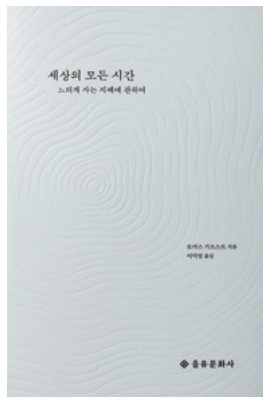
유현준
(1969 ~)

- 한국판 『총·군·쇠』로 이 책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 매일경제
-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책은 좁은 틀에 갇혀 있지 않다. 이 책 또한 그러하다. 이 책은 건축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과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문화의 기원과 창조, 융합, 진화를 이야기한다. 저자 유현준의 통찰이 돋보이는 흥미로운 주장은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과 다양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납득할 만한 논거를 제공한다. 새로운 것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 유발 하라리가 쓴 건축 책 같다.
- 김태훈 (문화 칼럼니스트)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 건축가.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 나가는 한편, 여러 매체에서 통찰력 있는 글을 쓰고 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에서 새로운 시각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 그는 강연, 방송 등을 통해 건축과 대중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tvN의 <알쓸신잡>2에 출연해 설득 홈즈 같은 관찰력과 추리력을 보여줘 설득 현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책에서도 그는 특유의 관찰력으로 역사의 흔적들 속에 숨은 퍼즐을 찾아내 절묘하게 끼워 맞췄다.

주요 경력
하버드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 공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유현준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가.
2018 독일 디자인 어워드, 2017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 아시아건축가협회 건축상, 아시아 시티스케이프 어워드, 서울시 건축상, 2013 올해의 건축 Best 7,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CNN이 선정한 15 Seoul's Architectural Wonders, 2010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등 40여 개 상 수상.

2020. 3. 20. / 242쪽
14,000원 / 125×188mm



문화사학자로서 예술과 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토마스 기르스트는 현대 문화와 동시대 미술에 대해 다양한 글을 써 왔다. 문화사를 꿰뚫는 그의 시선은 마침내 시간을 향해 가 닿았다.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밥 딜런의 말처럼, 오래 이어질 만한 가치는 반드시 시간의 빛을 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그는 사색과 그림, 혹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들의 가치를 찾아 나섰다.

앤디 워홀이 만든 600여 개의 타이포그래피 ‘TC 시리즈’, 639년 동안 공연되는 존 케이지의 오르간 연주 「ASLSP」, 마르셀 뒤샹이 20년에 걸쳐 비밀스럽게 만든 생애 마지막 작품 『에탕 도네』, 수천 페이지로 쓰인 마르셀 프루스트의 걸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 이 책에서 소개하는 특별한 존재들은 말 그대로 ‘시간의 힘’을 보여 준다. 긴 시간을 할애하는 마음, 끈기와 절제를 요하는 오랜 노력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축적되고 계승된다. 시간의 흐름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그 영원의 리듬에 발맞추어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긴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멀리까지 둘러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기억하자. 이 훌륭한 모험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내면의 고요함과 시간뿐이다.

고대 그리스, 생명 복제와 인공 지능의 딜레마를 고민하다

지구 위를 걸어 다닌 최초의 로봇은 탈로스라는 이름의 청동 거인이었다. 이 놀라운 기계는 MIT 로봇 공학 연구소가 아니라 그리스의 대장장이이자 발명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이다. 중세에 제작된 자동 장치들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2500년도 더 전에, 그리스 신화는 이미 인공 생명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탐색했고, ‘기술이 만든 생명체’에 얽힌 윤리적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했다. 에이드리엔 메이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인도, 중국의 신화들이 인공 생명, 오토마타, 스스로 움직이는 장치 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이런 상상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를 발명할 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 보여 준다.

인공 지능이라는 기술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술이 가져다 줄 딜레마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저자는 탈로스처럼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인공 창조물들을 탐색하면서 그 창조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둘 실현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또한 고대 사람들이 인공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담은 윤리적인 딜레마들 역시 현실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함께 알려 준다. 『신과 로봇』은 이처럼 신화와 역사와 과학을 혼합해서 지금껏 누구도 들려주지 못했던 새로운 신화 읽기를 제안한다.

2020. 6. 25. / 452쪽
20,000원 / 142×195mm



그렉 클라크,
몬티 보웬프 지음
이재욱 옮김

2020. 4. 20. / 192쪽
15,000원 / 148×204mm



알코올과 작가들 A SIDECAR NAMED DESIRE

위대한 작가들을 울고 웃게 만든 그 이름 ‘술’
술과 문학에 관한 가장 경쾌하고 지적인 탐험
술과 운명을 함께한 문호와 명작 이야기

술은 인류의 역사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원료나 제조 방식에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종류로 분화해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주종이 인간의 취향과 더불어 세분화하는 사이에, 술은 수많은 작가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다. 이 책은 여덟 가지 술에 얽힌 역사와 문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술의 기원과 역사를 훑고 작가들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 술에 역사적 가치와 문학적 의미를 더했다. 가벼운 설명에 위트 있는 일러스트를 곁들인 구성은 마치 명주(名酒)에 기막힌 안주를 곁들인 느낌이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술과 문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술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닌 다채롭고 깊이 있는 문화로 자리하게 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문인들에게선 사람 냄새가 무척 짙게 난다. 문단의 평가만으로는 초월적인 이상향처럼 보이던 문호들이 어느 순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어쩌면 그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다가온다. 술을 통해 바라고자 했던 정서적 지향점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험난한 삶을 헤쳐 나갈 지지대로 술을 택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상처럼 느껴진다.

벽이 만든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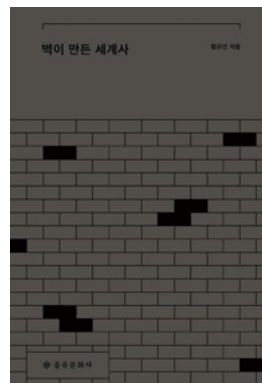
함규진 지음

쌓아 올릴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벽’을 통해 조망하는 반목과 분단의 세계사

2020. 2. 20. / 308쪽
15,000원 / 140×20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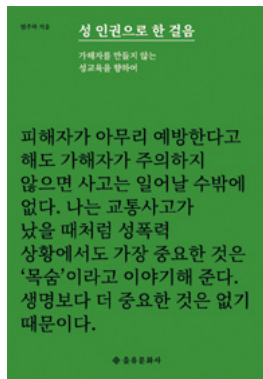
2010년 조선일보 논픽션 대상 수상자인 저자가 세계사의 물결을 가른 열두 장벽의 이야기를 통해 벽의 ‘이쪽’과 ‘저쪽’을 조망하고, 더 나아가 벽이 만들어 낸 거대한 이분법을 넘어 독자로 하여금 더 깊고 넓게 역사를 사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우리 눈앞에 우뚝 선 물리적 실체이자 심리적 장막인 벽의 세계를 탐험한 독자들은 책장을 덮을 때 끝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가 비로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때 역사의 작은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벽들을 세웠다가 무너뜨리곤 한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과 학살, 저항과 희생, 두려움과 배제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벽들의 존재가 아로새겨져 있다. 벽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뚜렷한 심리적 장막, 더 나아가 상흔을 만들어 낸다. 심지어 벽은 우리를 영원히 이분법의 속박에 갇히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벽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역사적 상황에서 널리 통용되어 오던 이분법을 넘어 또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벽에 가로막힐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손끝에 달려 있음을 이 책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2020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2020. 5. 20. / 364쪽
14,000원 / 140×205mm



성폭력을 “당하지 말라” 대신 “하지 말라”
어른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은 다수의 성 인권 교재를 집필하고 ‘교육 자료전’에서 다섯 차례 수상한 25년차 보건 교사인 저자의 체험으로 갖게 된 문제의식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성 인권 교육서로, 폭력의 시대를 건너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들려줘야 할 새로운 대답을 담고 있다.

현재 성교육은 억압적인 교육이 주를 이룬다. 일례로 2015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을 보면 “학생의 성 행동은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순결 교육으로 대표되는 성에 대한 위협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의 눈을 벗어나 성생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아이들을 겁주고 움츠러들게 하는 ‘피해자 되지 않기’ 교육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가해자 되지 않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의 성 행동이 타인에 대한 존중인지 침해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현장에서 일하며 이런 경향을 파악한 저자는 현재 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변화의 방향까지 알려 준다.

지식인의 위선을 날카롭게 해부한 역작
『지식인의 두 얼굴』 출간 30주년 기념판화

2020. 1. 20. / 652쪽
22,000원 / 145×215mm

영국 현대사의 최전선에 위치한 저널리스트이자 역사의 대가인 폴 존슨의 대표작 『지식인의 두 얼굴』의 출간 30주년을 기념한 특별판이다. ‘지식인의 탄생과 기원’을 살피며 시작하는 이 책은 근대적 지식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과 위배되는 도덕적 모순을 보여 왔는지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탐사한다. 루소, 셸리, 마르크스, 입센, 톨스토이, 헤밍웨이, 러셀, 브레히트, 사르트르, 초츠키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식인의 위대한 성취와 함께 실제 삶에서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을 낱알이 파헤친다. 아울러 그들의 사상이 인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지식인을 조심하라!’이다. 폴 존슨은, 이전에 성직자가 맡았던 역할을 자처하면서 사회를 계도하고 도덕적으로 심판하고자 했던 18세기 이후 지식인들의 등장에 주목하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위대한 인물들의 사상과 업적보다 그 뒤에 가려진 도덕적 모순들을 낱알이 파헤친다.

— 『라이브러리 저널』

카르멘 G. 데 라 쿠에바
지음, 말로타 그림
최이슬기 옮김

2020. 1. 30. / 260쪽
13,800원 / 130×194mm



엄마,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어 MAMA, QUIERO SER FEMINISTA

스페인 밀레니얼 작가의 솔직하고 유쾌한
페미니스트 고백록
나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생활밀착형 페미니즘 입문서

스페인의 여성 작가가 30여 년간 좌충우돌하면서 찾은 자기만의 페미니즘과 삶의 굵이마다 만난 세계 여성 작가의 문학과 여성 이웃들의 연대를 담은 페미니즘 책. 어린 시절에 함께한 증조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등 4세대 여성 가족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와 자매애 그리고 삶이 버거울 때마다 등대가 되어 준 시몬 드 보부아르, 버지니아 울프, 실비아 플라스 등 많은 여성 작가와 그들의 주요 작품이 작가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펼쳐진다.

- 여성의 몸으로 느끼는 분노, 수치심, 절망, 사랑, 연대의 기록. ... 경쾌한 문체로 쓰인 이 생존의 기록에서 나, 너, 그녀들이 뜨겁게 만나고 춤을 춘다. 글을 다 읽고 나면 내 삶의 무늬를 만들어 준 그녀들이 몹시 그리워진다.
- 김보라 <《별새》영화감독>

- 이런 책을 써 보고 싶다. 솔직해서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책,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낼 수 있는 책, 나의 침묵을 찢어 너의 침묵을 귀 기울여 애써 들어줄 수 있는 책을.
- 최은영 (소설가)

테슬라 모터스 TESLA MO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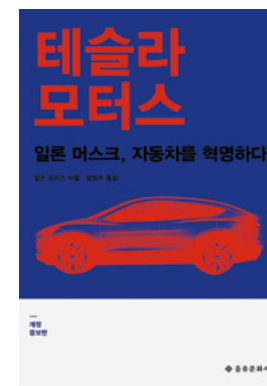
혁신이란 무엇인가?
전기 자동차의 신화, 테슬라의 성공 비결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혁명 이후, 우리의 삶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 혁명을 이끌었던 애플과 구글이 이제는 스마트카, 친환경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을 개발하며 미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다. 기존의 거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 이 거대한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Tesla)'가 있다.

테슬라는 설계, 제작, 판매 등 자동차 산업의 모든 것을 재정의하며 인터넷·모바일 혁명과 비교할 만한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다.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의 관점도 바꾸었다. 자동차가 운송 수단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된 것이다. 애플이 휴대전화의 개념 자체를 바꾸었듯이, 테슬라는 이제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책은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일론 머스크의 혁신 경영이 어떻게 테슬라를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이끌었는지를 보여 준다.

찰스 모리스 지음
엄성수 옮김

개정 정보판
2020. 5. 25. / 496쪽
18,000원 / 152×224mm



2020. 7. 20. / 336쪽
15,000원 / 140×210mm



SF를 통해 바라본 흥미롭고 신비로운
미래 과학 이야기

우주 여행부터 냉동인간과 사이보그, 외계인에 이르기까지 과학 영역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해 보았고, 또 여러 SF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차용한 설정들을 흥미롭게 풀어가며 그 이면에 숨은 과학 원리나 과학계의 이슈 등을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과학 내용을 위트 있게 전할 뿐만 아니라 과학이 이론 여러 업적들 가운데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사이보그는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의 개념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과학적 이야기를 쉽게 풀어 나간다.

SF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가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만한 안내서도 없을 듯싶다.

— 이은희 (하리하라, 과학 저술가)

2020. 9. 10. / 320쪽
32,000원 / 165×240mm

그림을 보면 포즈가 보이고 인간이 보인다
『털 없는 원숭이』의 세계적인 석학
데즈먼드 모리스의 최신작

미술 작품에 묘사된 몸짓 언어는 특정 시대, 문화 관습, 예술 양식의 유행을 반영한다. 동물학자이자 초현실주의 화가인 데즈먼드 모리스는 이 책에서 미술 작품 속에 담긴 포즈(몸짓 언어)들의 놀라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역사를 통해 변화해 온 인간의 사회적 태도와 관습을 대폭적으로 통찰한다.

악수, 포옹에서부터 무릎 꿇기, 엉덩이를 까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몸짓 언어를 수집하여 인사말, 협박, 모욕 등 아홉 가지 의사소통 형태로 분류하여 포즈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또한 선사 시대 가면과 로마 시대 조각상부터 현대 회화와 조각을 아우르는 231점의 미술 작품 속 포즈는 데즈먼드 모리스의 예술적·과학적 전문성과 독특하게 결합하여 가장 친숙한 그림들까지도 새롭게 조명하는 마술을 가능케 한다.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 행동과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을 매우 실질적으로 보여 준다.

— 『초이스』



파이돈 편집부,
리베카 모릴 지음
진주 K. 가디너 옮김

2020. 8. 15. / 464쪽
58,000원 / 250×289mm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 GREAT WOMEN ARTISTS

500여 년의 역사, 50개국 이상의 국적
세계 예술계에 족적을 남긴 여성 아티스트
400여 명을 만나다

지난 500년간 위대한 작품을 남긴 여성 예술가 400여 명과 그 대표작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집대성한 책이다. 그동안 미술 역사에서 빠져 있던 중요한 부분, 바로 여성 예술가들의 공로를 미술사 속에 채워 넣는 매우 뜻깊은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페미니즘 미술사’가 아니며, 여성의 수난이나 여성적 주제에 관한 작품 모음집도 아니다. 그보다는 재료, 기법, 형태, 주제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수십 년간 연구해 온 대규모의 기록이자,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치는 여성 예술가들을 기념하는 일종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은 예술에 젠더가 결합할 때, 인간 문명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하며 폭발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미술사, 예술가를 다루지만 정확한 젠더 관점의 저술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미술사, 젠더 이론 양 분야에서 새로운 고전이 탄생했다.

— 정희진 (여성학 박사)



2020. 7. 30. / 532쪽
23,000원 / 140×205mm



독보적인 영감과 통찰력을 선사하는
이 시대의 예술 거장 19인과의 대화

이 책이 ‘예술가’라고 통칭한 인터뷰이들은 디자인, 건축, 그림, 사진, 문학, 영화, 출판, 음악 등 창조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들이다. 이를테면, 책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예술 작품이라며 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독일 출판인 게르하르트 슈타이너, 『고독한 미식가』, 『개를 기르다』 등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킨 만화가 다니구치 지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보따리 작가’로 더 많이 알려진 세계적 개념미술가 김수자, 오직 살아 낸 삶만을 쓰는 프랑스 문학의 대가 아니 에르노 등이다.

인터뷰어 윤혜정은 이러한 예술가의 말들을 단순히 옮기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지금까지 예술가가 밟아 온 궤적과 위대한 작품의 탄생 과정, 예술가 각자의 고민과 꿈꾸는 내일 그리고 저자 윤혜정이 예술가와 함께한 시간들과 일화 등을 아름답게 펼쳐놓는다. 이로써 예술가들만의 고유하고 대담한 삶의 태도와 신선한 통찰력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간다운 생(生)을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한편 마치 예술가 19인의 도록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한 듯한 화려하고 풍성한 컬러 도판이 이 책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ALS EEN DIERBARE DEPRESSIEF IS

나를 잃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심리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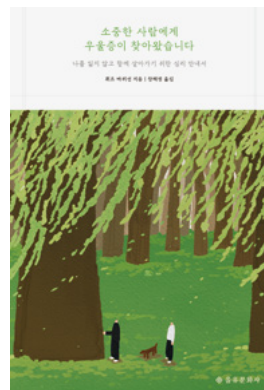
연인이나 형제자매, 부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곁에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사람 또한 매우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만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하는 답답함이 들 때,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할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고, 우울증이 어떤 기본인지,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이 책은 우울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이 같은 어려움 속에 길을 잃지 않으면서, 소중한 사람의 우울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해 나가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알려 준다. 네덜란드 심리 치료 현장에서 30여 년간 우울증 환자와 치매 환자를 치료해 온 임상 심리학자, 휘프 바위선은 현장에서 만났던 환자들의 수많은 사례와 문헌을 통해 우울증 환자와 그 가족의 경험담을 생생히 들려주면서, 증상의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적 치료 방법과 상황별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끝내 이겨낼 수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임을 감동적으로 일깨운다.
— 정여울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휘프 바위선 지음
장혜경 옮김

2020. 8. 15. / 276쪽
15,000원 / 130×194mm



재키 콜리스 하비 지음
김미정 옮김

살며 사랑하며 기르며 THE ANIMAL'S COMPANION

2020. 9. 15. / 380쪽
18,000원 / 130×194mm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따뜻하고 재미있는 인문학 수업

동물을 향한 사랑은 가끔 너무 간단해 보여서 질문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귀여운데 나를 잘 따르기까지 한다면 그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만약 ‘귀엽고 나를 잘 따른다’는 이유가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높은 지능과 이타성을 가진 다른 동물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려 했을 것이다.

인간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다른 생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동물이다. 오직 인간의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이 특별한 사랑은, 그러나 너무 사소하고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간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신’이나 ‘언어’ 같은 거창한 주제에 한정돼 있었고, ‘우리 집 강아지를 사랑하는 이유’를 그와 비슷한 선상에 놓으려고 시도한 사람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이나 언어의 기원에 관한 의문 못지않게 많은 수수께끼를 담고 있다. 만약 동물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조금 더하고 싶다면, 혹은 가끔 이 사랑이 거의 신비하게 느껴져서 그 정체를 약간이나마 더듬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몸은 기억한다 THE BODY KEEPS THE SCORE

트라우마는 그대로 몸에 남는다
독자들의 호평과 전문가의 찬사를 받은 역작

30년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야를 연구한 베셀 반 데어 콜크의 노작. 트라우마의 개념과 치료 방법의 발달 과정, 다각도로 연구 개발된 치료법들을 소개하며 트라우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책. 이 책은 트라우마 장애를 안고 있는 환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부터 관련 연구, 우리 사회에 끼치는 파장까지 총 망라한 저서로, 관계자들은 트라우마와 관련해 당분간 이 이상의 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추천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몸은 기억한다』가 이 분야의 ‘현대의 고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몸은 기억한다』는 가히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의 고전이 될 만한 책이다.

- 김혜남 (나누리병원 정신분석연구소 소장,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저자)

반 데어 콜크 박사가 완성한 이 걸작은 과학자의 경계선 없는 호기심과 학자의 깊은 학식, 진실을 말하는 자의 열정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 주디스 허먼(『트라우마』 저자)

베셀 반 데어 콜크 지음
제효영 옮김, 김현수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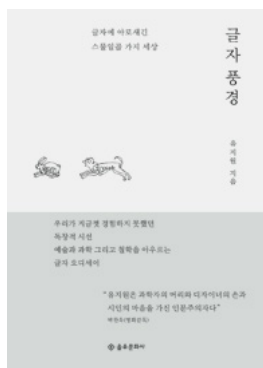
2020. 10. 25. / 680쪽
24,000원 / 145×210mm



2.

꾸준히 사랑받는 을유 도서

2019. 1. 30. / 300쪽
15,000원 / 150×2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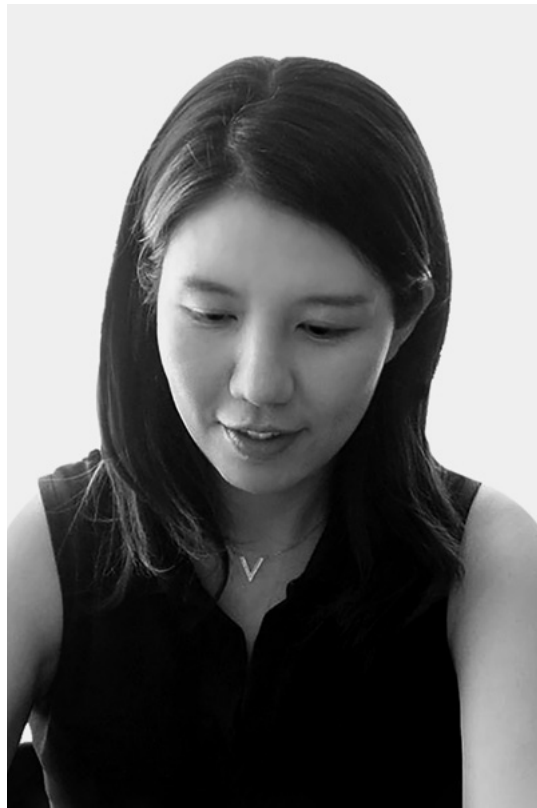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
글자가 품은 스물일곱 가지 색다른 세상
예술과 과학 그리고 철학을 아우르는 글자 인문학

여기 ‘사랑’이라는 글자가 있다. 인류학자라면 문화권마다 다른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해 말할 것이고, 언어학자라면 문자권마다 다른 표기, 즉 한글의 ‘사랑’과 로마자의 ‘LOVE’와 한자 ‘愛’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렇다면 타이포그래피 연구자는 어떨까? 타이포그래피 연구자라면 글자의 형태를 관찰하여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다. 『글자 풍경』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의 시선으로 낯설게, 인문적 시선으로 통찰력 있게 글자에 아로새겨진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풍경과 마주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저자는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지만 예술, 과학, 철학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적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자기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과감히 드러낸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저자가 두 발로 개척한 새로운 등산로로 직접 독자들을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유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유심히 보지 않았던 것들의 세부로 우리를 초대하고 미묘한 차이를 음미하자고 유혹한다. 자세한 설명과 섬세한 비유의 안내를 따라가 보니, 그 세부에 참말 커다란 것들이 잔뜩 들었다.

— 박찬욱 (영화감독)



유지원
(1977 ~)

글자와 책을 좋아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독일국제학술교류처(DAAD)의 예술 장학생으로 독일 라이프치히 그래픽서적예술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했다. 민음사에서 디자이너로,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자로 근무했고,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전공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에서 큐레이터를 역임했고, 연구 및 교육, 디자인, 저술과 번역, 전시 등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병행한다. 타이포그래피를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동시에, 본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 『글자 풍경』과 『뉴턴의 아틀리에』(공저)가 있다.

개정6판
2019. 8. 25. / 416쪽
12,000원 / 153×210mm



일본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책으로 손꼽히는 고전
일본 문화와 일본인을 가장 잘 분석했다고 평가받는 명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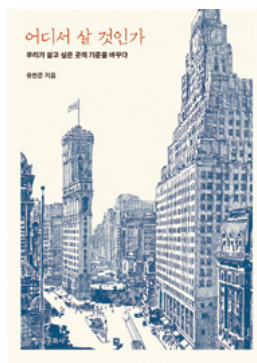
『국화와 칼』은 일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고전 가운데 하나다. 루스 베네딕트가 미 국무성의 위촉으로 2년여 동안 일본 문화를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물로, 일본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들인 계층적 위계질서 의식, 수치와 죄책감의 문화, 은혜에 관한 개념 등을 최초로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차후 일본 문화 분석에 아주 기본적인 준거가 된 문화인류학의 고전이다.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서구적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하고자 했던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수많은 기록들과 문헌을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이 저서는 일본인의 독특한 행동, 가치관을 그들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4년 을유문화사에서 국내 첫 출간 이후 여섯 번째 개정판으로 선보이는 『국화와 칼』은 저명한 저술가이자 아시아연구가 이안 부루마의 서문을 재수록했으며, 고 이광규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의 해설을 실어 현대 독자들이 『국화와 칼』을 보다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루스 베네딕트
Ruth Benedict
(1887~1948)

188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배서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사와 시인으로 활동하다 생화학자인 스탠리 베네딕트와 결혼했다. 1921년 34세의 나이에 컬럼비아대학에 입학하여 절대적인 스승 프란츠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류학 연구에 빠져들었다. 아메리칸인디언 종족들의 민화와 종교에 대한 연구로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미국 인류학의 가장 주도적인 한 영역을 개척한 베네딕트는 미국인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47년에는 컬럼비아대학에 현대문화연구소를 설립, 대규모 연구 과제를 추진하다가 이듬해 6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문화의 패턴』(1934), 『종족』(1940) 등이 있다.

2018. 5. 30. / 380쪽
16,000원 / 152×210mm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어디서 살 것인가』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어떤 평수로 이사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전작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도시와 우리의 모습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던 저자는 이 책에서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도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서’는 ‘어떤 공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자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냐가 아닌, 어떤 공간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서로의 색깔을 나눌 수 있는 곳,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 2018 「조선일보」, 「동아일보」, 예스24,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 교보문고, 매일경제 '2019년을 여는 책 50' 선정
- 2019 부산, 청주, 의정부 '한 도시 한 책' 선정
- 2020 익산시 '한 권의 책' 선정
- tvN <어쩌다 어른>,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방영

전문성과 대중성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 시대 지성의 큰 성취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



2015. 3. 25. / 391쪽
15,000원 / 153×210mm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닮는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도시의 답변

도시를 단순한 공간이나 건축물들을 모아 놓는 곳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과학을 읽어 내고, 도시와 인간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공진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책. 도시는 단순히 건축물이나 공간들을 모아 놓은 곳이 아니다. 도시는 인간의 삶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욕망이 드러난다. 이 책은 자신들이 만든 도시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과연 더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피폐해지고 있는지 도시의 답변을 들려준다.

- KBS <명견만리>, <TV, 책을 보다>, tvN <알쓸신잡 2>, <어쩌다 어른> 방영
- KBS <TV, 책을 보다>,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선정 도서

이 책의 저자는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자유롭게 종합무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다양한 영역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지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건축을 대하는 그의 시선에는 거의 모든 학문의 결이 커켜이 접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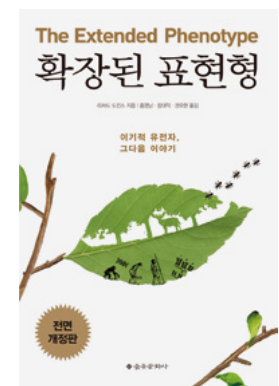
-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이화여대 예코과학부 교수)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가 꼽은
자신의 최고 역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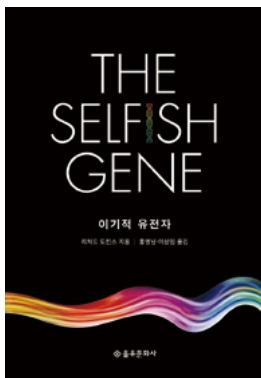
리처드 도킨스가 자신이 저술한 저서 가운데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한 『확장된 표현형』의 전면개정판이다. 이 책의 가치는 그간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세계적인 인지철학자 데닛(D. Dennett)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으로 『확장된 표현형』을 꼽기도 했다. 도킨스의 여러 책을 진지하게 읽어 본 독자라면 이런 고백과 체험이 결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도킨스는 항상 과학적 증거들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만, 논쟁적인 인문학적 함의들을 이끌어 내는 일도 결코 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저서들 중에서도 『확장된 표현형』은 인문학적 쟁점과 함의가 가장 풍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도킨스는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 자신이 포함된 유기체 이외에 다른 개체들마저도 자신의 운반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제자가 자신이 속한 유기체 너머로 '확장되어' 전 세계에 자신의 표현형을 발현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 지음
홍영남, 장대익,
권오현 옮김

전면 개정판
2016. 6. 30. / 544쪽
20,000원 / 152×224mm



40주년 기념판
2018. 10. 20. / 632쪽
20,000원 / 145×210mm



과학을 넘어선 우리 시대의 고전,
『이기적 유전자』 40주년 기념판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세계적 베스트셀러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 『이기적 유전자』의 40주년 기념판이다.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 책은 다윈의 ‘적자생존과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유전자 단위로 끌어내려 진화를 설명한다. 『이기적 유전자』는 처음 출간되었을 당시 과학계와 일반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세기의 문제작으로 떠올랐다. 혁신적인 통찰에 더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뛰어난 문장력과 명쾌한 구성력 또한 보여 주는 이 책은 명실상부 과학 교양서의 바이블로 일컬어지기에 손색이 없다. 이 40주년 기념판에 새롭게 수록된 에필로그에서 도킨스는 여전히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타당성을 이야기하며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되새긴다.

-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선정
- 조선일보 20년 스테디셀러 TOP10 선정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선정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
(1941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인 리처드 도킨스는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동물행동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니코 틴버겐에게 배운 뒤 촉망받는 젊은 학자로 학문적 여정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전담하는 석좌교수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뉴칼리지의 명예교수이다. 영국 왕립학회 문학상과 로스앤젤레스 문학(1987), 왕립학회의 마이클 패러데이상(1990), 과학에 대한 저술에 수여하는 루이스 토머스상(2006), 과학의 대중적 이해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닐렌버그상(2009) 등 수많은 상과 명예 학위를 받았다. 또 2013년에는 『프로스펙트』지가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 1위에 오른 바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
홍혜경 옮김

아들러의 인간이해 MENSCHENKENNTNIS

2016. 8. 25. / 384쪽
15,000원 / 153×210mm



세계 정신분석학의 거장이자 개인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대표작

아들러가 1908년에 비엔나의 한 시민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심리학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단순히 학문적 이론을 넘어 개인심리학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람들과의 교류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고 있다. 역자는 ‘열등감-인정 욕구-허영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인심리학을 쉽게 설명한 해설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이 책에서 아들러는 자기 마음 안에서 열등감을 비롯하여 질투심, 허영심, 분노, 증오, 무기력, 불안, 소심함 등 다양한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에게 어느 방향에서 오류에 빠지는지 정확히 알려 준다. 아울러 마음 속 오류를 바로 잡는 방법으로 공동체 의식과 교육을 강조한다. 아들러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기분이 나쁘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변화는 당사자가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아들러의 인간이해』는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 학술서지만,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독자 스스로 알아채고 변화할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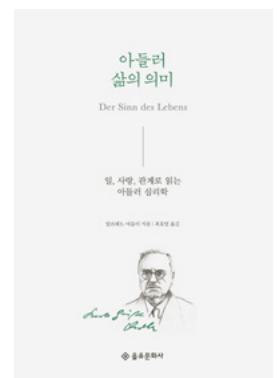
아들러 삶의 의미 DER SINN DES LEBENS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마지막 역작

아들러의 마지막 대작으로, 타인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는 공동체 감정의 진정한 의미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아들러는 이 책에서 공동체 감정을 삶의 과제로 꼽는다. 개인이 겪는 열등감, 고독감, 우울, 신경증, 정신병, 중독이나 범죄 같은 문제도 공동체 감정의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개인이 보이는 부적응 현상일 뿐이다. 타인의 삶에 대한 유대감, 협력과 공생 능력 등이 결여된 경우, 온갖 형태의 열등감과 현실을 외면하는 반응 양식이 발달한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외톨이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자의 시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자에게 영감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처럼 『아들러 삶의 의미』는 개인과 세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반응하는 게 좋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다. 이기적인 우리 인간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타인과 협력하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는 공동체 감정을 육성해야 한다. 이것이 아들러가 끝끝내 공동체 감정이라는 주제에 매달린 이유일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
최호영 옮김

2019. 5. 25. / 334쪽
15,000원 / 153×210mm



2019. 11. 30. / 336쪽
16,900원 / 128×188mm



어디서 어떻게 아름다움의 실체를 만날 것인가
공간은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아트 워커’ 윤광준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공간 미학 수업

사진작가 윤광준이 아름다움의 집합체인 공간만을 찾아 인문적·미학적 시선에서 섬세하게 읽어 낸 공간 교양서. 사진뿐 아니라 미술, 음악, 디자인, 건축 등 예술 분야에서 전방위로 활약하는 윤광준 작가는 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중개하는 아트 워커(Art Worker)이기도 하다. 그가 전작 『심미안 수업』에서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들려줬다면, 신작 『내가 사랑한 공간들』에서는 그 아름다움의 실체를 어디서 어떻게 경험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나아가 모든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아트 워커의 폭넓은 관점에서 공간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건축가나 디자이너 등 한 분야의 전문가가 발견하지 못한 공간의 색다른 풍경과 매력 그리고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선까지 선사한다. 이 책은 단순히 트렌드를 좇거나 크고 화려한 공간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저자가 발견한 공간 속 아름다움의 요소요소를 독자들이 함께 느끼고, 나아가 높아진 안목으로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만의 진짜 공간을 자기 관점에서 찾도록 도움을 준다. 공간을 통해 오늘날 시대상을 읽는 맛은 덤이다.

— 2020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2008. 5. 10. / 352쪽
12,000원 / 153×224mm

사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길 수 있어야 미덕이다
가진 것이 넉넉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물건을 골라야 한다
두 번의 선택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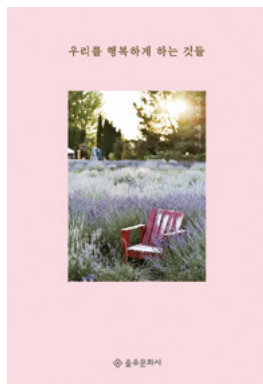
물건 소유욕이 강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현대인들을 위한 길잡이. 우리가 시간과 발품을 팔아서라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반드시 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쾌한 가이드북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60개의 물건은 저자가 ‘생활명품’이라고 정의한 것들로, 지금까지 저자가 사용했던 물건 중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와 쓸모를 더한 것들만 추렸다. 이 글을 통해 저자는 물건에도 격이 있다는 진리, 명품을 사려 하지 말고 명품 인간이 되라는 충고, 물건 이면에 담긴 인간의 고뇌 등을 전한다. 이 책의 내용은 중앙일보사의 일요일자 매체인 『중앙선데이』에 1년간 연재되었던 글을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 소개된 사물들의 색인을 헤아리다 보니,
날뛰는 건지 아득한 건지 알 수 없는 쾌감이 밀려온다.
장수 막걸리부터 마란츠7까지, 전기장판부터 가민
내비게이션까지, 문명의 한 시절을 이루는
오브제들은 주관적 경험으로 재발견되어 그 장소와
추억의 황홀을 전한다.

— 이충걸 (『GQ KOREA』 편집장)

2019. 7. 10. / 292쪽
13,000원 / 128×188mm



시인 장석주가 그려 내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몽상들

시인 장석주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그의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한여름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시원한 수박을 꺼내 베어 무는 것. 입술과 혀를 적시고 목구멍으로 흘러가는 수박이 주는 행복으로 그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짝딱하고 맛있는 시간을 건넌다. 이렇듯 어떤 행복은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작고 소소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살아 내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러한 기쁨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장석주는 눈 밝게 그 작은 조각을 발견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모든 일상적인 행동을 아우른다. 시인은 자신만의 행복의 기술을 찾아 실행해 온 경험과 사유를 이 책에 펼쳐 놓음으로써 행복의 형상을 그려 나간다. 독자는 장석주가 발견한 작은 행복들을 통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 내밀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지켜봐 온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행복에 관해 물어 보자고 말한다. 이 책을 따라 소소한 행복과 기쁨들을 만나다 보면 독자 역시 어느새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 교보문고 '올해의 문장' 선정 도서 (2019)

위험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팜프파탈 커피의 모든 것
커피를 둘러싼 논란과 정략의 역사

커피에 얽힌 정치, 경제, 문화, 전쟁 등이 흥미롭게 전개되는 커피사 책. 기존에 커피의 역사에 대해 다뤘던 책들은 1930년대에 출간된 것으로, 최근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았지만 이 책의 원서는 2010년 10월에 출간돼 최근의 흐름까지 담고 있다. 또한 저자가 3백 명을 인터뷰하는 등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썼기에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탄실한 내용에 술술 읽히는 재미까지 더해져 있어, 이 책이 다른 마력의 커피처럼 빠져들며 읽게 된다.

커피 하나로 자본과 착취의 역사, 전쟁사, 빈곤사, 광고와 마케팅의 역사, 문화사. 과학사에 걸친 역사를 함께 읽어 낼 수 있다.

—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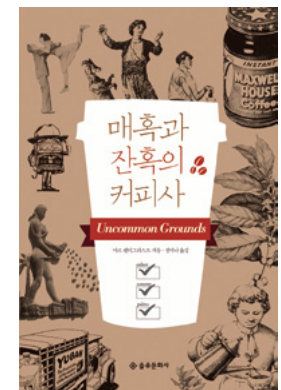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매혹적인 물질인
커피에 관한 최종판이 될 책.

— 박찬일 (요리연구가, 음식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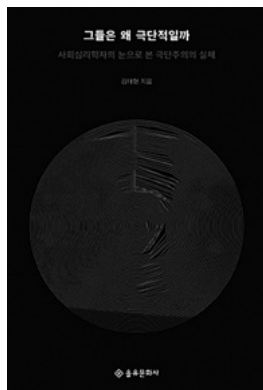
커피 관련 책의 종결자라고 할 만하다.

— 동아일보

2013. 11. 30. / 642쪽
23,000원 / 153×224mm



2019. 1. 20. / 287쪽
15,000원 / 140×210mm



극단주의자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극단주의의 실체를 파헤치고, 근절시킬 해법을 제시한 책으로, 기득권의 이면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이 책은 극단주의가 만연한 사회 현상을 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도 알고자 심리학자에게 의뢰해 집필됐다. 극단주의를 일반 사회학자나 인문학자가 아닌 심리학자, 그중에서도 사회심리학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저자가 바라봤기 때문에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만이 아닌, 극단주의가 만연해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다.

- 기존 심리학의 그릇된 관성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혐오를 하거나 받는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

- 사회심리학자인 저자가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극단주의를 정의, 그 실체를
파헤치고 근절시킬 해법을 제시한다.
- 조선일보

차이콥스키부터 베토벤, 살리에리, 파가니니까지
영혼의 선율로 우리를 매혹한 거장에 얽힌
오해와 편견, 그 너머의 이야기

2019. 10. 20. / 280쪽
15,000원 / 145×215mm

클래식 음악 담당 기자로 오래 활동해 온 유운종 저자가 아름다운 음악 작품과 거장들에 얽힌 뒷이야기를 밝힌다. 차이콥스키가 남긴 음악적 유서 「비창」에 얽힌 비화부터, 세 예술가의 사랑을 받고도 어느 누구도 진정 사랑하지 않은 알마 말러의 거짓말, 엘가가 변주곡에 숨겨 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살해한 인물로 알려진 살리에리에 대한 내막,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는 데 기여한 지휘자들의 행보까지. 일반적인 명곡 소개서나 음악사 개설서에서 만날 수 없는 스무 개의 화제를 수록했다. 작품은 물론 음악가와 시대를 조명하며 서양 음악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장면들을 두루 살핌으로써, 클래식과 음악가 사이에 얽힌 진실을 찾아 나간다. 이처럼 저자는 잘못된 대접을 받을 뻔한 명곡이 어떻게 진가를 드러냈는지, 대가들이 어떻게 작품 속에 비밀을 숨겼는지를 들여다본다. 더 나아가 인류 사회를 흔들고 지나간 시대의 격동에 음악가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응전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주역강의
周易講義
서대원 지음

삶의 실천적 지혜를 강조한 처세의 서(書),
『주역』에서 배우는 인생 경영

동양 최고의 명저 『주역』은 난해하기로도
이름나 있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독창적이고
풍부한 해설로 『주역』이 어려운 책이라는
편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무한경쟁의
현대사회에 더욱 소중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살아 숨 쉬는 책으로 되살려냈다.

2008. 1. 25. / 656쪽
25,000원 / 153×22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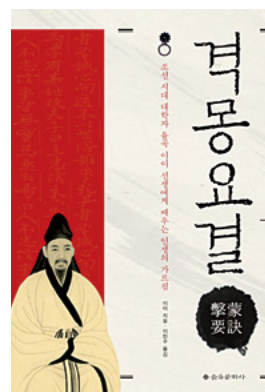


격몽요결
擊蒙要訣
이이 지음 / 이민수 옮김

율곡 이이가 전하는 인생의 가르침

대학자 율곡 이이가 후학을 위해 마련한
정신 수양서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깨우쳐야 할
10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가슴에 깊이 새길 만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2003. 3. 10. / 232쪽
10,000원 / 153×224mm



동화 넘어 인문학
조정현 지음

동화로 어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사유(思惟)를 깨우다!

소설가이자 동화 작가인 저자는 인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어릴 적
읽었던 동화에 다 들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전래동화부터 현대 창작동화까지
다양한 동화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 보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와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전한다.

2017. 4. 10. / 300쪽
13,000원 / 152×22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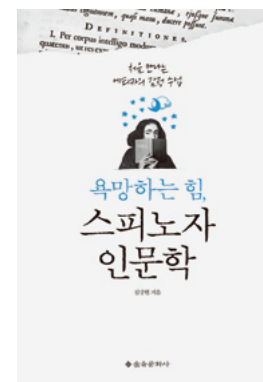


욕망하는 힘, 스피노자 인문학
심강현 지음

감정으로 쉽게 상처받는 우리를 위해
스피노자가 전하는 가슴 따뜻한 위로와 조언

‘감정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대표작 『에티카』를
통해 우리가 슬픈 감정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언한다. 그의 철학은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이들이 스스로 슬픔을
치유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고심한
사유의 흔적이다. 저자는 풍부한 예시나
비유, 스피노자와의 가상 대화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스피노자 철학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016. 3. 20. / 308쪽
15,000원 / 148×2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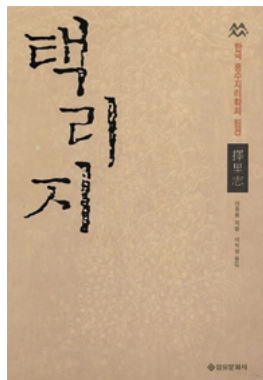


택리지
擇里志
이중환 지음 / 이익성 옮김

인문지리학적 관점으로 쓰인 최초의 지리서

풍수지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 형상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시도한 인문 지리서. 18세기 중엽 조선 사회상을 볼 수 있으며 행정 구역이 아닌 생활권이라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2002. 4. 15. / 320쪽
8,500원 / 150×22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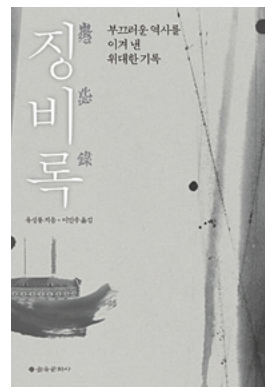


징비록
懲毖錄
유성룡 지음 / 이민수 옮김

구옥새가 와서 집을 짓고, 여섯 마리의 익새가 날아가며 사슴과 물여우 등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하늘이 준비하심이 이와 같으니, 어찌 대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조선시대의 명재상 유성룡이 쓴 『징비록』 완역본. 현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240여 개의 각주를 덧붙이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포함시켜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들을 포함한 것은 물론 한자 원문을 병기해 번역의 충실도를 높였다.

2014. 9. 30. / 340쪽
12,000원 / 152×22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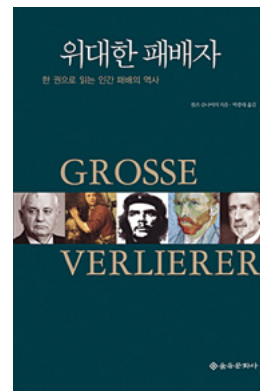
위대한 패배자
GROSSE VERLIERER
볼프 슈나이더 지음 / 박종대 옮김

승리자들로 가득 찬 세상보다 끔직한 것은 없다. 그나마 삶을 참을 만하게 만드는 것은 패배자들이다.

10가지로 패배의 유형을 나누어 과거에서 현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25명이 넘는 위대한 패배자를 소개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불린 체 게바라, 괴테에게 악의적인 비방을 받아야 했던 렌츠,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고흐 같은 인물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참모습과 살아온 배경을 소개한다.

1등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확률적으로 패배자일 가능성이 높은 보통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위로.
— 조선일보

2005. 9. 20. / 400쪽
15,000원 / 153×224mm



만들어진 승리자들
DIE SIEGER
볼프 슈나이더 지음 / 박종대 옮김

처칠, 니체, 괴테, 에디슨…… 당신이 알고 있는 승리자의 거짓과 환상을 파헤친 심층적 탐구서

독일의 대표적 문화사가 볼프 슈나이더가 내놓은 『위대한 패배자』의 다음 이야기다. “역사를 비틀어 버린 천재와 범죄자들은 무엇으로 유명해졌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이 책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 히틀러 같은 범죄자, 마르크스 같은 공상가, 콜럼버스 같은 모험가까지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거인들의 면면을 뒤집어 본 승리자의 솔직한 문화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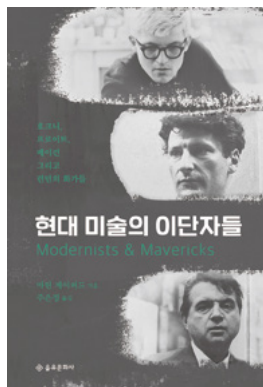
2011. 8. 25. / 702쪽
23,000원 / 153×224mm



마틴 게이퍼드 지음
주은정 옮김

현대 미술의 이단자들 MODERNIST & MAVERICKS

2019. 9. 25. / 464쪽
25,000원 / 152×225mm



이 책의 중심에 놓여 있는 진실은 이들이 모두
‘회화로 이를 수 있는 것’에 몰두했다는 사실이다

런던이 파리, 뉴욕과 더불어 세계 예술의 중심지였던
시기가 있었다. 이 책은 그 시기를 포함한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영국 회화의 발전과 흐름을
데이비드 호크니, 프랜시스 베이컨, 루시안 프로이트,
프랑크 아우어바흐, 질리언 에이리스 등 세계 미술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화가들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미술 평론가 마틴 게이퍼드는 당시의 변화에 직접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과의 방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들의 삶이 연결된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 가면서
당대 영국 회화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 준다.

마틴 게이퍼드가 미술가들의 삶과
그들의 역작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전하는 놀라운 수작
— 「더 타임스」

책에 소개된 다양한 ‘이단자’들은 강한 개성으로
세상을 응시하고 회화의 순수성을 믿었다.
이들이 저마다 창조한 시각적 우주가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은 반박이 불가능하다.
— 「한겨레」

위대한 영화 THE GREAT MOV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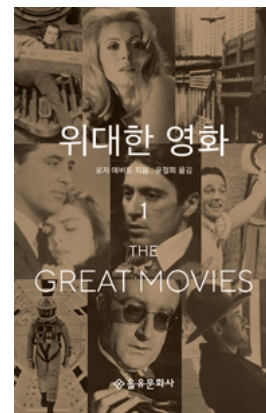
21세기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껴야 하는가
세계적인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써 내려간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화’

폴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비평 모음. 앞서 2003년과 2006년에
나온 1, 2권으로 영화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이 시리즈는 저자가 2010년에 낸 3권과 유작인 4권이
동시 출간됨으로써 완벽한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저자는 “영화의 첫 1세기 동안 탄생한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두루 살펴보고 싶다면 이 책에서 출발하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그는 이 시리즈에서 개인적으로
최고로 꼽는 영화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영화를 골라 소개한다.
1권부터 4권까지 실린 총 362편의 글은 20세기 영화사를
툏아보는 현미경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뚜렷한 주관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만인의 비평가,
로저 에버트가 전하는 평론의 정수가 여기 있다.

영화와 비평이 만나는 가장 행복한 풍경이
여기에 있다.
— 김영진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 지음
윤철희 옮김

2019. 11. 20. / 768쪽(1권),
776쪽(2권), 768쪽(3권), 544쪽(4권)
세트 98,000원 (1~3권 각 25,000원,
4권 23,000원) / 120×190mm



2019. 4. 20. / 496쪽
18,000원 / 140×210mm



세계적인 인공지능 과학자인 나이절 새드볼트와 사회 정책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론경제학자인 로저 햄프슨이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막연한 의문에 대해 디지털 유인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두 저자는 새로운 세계가 현재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운영될지 등을 사실과 허구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단순히 기술적·과학적 변화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학, 심리학, 철학, 공학뿐만 아니라 선사 시대를 포함한 인류 역사의 사회학적 맥락 속에서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고찰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 이 책은 인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인 디지털화에 걸맞은 ‘확장된 지혜’의 필요성을 날카롭게, 그러나 희망적으로 논하고 있다.
- 파토 원종우 (『과학하고 앉아있네』 저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인간은 어떻게 얼굴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나
인류 진화에 대한 ‘최신’ 안내서이자 ‘최고’의 안내서

5억 년 전 최초 척추동물의 얼굴부터 오늘날 현대 인류의 얼굴까지, ‘얼굴 진화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인간의 얼굴과 인간의 본질 사이에 얽힌 촘촘한 그물망을 밝혀 나가면서 인간의 진화에서 얼굴이 갖는 중요성을 규명한다.

특히 인간 진화의 역사에서 사회성에 대한 요구가 얼굴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얼굴은 감각 본부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개체에 대한 정보를 얻는 출처라는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을 획득하면서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고 더욱 복잡한 사회적 존재로 진화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을 밝혀 준다. 이로써 인간이 오늘날의 인간이 되기까지 ‘비틀거리며 나아간’ 진화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유전자와 뼈, 근육, 두뇌의 역할에 대한 명료한 설명은 인종과 성별, 심리에 대한 도발적인 질문들의 전조가 되었다. 월킨스의 품격 있는 설명은 인류의 진화에 대한 ‘최신’이자 ‘최고’의 안내서다.
- 리처드 랭엄 (하버드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 교수)

2018. 2. 25. / 672쪽
25,000원 / 153×223mm



서민의 기생충 열전

서민 지음

고생대 이전부터 함께했고, 지구가 멸망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기생충들의
특이한 생존기

이제는 사라졌거나 있어도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감염 경로가 널려 있고, 경우에 따라
감염 증상도 꽤나 심각한 기생충에 관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을
일으키는 기생충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기생충이 어떻게 태어나 자라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떤 경로로 감염되고, 어떤 증상을
일으키며, 감염 여부는 어떻게 알아내는지,
치료 방법은 뭘지 등을 재미있게 알려 준다.

— 2013 올해의 과학도서 선정

2013. 7. 15. / 332쪽
15,000원 / 145×210mm



서민의 기생충 콘서트

서민 지음

때로는 은둔하고, 때로는 지배하는
종횡무진 기생충 생존기

아마 인간은 멸종하더라도 기생충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한때
대다수 사람들의 몸속에 기생하며 맹위를
떨치던 기생충은 지금도 인간에 이어 지구의
2인자로, 거의 대부분의 생물 안에 기생하며
번성하고 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다른
생물에 기생하며 살아왔을까? 생존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손 번식'이다. 그들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다. 숙주를 돕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 2010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선정

2016. 5. 30. / 376쪽
16,000원 / 145×210mm



메스를 잡다

UNDER THE KNIFE

아르놀트 판 더 라르 지음 / 제효영 옮김

네덜란드의 현직 외과 전문의가 집요하게
써 내려간 생생한 의학 오디세이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감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가리곤 하는 흥미로운 존재들인 외과
의사들과 거꺼이 또는 예기치 않게 그들의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질화에 관한 역사와 거기에 메스가 가해진
흥미진진한 이야기, 의학의 속내를 밝히는
입담에 절로 빠져들게 된다. (...) 자료 조사에
공들인 저자의 공력과 의학 전문 번역가의
탁월한 실력을 맛볼 수 있다.

— 「한겨레」

2018. 8. 25. / 488쪽
19,800원 / 152×224mm



과학자의 생각법

DISCOVERING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지음 / 권오현 옮김

위대한 발견과 창의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가? 『생각의 탄생』 저자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숨겨진 보물 같은 역작!

위대한 과학자들의 창의성, 관찰력, 통찰력이
빛나는 발견 과정을 다룬 이 책은 가상의
등장인물 여섯 명이 과학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이
어떻게 시작되며 통찰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과학 전반의 역사와 철학, 진화와 발전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2017. 7. 31. / 776쪽
32,000원 / 154×224mm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がんばりません

사노 요코 지음 / 서혜영 옮김

사노 요코가 보여 주는 먹고, 자고, 즐기며
나이 드는 법

자신의 특이함과 까칠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가 사노 요코가 40대에 쓴 수필집. 이 책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40대의 일상까지, 너무 애쓰지 않아도 즐겁고 여유로운 그녀의 삶과 추억이 담겨 있다. 예쁘지 않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은 솔직한 그녀만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고, 지질함마저 유쾌하게 바꾸는 그녀의 이야기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털어 버리게 하고, 마음에 여유를 준다.

2016. 3. 25. / 364쪽
13,800원 / 145×210mm



헤세가 사랑한 순간들

헤르만 헤세 지음 / 배수아 옮김

소설 뒤의 헤세를 만나다

소설가 배수아가 헤세의 산문 중 헤세적인 특성을 갖춘 작품들, 헤세의 독자적이고 고집스러운 정신세계를 잘 나타내는 내용을 담은 글들,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들, 작품 뒤 드러나지 않았던 헤세를 알 수 있는 글 등을 선별해 번역한 헤세 산문집이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헤세의 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5. 10. 25. / 351쪽
12,000원 / 145×210mm



제2의 성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 조홍식 옮김

오늘날의 '여성 혐오'에 대한
보부아르의 근원적 분석

1940~1950년대 여성은 주체인 남성의 대상, 즉 타자로서 존재했다. 여성의 위치를 뜻하는 것이 '제2의 성'이다. 여성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였다. 모든 것의 척도인 남성적인 것의 '다른 것'이 여성적인 것이었으며, 그 '다른 것'은 남성들의 시각에서 제외되고 억압받아야 했던 불안과 환상이었다. 보부아르는 여성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남성 지배적인 세상'에서 억압받는지 체계적으로 보여 준다.

1993. 11. 20. / 528쪽(상), 548쪽(하)
각 13,000원 / 152×224mm



순옹과 전복

김영진 지음

미학적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한국 영화의 비평적 연대기

『씨네21』 창간 멤버이자 『필름 2.0』 편집위원을 지내며 영화평론가로 활동해 온 김영진 평론가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영화계에 불어온 미학적 활기에 관해 기록한 평론집이다.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루어 낸 눈부신 성취를 이야기한다.

2019. 3. 15. / 380쪽
18,000원 / 150×210mm



유럽의 첫 번째 태양, 스페인
서희석, 호세 안토니오 팔마 지음

모스크와 대성당이 나란히 자리한 곳
역사와 이야기, 전설이 뒤섞인 스페인사

단지 스페인이 좋아 그곳에 정착한 한국인이
스페인 세비야대학 역사학부의 현지 친구를
만나 역사적 유적지나 기념비적 장소 등을 함께
방문하며 그곳에 얹힌 역사와 전설, 야사 같은
뒷이야기를 함께 버무려 쓴 책.

2015. 9. 25. / 392쪽
15,000원 / 153×224mm



꺼삐딴 리
전광용 지음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기회주의자의
성공과 몰락을 그린 문학 평론가 55인이
선정한 한국 대표 중단편 소설

표제작 「꺼삐딴 리」를 비롯한 「충매화」,
「초혼곡」, 「바닷가에서」 등 9편의 작품이
실린 전광용의 중단편 소설 작품집. 그의
작품들은 혼란의 현대사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내면세계와 부조리한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어
한국 풍자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9. 5. 15. / 336쪽
10,000원 / 132×20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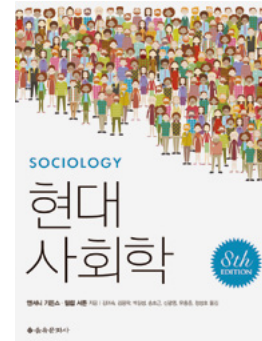


현대사회학
SOCIOLOGY
앤서니 기든스, 필립 W. 서튼 지음 /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김미숙, 정성호 옮김

현대 사회학계의 거장, 앤서니 기든스의 대표작
세계 지성인들이 격찬한 사회학의 대표 교과서

앤서니 기든스의 대표작인 『현대사회학』
여덟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8판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끊임없는 혁신, 장기적인 기후변화
문제, '젠더와 페미니즘' 관련 현상, 세계를
위협하는 국제 분쟁과 테러 등을 새롭게 담았다.
또한 국제 분쟁과 테러에 따른 인종과 난민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인종, 종족,
이주'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제8판
2018. 2. 20. / 1,120쪽
30,000원 / 185×244mm



세계정치론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지음 / 하영선 옮김

세계 최고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국제정치학의 바이블. 세계정치 분야의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개론서

1997년 초판 출간 이후 세계정치의 역사와
이론, 구조와 과정, 주요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세계 주요 대학의 표준 교과서로 자리
잡은 『세계정치론』의 제7판이다. 이번 판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국제관계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제7판
2019. 2. 10. / 806쪽
36,000원 / 188×245mm



2007. 2. 10. / 300쪽
12,000원 / 152×223mm



창의적 혁신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동양 고전 읽기

중국의 고사에서 추출해 낸 경영론에 현대 경영의 업적을 쌓은 인물의 경영 철학을 접목시켜 21세기의 인재 경영론을 풀어 나간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위주로 한 춘추전국 시대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이에 담긴 경영적 교훈과 현대 경영의 사례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경영론을 이끌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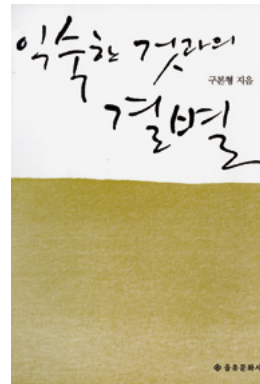
저자는 수많은 역사적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각 사례별로 그에 걸맞은 경영적 교훈을 발견한다. ‘어제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배워서 익혀야 한다’, ‘나다운 방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같은 조언은 늘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은 바로 책 전체에 걸쳐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는 데 있다. 인재 경영을 그저 효율적인 채용과 관리라는 말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수 년 동안 인문학과 경영학의 접점을 찾아 연구해 온 저자는 인간을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공과 함께 하는 소중한 파트너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저자는 오늘날에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리더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여기서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비즈니스의 가치를 묻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리더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30만 독자가 선택한 자기계발서의 고전

1998년 베스트셀러에 오른 『익숙한 것과의 결별』 개정판. 변화경영 전문가로서 저자의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 있는 자기 혁명의 구체적 지평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는 지난 10년 동안 자기 혁명을 이룬 독자의 글을 실어 자기 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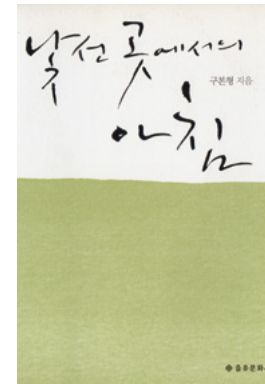
2007. 12. 15. / 376쪽
12,000원 / 152×223mm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 이은
자기계발서의 고전

1999년 출간되어 자기계발 분야의 또 다른 고전으로 자리 잡은 『낮선 곳에서의 아침』 개정판. 자기 혁명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시간을 넓혀 가는 것임을 역설하는 이 책은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며,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혁명을 위한 필승의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2007. 12. 15. / 320쪽
12,000원 / 152×223mm



일상의 황홀
구본형 지음

구본형이 제안하는 새로운 형식의
자기경영 지침서

변화경영전문가 구본형이 1년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담은 책이다. 특별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는 하루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나른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기록도 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의 '변화'란 외부의 강요나 의무가 아닌, 일상의 여유가 함께하는 즐거운 상상이요, 자기 성찰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2004. 11. 10. / 272쪽
12,000원 / 128×188mm



떠남과 만남
구본형 지음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한
구본형의 50일간의 여행

『익숙한 것과의 결별』, 『낯선 곳에서의 아침』에 이어 '변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떠난 구본형의 남도 꽃길 여행의 기록. 여행길을 동행한 윤광준의 사진이 함께 수록되어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남도의 정취를 담아냈다.

2008. 4. 15. / 328쪽
12,000원 / 153×224mm



구본형
(1954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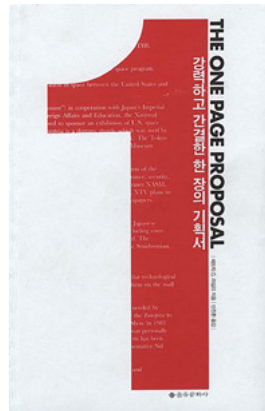
변화경영연구소 소장이자 강연과 칼럼, 활발한 저술가로 활동했던 그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IBM에서 근무하면서 경영혁신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했고, IBM 본사의 말콤 볼드리지 국제 평가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의 경영혁신을 건설팀했다. 인문학과 경영학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 시대의 화두를 발견했고, 변화와 성장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모든 것로부터 배우고 글을 썼던 그는 2013년 4월,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율유문화사에서 출간된 6종의 저서를 비롯하여 『월드 클래스를 향하여』(2000),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2001), 『세월이 젊음에게』(2008), 『구본형의 필살기』(2010), 『깊은 인생』(2011), 『구본형의 신화 읽는 시간』(2012) 『구본형의 그리스인 이야기』(2013),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2013),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2013),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2014) 등이 있다.

THE ONE PAGE PROPOSAL
패트릭 G. 라일리 지음 / 안진환 옮김

세상의 모든 기획자와 마케터가 인정한
기획서의 바이블. 최고의 기획서 작성을 위한
최상의 매뉴얼

세계적인 사업가 패트릭 G. 라일리가 오랜
세월 동안의 실무 경험을 통해 혼자만의 성공
비결로 간직해 온 'One Page Proposal'의
비밀을 독자들에게 공유한다. 워트 넘치는 문체와
논리 정연한 전개로 '왜 한 페이지인가'에 대한
의문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2002. 11. 11. / 128쪽
8,000원 / 143×22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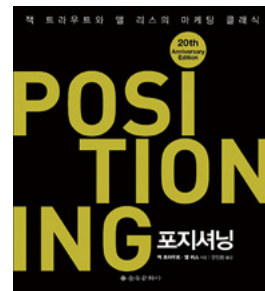


포지셔닝
POSITIONING
잭 트라우트, 앨 리스 지음 / 안진환 옮김

광고 산업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던 마케팅의
고전 『포지셔닝』 20주년 기념 개정판

21세기에 더욱 중요해진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필연적 문제점을 다룬 최초의 책.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포지션'을 확립한다는 혁명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마케팅 바이블'과 같은
저서다. 1980년도 초판에 풍부한 일러스트와
한층 업데이트된 논평을 더해 내실을 다졌다.

20주년 기념판
2006. 11. 30. / 268쪽
12,000원 / 185×20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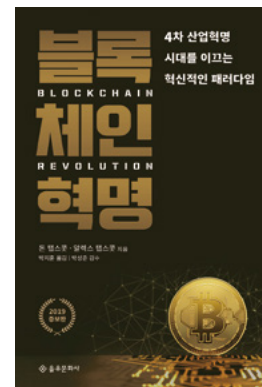


블록체인 혁명
BLOCKCHAIN REVOLUTION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지음 /
박지훈 옮김 / 박성준 감수

최신 연구 성과가 추가 수록된
블록체인 분야의 바이블

기존에 출간된 『블록체인 혁명』의 증보판으로
저자의 최신 연구 결과를 담은 서문과 후기를
추가했다. 블록체인에 제기된 우려와 전망에
관한 저자의 명확한 견해와 전망을 볼 수 있고,
최신 업계 동향이 담겨 있다.

증보판
2018. 12. 25. / 660쪽
23,000원 / 152×224mm



삼국지 경영학
최우석 지음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 최우석이 전하는
삼국지 인간 경영

삼국지를 통해 본 리더십과 경영의 진수를
논하는 책. 치열한 투쟁 속에서 삼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고, 어떤
방식으로 키워 나갔는지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공을 위한 각종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07. 6. 1. / 320쪽
12,000원 / 153×224mm



가트맨의 부부 감정 치유
존 가트맨, 낸 실버 지음 /
최성에 옮김 / 조벽 감수

믿음과 사랑을 지속시키는,
사랑의 실험실을 통해 밝혀낸 비밀들

부부·가족 관계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의 40여 년 연구 결과의 결정체.
이 책에는 결핍된 상태에서 벗어나 신뢰를 쌓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 있다.
차례차례 책을 따라가다 보면 부부 스스로
감성적 조율을 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이 보일 것이다.

2014. 2. 10. / 392쪽
15,000원 / 153×22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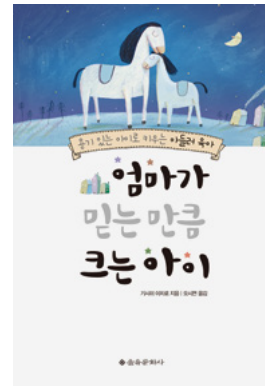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
기시미 이치로 지음 / 오시연 옮김

엄마에게는 ‘지켜보는 용기’를 주고,
아이에게는 ‘혼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아들러 육아

아들러 열풍을 몰고 온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가 아들러 육아론을
바탕으로 쓴 육아서로, 아들과 딸을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며 돌봤던 저자의 경험이 녹아 있다.
아들러의 지혜뿐 아니라 저자의 지혜도 얻을
게 많다. 아이와 부모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게 해 준다.

2015. 6. 25. / 236쪽
12,000원 / 145×2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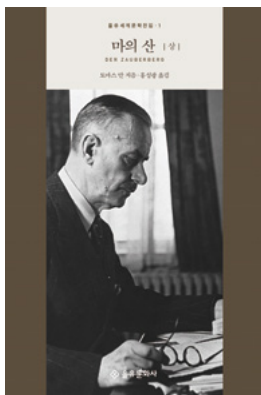


3.
을유세계문학전집

토마스 만 지음
홍성광 옮김

1·2. 마의 산 DER ZAUBERBERG

2008. 6. 20. / 664쪽(상), 772쪽(하)
각 15,000원 / 128×188mm



평생을 『마의 산』 연구에 천착한 홍성광 박사의 깊이 있는 번역으로 만나는 토마스 만의 대표작. 『마의 산』은 원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과 짝을 이루는 단편으로 기획된 작품이었지만, 점점 방대해져서 12년 후에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 되었다. 작가는 1913년 집필을 시작해 1924년 9월 27일에 집필을 마쳤다. 그 결과, 이 책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정치 및 사회의식이 대전환점을 맞이한 11년간의 시간 동안 토마스 만이 작가로서 자신의 정신적 삶의 궤적을 기록한 소설이 되었다.

이 작품은 특히 소설 속 인물들을 동화나 신화 속 인물들로 비유하면서 작품 무대를 신비로운 분위기가 깃든 곳으로 묘사한다. 이처럼 신화적이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마의 산』은 여러 평론가로부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유럽 문명 세계의 정신적 총체”라고 평가받았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는 토마스 만이다.
— 죄르지 루카치

3. 리어 왕·맥베스 KING LEAR·MACB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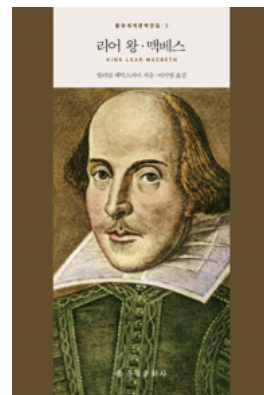
악과 욕망과 고뇌가 소용돌이처럼 맴도는 걸작

『리어 왕』과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기량과 인생에 대한 원숙한 시선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셰익스피어는 풍성한 상징과 은유로 고뇌, 갈등, 절망, 복수, 야심, 질투, 죽음 같은 인생의 어두운 뒤편길을 극적이고도 시적으로 그렸다.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선과 악, 고귀함과 비천함, 지혜와 어리석음, 도덕과 부도덕, 사랑과 증오, 운명과 자유의지 간의 갈등과 긴장을 발견하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가장 악한 인물도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가장 도덕적인 인물도 인간적 결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증법적 사물관은 우리를 삶의 양면성과 인간 운명의 비극성에 대한 성찰로 이끌어 간다. 그러기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구체적인 상황에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울림을 선사한다.

신과 같은 눈을 가진 작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가장 가까운 이가 셰익스피어라고 생각한다.
— 로런스 올리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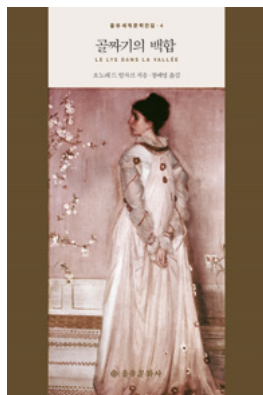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이미영 옮김

2008. 6. 20. / 344쪽
10,000원 / 128×188mm



2008. 7. 20. / 416쪽
12,000원 / 128×188mm

근현대 프랑스 소설의 모범이자 효시



『골짜기의 백합』은 발자크가 36세에 집필한 소설로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90여 편의 방대한 『인간극』 중에서 그의 대표작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에서부터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문학사의 주요 걸작들의 모델이 되었다. 발자크의 낭만적 성향이 최고도로 발휘된 이 작품은 플라토닉한 연애 소설이자 한 인간의 내적 성숙을 묘사한 성장 소설이며, 왕정복고기의 사회와 인간 군상을 날카롭게 묘사한 사회 소설이기도 하다. 결말부의 거듭되는 반전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독해를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은 당대 현실과 사회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발자크의 날카로운 통찰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선보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여러 모습은 왜 발자크가 리얼리즘 소설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를 잘 보여 준다.

발자크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으뜸이었고,
최고 중의 최고였다.

— 빅토르 위고

영원히 사랑받는 모험 소설의 고전

2008. 7. 20. / 466쪽
12,000원 / 128×188mm

『로빈슨 크루소』는 대니얼 디포가 신아홉 살 때인 1719년에 발표한 대표작으로, 그보다 7년 늦게 출간된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로 꼽힌다. 이 책은 발간 첫 해인 1719년에만 약 네 달 간격으로 5쇄에 들어갈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당시 책 시장의 관행대로 온갖 유명 판본들과 모조품들을 양산했고, 본인이 쓰지도 않은 ‘속편’들이 이미 시장에 돌아다녔다.

격동기 영국의 시대 분위기와 정신이 집약된 이 모험 소설은 1719년 초판이 나온 이래 오늘날에도 팬터마임, 오페라, 영화, 연극 등으로 각색되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디포와 그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가 산 역사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산 역사에 태동된 사회, 경제, 정치적 제도와 이와 연관된 정서 및 사상,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만들어 낸 사실주의 소설 등의 문학 장르가 이후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디포는 ‘세계사적 개인’이기도 하다.”

『로빈슨 크루소』는 근대 소설의 효시다.

— 이언 와트



2008. 8. 20. / 844쪽
15,000원 / 128×188mm



중국 현대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 다이허우잉의 대표작

이 작품은 신중국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이자 우리에게선 『사람아 아, 사람아』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다이허우잉의 첫 작품이며, 문화대혁명을 관통한 지식인들의 생생한 역사적 자화상이다. 격랑의 중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시인의 죽음』은 당시 지식인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과 고뇌, 혁명의 상처, 정치적 광기 등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흔 문학에 속한다.

이 작품은 반체제적 내용으로 인해 출간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 다이허우잉은 이 작품을 시작으로 『사람아 아, 사람아』, 『하늘의 발자국 소리』를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격변기 중국 지식인의 운명을 그린 3부작을 완성했다.

“중국 문화 대혁명의 끝자락에서 작가 다이허우잉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었다. 작가는 본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혁명일진대, 자신들의 혁명은 오히려 인간다움을 박탈하고 모든 것을 계급성으로 대체해 버렸다고 보았다. 작가의 이러한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정치화’가 아닌 ‘정치의 인간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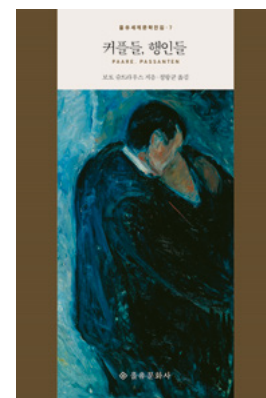
한트케, 엘리네크에 비견되는 독일어권 문학의 가장 논쟁적 작가. 현대 사회의 고독 속에서 남녀 관계의 변질을 파헤치다

2008. 8. 20. / 264쪽
10,000원 / 128×188mm

『커플들, 행인들』은 보토 슈트라우스의 사상 전반을 담은 대표작이다. 지난 30년간 천착해 온 그의 문학적 주제들을 독특한 형식으로 재현하는 이 에세이는 사랑, 고향, 문학, 회상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연작 형식으로 펼쳐 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여섯 개의 장은 언뜻 보면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파편적인 문장에 부여된 일련의 내적 질서를 통해 이 책의 제목 ‘커플들, 행인들’이라는 주제를 향해 가고 있다. 맺어지지 못한 채 제 갈 길을 가는 커플은 서로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하는 행인, 즉 타자와 다를 바가 없지만, 작가는 타인들 간의 만남을 열어 주는 통로를 암시함으로써 커플이나 행인이 서로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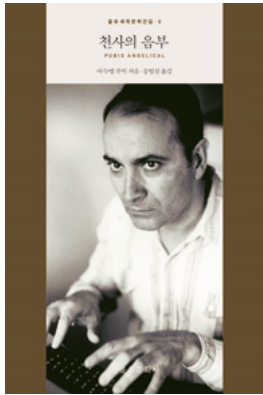
상업화, 기계화, 인간의 고독을 다룬 이 작품은 2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현대인의 삶을 사유하는 문학적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다.



마누엘 푸익 지음
송병선 옮김

8. 천사의 음부 PUBIS ANGELICAL

208. 8. 20. / 412쪽
12,000원 / 128×188mm



SF, 첩보물, B급 영화, 포르노그래피가 혼재된
라틴아메리카 현대 소설의 대표작

1979년에 발표된 『천사의 음부』는 『거미 여인의 키스』의 작가 푸익의 창작력과 기교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1979)에 쓰여진 대표작이다. 남성 작가가 쓴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아르헨티나 여자인 아니타는 암에 걸려 멕시코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녀에게는 페미니스트인 친구와 좌익 운동가인 애인이 있다. 그녀는 그들과 신상에 대하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이것이 작품의 외면적인 줄거리를 형성하지만, 소설 속에는 두 명의 낯선 등장인물이 더 들어가 있다. 그것은 아니타의 무의식 속에서 ‘여주인’과 ‘W218’이라고 호칭되는 두 여자로, 이들은 아니타의 분신으로 보이기도 하고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불행하고 배신당한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을 위해 이용되는 여자들을 그리면서 죽음, 모성애, 섹스 대상으로서의 여성, 아름답고자 하는 여자들의 욕망을 다루고 있다. 푸익은 늘 영화의 옹호자였으며, 『천사의 음부』는 그의 소설 중 이러한 대중문화 코드가 가장 많이 침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9. 어둠의 심연 HEART OF DARKNESS

문학사상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에 당도한 작품

주인공 말로는 친척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무역회사 소속의 증기선 선장이 된다. 업무의 일환으로 어느 강에 도착한 말로는 그곳에서 ‘전설의 인물’ 커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커츠는 원주민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교역 물품을 이끌어내며 그 지역 무역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때문에 회사 내에서의 승진과 사회적 출세가 가장 확실하게 담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말로는 커츠의 교역소가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후에 이것이 커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직접 커츠를 만나게 된 말로는 유럽의 문명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곳 정글에서의 삶이 인간 본성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경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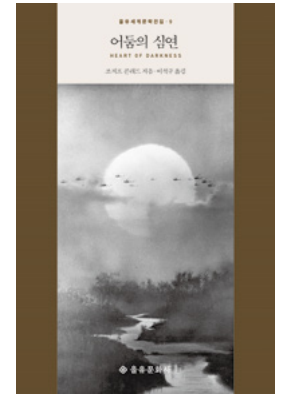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텍스트인 동시에, 심리 비평과 신화 비평 등 다양한 잣대로 해석되는 『어둠의 심연』은 1890년에 실제로 있었던 콘래드의 콩고강 운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책에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원작으로 유명한 『어둠의 심연』 외에도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단편 소설 「진보의 전초기지」, 「청춘과 다른 두 이야기」의 작가 노트, 『나르시스호의 검둥이』 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콘래드의 펜에서 추하거나 쓸데없는 구절이
흘러나오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 버지니아 울프

조지프 콘래드 지음
이석구 옮김

208. 9. 20. / 268쪽
10,000원 / 128×188mm



2008. 9. 20. / 684쪽
15,000원 / 128×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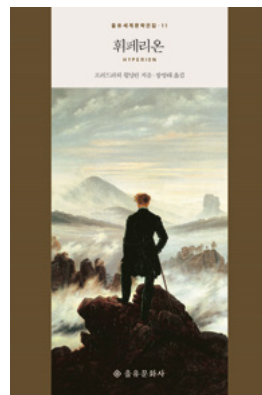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완역 소개되는 중국 전통극의 최고봉
남녀 이합의 정을 빌려 역사의 흥망을 말하다

중국 전통 장편 희곡의 대표작인 『도화선』은 공자의 64대손인 공상임이 지은 것으로, 한 왕조의 흥망사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극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자결과 남명 왕조 초기 복왕 정권의 흥망을 배경으로, 젊은 선비 후방역과 남경 기생 이향군의 만남과 이별, 재회와 각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공상임은 후방역과 이향군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명 왕조가 누구 때문에 패망했는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다. 그는 명 패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악한 권력 집단이며,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한 양문충이나 후방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젊은 남녀의 비환이합(悲歡離合)이라는 낭만적인 주제와 역사에 대한 회환과 반성이 잘 어우러져 있는 『도화선』은 중국에서 역사극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완역본에서는 주석이 상세하고 오류가 비교적 적어 널리 보급된 왕계사 교주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2008. 10. 20. / 308쪽
12,000원 / 128×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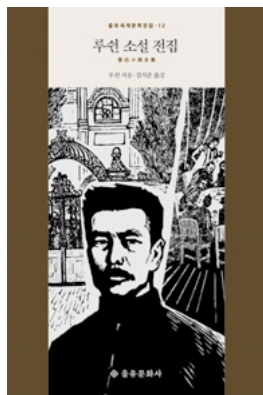


시인 뢰들린의 서정적 교양 소설
신과 자연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고대 그리스적 세계를 동경하는 노래

터키의 압제 아래 있던 18세기 후반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주인공 휘페리온이 독일인 친구 벨라르민에게 보낸 서신과 연인 디오티마와 주고받은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편지에서 휘페리온은 황금시대인 유년기, 스승 아다마스와의 만남, 행동주의자 알라반다와 함께한 그리스 해방 전투, 이상적 세계의 상징인 디오티마와의 사랑과 이별, 알라반다와 디오티마의 죽음 등을 겪은 뒤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현재의 심경을 술회한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휘페리온의 자기 성찰과 의식의 형성 과정, 인간과 자연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근원적 세계에 대한 사무치는 동경, 휘페리온 안에 있는 불협화음의 해소 등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독일 교양 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 준다.

괴테, 실러와 동시대인이면서 생전에 그들처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평생을 정신 착란 속에서 불우한 삶을 살아야 했던 시인 뢰들린이 남긴 유일한 소설인 『휘페리온』에는 “그리스의 은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부제처럼 독자는 은자에게서 직접 현명한 가르침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12. 루쉰 소설 전집 魯迅小說全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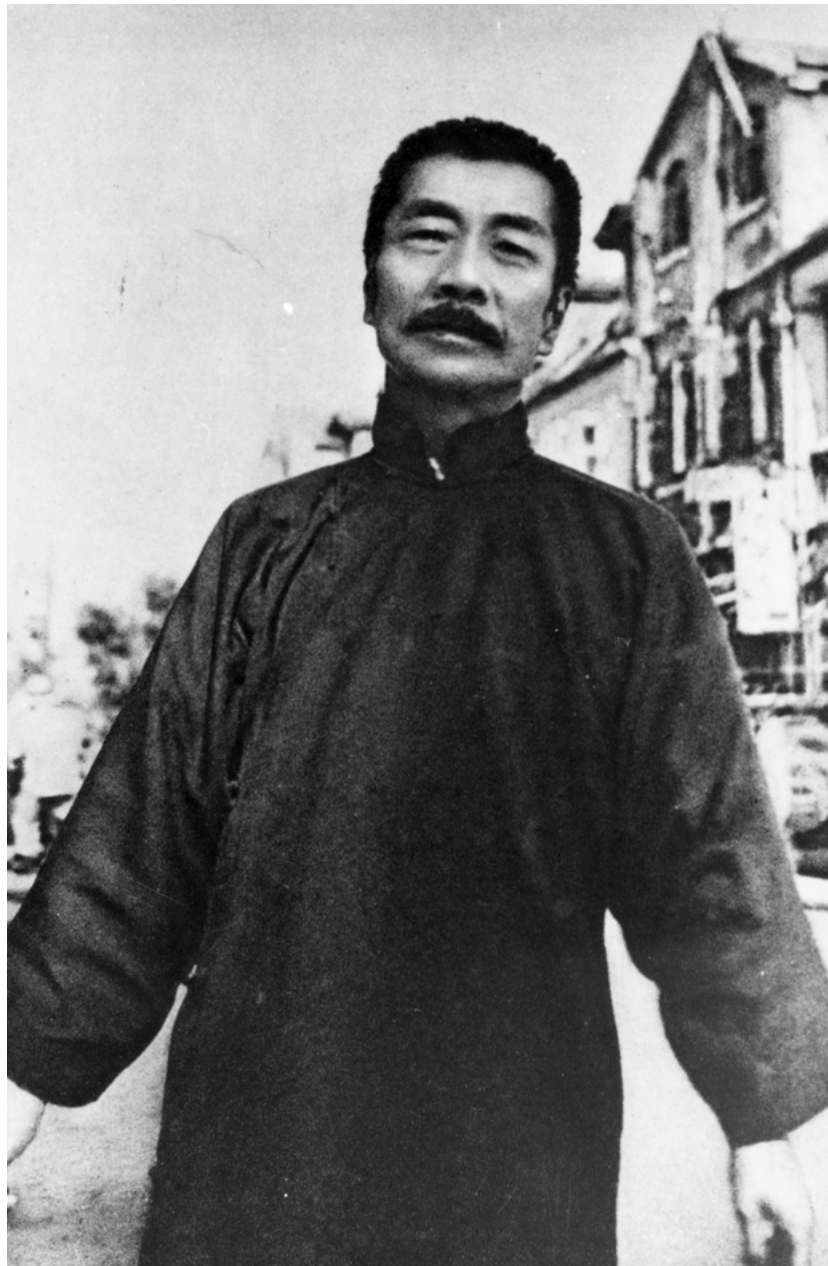
중국이 낳은 세계적 대문호 루쉰 문학의 결정판

루쉰이 일생 동안 발표한 소설들을 엮은 여러 소설집에 수록된 33편을 번역한 완역본. 「아큐정전」으로 대변되는 그의 소설은 중국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통하던 과도기에 중국인들이 체험했던 혼란과 방황을 주제로 한다. 루쉰은 봉건주의라는 전통 사회의 미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 계몽함으로써 중국의 근대화에 공헌했고, 강렬한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그의 작품들은 후대의 문학 사조나 형식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절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인간을 얼마나
속박하는지를 미친 사람(광인)을 통해 들춰 보인
「광인일기」, 중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정신 승리법’을 통해 스스로를 기만하며 사는 민중을
풍자한 대표작 「아큐정전」 등 루쉰의 단편 전편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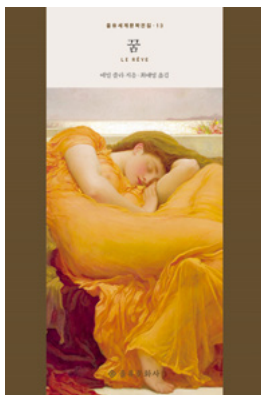
새로운 삶의 길은 아직 얼마든지 있다.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떻게 해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를 모른다. 때로는 마치 그 삶의 길이 한 마리의
회색빛 뱀처럼 스스로 꿈틀거리며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다리며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자 갑자기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 책 속에서



2008. 11. 25. / 352쪽
12,000원 / 128×188mm

에밀 졸라의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설



국내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 작품은 『목로주점』, 『제르미날』 등으로 자연주의 문학을 확립한 에밀 졸라의 가장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소설이다. ‘앙젤리크’라는 한 고아 소녀가 경험하는 환영 같은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원시 가톨릭교회의 신비주의적 색채가 주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졸라의 작품 중 예외적인 사례로 꼽힌다.

『꿈』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 신앙과 기도로 점철된 고요한 삶에 대한 이끌림, 우리 내면에 도사린 힘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초자연적 믿음,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물론적인 설명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앙젤리크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욕망에서 자양분을 얻은 상상력으로 저 너머의 세계를 지어 내고, 자신을 스스로 그 속에 가두었다. 결국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여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결국 모든 것은 꿈이다. 우리 각자는 어떤 신기루를 만들어 낸 다음 사라져 버리는 어떤 걸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이 소설이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확장된 의미일 것이다.

— 에밀 졸라의 작품 메모

19세기 후반 유럽의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작가
‘문학계의 프로이트’라 불린 슈니츨러의 문제작

라이겐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춤의 형태로, 원형으로 둘러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추는 것이 특징이다. 슈니츨러는 이 춤의 형식에 착안해 『라이겐』을 집필했다. 모두 열 명의 인물이 차례로 연인을 바꾸어 가며 사랑을 나누는 열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 인물이 열 번째 에피소드에 다시 등장함으로써 라이겐 춤과 동일한 순환 구조를 보여 준다. 또한 각각의 에피소드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노골적으로 성을 주제화했다는 점, 엄격한 성 윤리에서 벗어나는 관계를 그렸다는 점, 성적 욕망을 도덕적으로 간단히 단죄할 수 없는 자연의 본능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당시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문제작이었다. 이후 『라이겐』은 빈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재평가받았다.

슈니츨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심리 연구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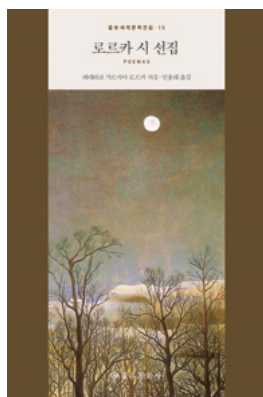
— 지그문트 프로이트

2008. 11. 25. / 344쪽
12,000원 / 128×188mm



2008. 12. 20. / 392쪽
12,000원 / 128×188mm

요절한 천재 시인 로르카의 매혹적 시 세계
유려한 우리말 번역으로 완성된 로르카 시집의 결정판



이 책에 실린 시들은 로르카가 남긴 9권의 시집에서 가려 뽑은 것들로서, 이처럼 많은 분량의 로르카 시를 소개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내가 오늘 로르카 시를 번역하게 된 것은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는 역자의 유려한 번역이 로르카를 한국어로 생생하게 되살리고 있다.

로르카는 생전에 이미 국민 시인 취급을 받았다. 또한 거의 신화가 된 그의 아까운 죽음은 그를 일종의 국민적 영웅, 좌절한 스페인의 양심 자리에 올려놓았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그의 명징한 시편들은 아직도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로르카의 문학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 특히 열정을 바쳤던 연극에서 로르카의 이름은 브레히트나 피란델로와 같은 개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그의 본령은 시에 있다 하겠다.

현대성의 본질과 운명을 통찰한 카프카 문학의 정수

『소송』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의 형성과 과학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을 향한 20세기의 여명기에 현대성의 본질을 통찰하고 인간 존재의 근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투영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더 이상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현대 세계와 이질적이고 모순적이며 다층적인 인간 주체에 대한 이중의 인식을 그로테스크하게 그린다는 점에서 20세기 현대 문학의 시원(始原)이 되고 있다. 카프카의 독특하고 불완전한 작품 세계는 카뮈의 『이방인』과 사르트르의 『구토』 등 실존주의 문학뿐만 아니라 표현주의 미술, 해체주의 철학, 부조리 연극 등 20세기 현대 예술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작품은 기계 문명에 의한 인간의 자기 소외와 총체적으로 인식 불가능한 세계가 대립하는 위기 속에서 개인이 무기력하게 파멸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현대인을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의해 일체의 관계를 박탈당한 채 고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지 20세기 현대 문명의 근본적인 화두를 던진다.

모든 것을 제시하지만 아무것도 확증하지 않는 것이
『소송』의 운명이자 위대함이다.

— 알베르 카뮈

2008. 12. 20. / 386쪽
12,000원 / 128×188mm



로베르토 볼라뇨 지음
김현균 옮김

2009. 1. 20. / 280쪽
10,000원 / 128×188mm



17.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LA LITERATURA NAZI EN AMÉRICA

히틀러를 사랑한 극우 작가 30명,
그들의 행적을 사전 형식으로 서술한 블랙 유머 소설

이 책은 백과사전의 형식을 빌어 가상의 아메리카 극우 작가 30명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해설하는 블랙 유머 소설이다. 부르주아 귀부인, 뒷골목 인생, 축구단 서포터, 게임 제작자, 심지어 흑인까지 포함된 이들 아리안주의자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며 실존 인물들과 교통하기까지 한다.

볼라뇨의 이름을 스페인어권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 작품은 허구적으로 창조된 극우 작가들이 작품 세계의 한 축을 구성한다. 재능을 가진 사람도 몇 명 있었겠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찰의 주목조차 받지 못한 채 50명이 읽을까 말까 한 시와 소설을 쓰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죽는다. 이들의 허망한 삶과 아무 가치도 없는 작품들은 문학이라는 꿈의 세계에 잘못 발을 들여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애도라 할 수 있다.

역사상 어떤 작가도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같은 소설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 니콜 크라우스

18. 빌헬름 텔 WILHELM TELL

자유와 혁명의 우상, 빌헬름 텔
자유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마지막 작품

14세기 있었던 스위스 민중 봉기를 배경으로 한 『빌헬름 텔』은 괴테와 함께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최고봉을 이룬 실러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평생 ‘자유’를 화두로 삼은 그의 사상적 지향성과 작가로서의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1804년 괴테의 감독 아래 바이마르 궁정 극장에서 초연되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민중의 저항과 자유 의식, 심지어 폭군 살해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 작품은 그 정치적 폭발력 때문에 공연이 금지되거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결국 독일 연극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는 학생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되는가 하면, 오페라로도 개작되어 널리 사랑받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극의 반열에 올라 지금도 해마다 상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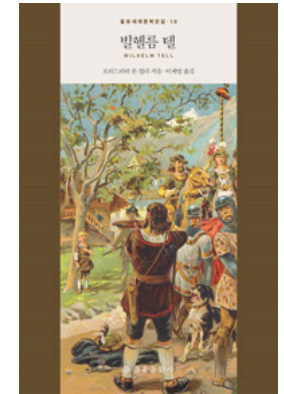
실러는 쉬지 않고 정신적인 자유에 대해 말했다.

그의 유산은 이후 낭만주의자들의 정신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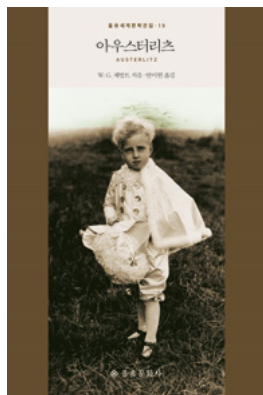
— 이사야 벌린

프리드리히 폰 실러 지음
이재영 옮김

2009. 2. 20. / 236쪽
10,000원 / 128×188mm



2009. 3. 20. / 352쪽
12,000원 / 128×188mm



21세기 독일문학이 내놓은 가장 감동적인 성과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했을 때 유대인 어린아이를 영국으로 피신시키는 구조운동이 일어났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영국은 약 1만 명의 유대 어린아이를 받아 주었는데, 네 살이었던 아우스터리츠 역시 그때 영국으로 건너왔다. 양부모는 그의 출신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 자신도 20세기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뒷날 건축사가가 된 아우스터리츠는 이제는 꿈처럼 막연한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유년 시절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데…….

이 소설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주인공 ‘나’가 벨기에에서 늙은 건축사가 아우스터리츠를 만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100여 개의 흑백 사진 및 이미지가 본문에 수록되어 독자들에게 특이한 독서 체험을 선사한다. 특히 어린아이가 궁정복 차림으로 찍혀 있는 표지 사진은 본문(202페이지)에도 나오는 것으로 소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위대한 문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제발트의 소설에 들어 있다.

— 수전 손택

동시대 유럽에서 나온 가장 독창적인 목소리.

— 폴 오스터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 비견되는 체험 수기
헤세 스스로 가장 개인적이고 진지하다고 평한 작품

이 책은 「요양객」, 「방랑」, 「뉘른베르크 여행」을 묶은 것으로, 헤세가 생의 중반기 이후 은거한 스위스 몬타놀라에서 쓴 자전적 수기다. 헤세의 오랜 화두, 즉 예술가의 삶이란 시민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양극성 사이를 부유하며 합일성의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요양객」은 그 주제와 이야기 배경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동시대 작가인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 비견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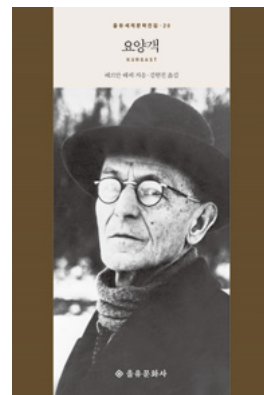
1919년 5월, 방랑자 헤세는 류머티즘 관절통과 좌골 신경통증이 발병하면서 바덴 요양소에 머문다. 환자로서 수동적인 일상을 보내야 하는 익숙하지 않은 생활을 견뎌 내기 위해 헤세는 날마다 자신이 체험한 인상을 적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쓴 체험 수기가 일종의 ‘요양 심리학’인 「요양객」이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시민적 삶을 떠나 자연적 삶으로 옮겨 가는 자신의 방랑 여정을 그린 「방랑」과, 뉘른베르크로부터 낭송회 초빙을 받고 독일 여행을 감행하는 이야기 「뉘른베르크 여행」도 함께 실려 있다.

헤세의 매혹적인 이 수기는

마치 나의 일부인 것처럼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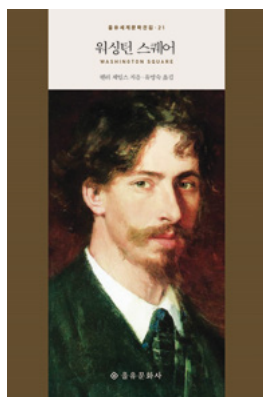
— 토마스 만

2009. 4. 25. / 296쪽
10,000원 / 128×188mm



2009. 6. 25. / 320쪽
12,000원 / 128×188mm

헨리 제임스 작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소설
결혼과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드라마



『워싱턴 스퀘어』는 오스틴, 발자크, 호손 등 선배 작가들의 ‘흔적’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으면서도 제임스 고유의 터치가 살아 있는 걸작이다. 1880년에 발표되어 제임스답지 않게 간명한 상황 설정과 문체, 적은 수의 등장인물로 이루어진 이 장편소설은 이후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널리 애독되어 왔으며 “헨리 제임스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워싱턴 스퀘어』만큼은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제임스 문학의 입문서 구실을 했다. 두 차례 영화화되었으며, 특히 윌리엄 와일러가 연출한 1949년 영화는 명작으로 남아 있다.

잘 나가는 의사의 딸이지만 평범한 외모와 소심한 성격 때문에 늘 뒷전으로 비켜서 있는 캐서린. 어느 날 그녀 앞에 ‘눈이 부실 지경으로 아름다운’ 모리스가 나타나 사랑을 고백한다. 둘은 결혼을 약속하지만, 딸을 평가 절하하는 아버지는 모리스의 목적이 돈에 있다고 단정한다.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아버지와 거기에 맞서는 모리스. 캐서린의 사랑은 파국을 향하는데…….

헨리 제임스는 어떠한 비밀도 남기지 않는다.
그는 모든 비밀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즉 아름답게 드러낸다.
— 조지프 콘래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 대표작

2009. 7. 30. / 306쪽
12,000원 / 128×188mm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원하는 청년의 영혼 편력, 절망과 일탈의 나날을 그린 이 작품은 출구 없는 현실에 놓인 현대인에게 재생의 희망은 있는지 물음을 던지는 오에 겐자부로의 수작(秀作)이다. 이 작품은 오에의 인생과 작품 세계에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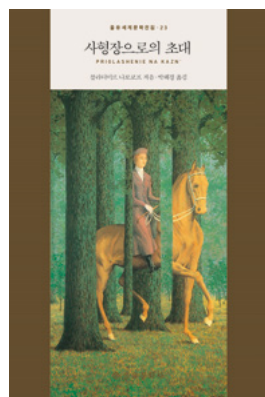
이 작품은 실제로 오에 겐자부로의 장남 히카리가 뇌에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일을 계기로 쓴 작품으로, 오에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인기를 누린 작품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거침없는 상상력을 구사하여 충격적이고 외설스럽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요설체로 떠들어 대던 젊은 작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체험을 더듬더듬 진솔하게 꺼내 놓은 것이다.

27세의 학원 강사 버드는 결혼한 후 아기가 생기지만 아프리카로의 모험 여행을 꿈꾸는 부동(浮動)하는 젊음이다. 태어난 아기가 뇌 손상을 가진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일체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긴 현실에 절망하고, 아기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려 술과 옛 여자친구 히미코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오에 겐자부로의 문장은 송곳처럼
직설적이고 진솔하다.
— 『라이프』



2009. 8. 25. / 280쪽
10,000원 / 128×188mm



『롤리타』의 작가 나보코프 자신이 꼽은 대표작

20세기 러시아 문학과 미국 문학 양쪽에서 거대한 업적을 남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걸작. 기묘한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를 주인공으로 예술가의 사회적 고립을 풍자하고 있다. 일찍이 나보코프는 자신의 작품들 중 『사형장으로의 초대』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나보코프가 러시아어로 발표했던 작품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투명하지 않다’는 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친친나트. 창작에 취미가 있는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알고자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할 뿐이다. 그가 홀로 감혀 있는 기괴한 감옥에서 간수와 소장은 끝없는 광대 짓으로 그를 희롱하기에 바쁘고, 롤리타를 연상케 하는 소장의 딸은 그의 감방을 뛰어다닌다. 모두가 정신이 이상한 듯한 가족과 친친나트의 어머니를 자처하는 여자가 면회를 오는 소란 속에서 새로운 죄수 므슈 피에르가 옆 감방에 수감되는데…….

내가 쓴 작품 중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형장으로의 초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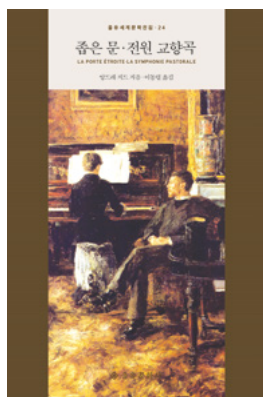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앙드레 지드 지음
이동렬 옮김

24. 좁은 문·전원 교향곡
LA PORTE ÉTROITE ·
LA SYMPHONIE PASTORALE

2009. 9. 25. / 316쪽
12,000원 / 128×188mm



앙드레 지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20세기 프랑스의 대표 작가다. 이 책은 『좁은 문』과 『전원 교향곡』이 ‘프랑스 문학 전통과 닿아 있는 고전적 소설’이라는 관점 하에 정평 있는 플레야드판을 토대로 작품 원문의 감동을 성실하게 재현하려 애썼다.

『좁은 문』은 앙드레 지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작가를 유명하게 만든 출세작이라는 의미나, 그의 많은 작품 중 가장 즐겨 읽히는 작품이라는 의미 등 문학사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용과 형식의 가장 조화로운 일치를 보여줌으로써 프랑스 고전주의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의미에서도 『좁은 문』은 지드의 대표적 작품이다. 『좁은 문』은 무엇보다 신비스런 사랑의 아름다운 시적 기록이다. 이 작품이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읽히는 것은 주로 작품의 이러한 측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드는 간결하고 명쾌하며 절제 있는 고전적인 아름다운 문체로 이 사랑의 시를 기록하고 있다.

『전원 교향곡』은 우리의 관습적 분류에서 중편소설 정도에 해당할 짙막한 길이의 작품으로 1916년경 지드가 겪었던 종교적 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간결하고 명쾌하며 절제된 문체가 작품의 단순한 구조를 훌륭히 떠받치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문체와 전개는 감식력 있는 독자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준다.

25. 예브게니 오네긴
EVGENI ONEGIN

러시아문학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킨 푸슈킨의 최고 걸작

『예브게니 오네긴』은 푸슈킨이 9년에 걸쳐 완성한, 총 5천 5백여 행으로 이루어진 시로 쓴 소설이다. ‘시’답게 고정된 형식과 운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극상의 기교를 발휘한 작품이며 ‘소설’답게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과 당대 러시아 사회와 사상을 묘사하는 걸작 장편소설이기도 하다. 푸슈킨은 작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예브게니 오네긴』을 자신의 최고 작품이라 칭하였다.

이 책은 푸슈킨이 최종적으로 삭제한 부분을 주에 첨부했고,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고유 명사에 해설을 붙인 찾아보기도 수록하여, 일반 독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순진한 시골 처녀 타티아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청년 예브게니 오네긴을 연모한다. 타티아나는 자신이 읽었던 책들의 여주인공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다. 며칠 뒤 오네긴이 찾아와 마치 아이를 타이르듯이 자신은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난 지금 소설이 아니라 시로 된 소설을 쓰고 있다네.
굉장한 차이지.

— 푸슈킨이 친구 바젤스키에게 쓴 편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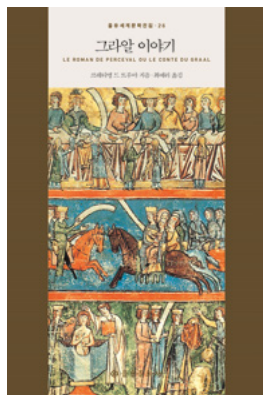
알렉산드르 푸슈킨 지음
김진영 옮김

2009. 11. 15. / 346쪽
12,000원 / 128×188mm



크레티앵 드 트루아 지음
최애리 옮김

2009. 11. 30. / 280쪽
10,000원 / 128×188mm



26. 그라알 이야기 LE ROMAN DU PERCEVAL OU LE CONTE DU GRAAL

그리스 로마 신화에 버금가는
‘성배 탐색 이야기’의 효시

이 작품은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작품으로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크레티앵 드 트루아는 12세기 무렵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로서, ‘아더 왕 이야기’를 소설로 쓴 첫 세대 작가로 꼽힌다. 아더 왕 이야기는 브리튼의 역사와 옛 켈트족의 신화, 기독교적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한 허구적인 왕국의 역사인 동시에 인류 구원의 역사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심에 ‘성배’라고 하는 성스러운 상징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라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아더 왕 이야기의 기폭제가 된 작품이다.

『그라알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페르스발의 이야기가, 후반부는 고뱅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전반부와 후반부는 서로 관련이 없이 전개되며, 특히 후반부는 그라알과 무관하게 전개되어 미완성 초고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수많은 후속작을 탄생시켰다. 그럼으로써 수수께끼 같은 이 『그라알 이야기』는 소진되지 않는 의미의 원전이 되었다.

27·28. 유림외사 儒林外史

타락한 지식인 사회를 풍자한 자전적 걸작
6대 기서 중 한 권인 중국 고전소설의 대표작

중국 풍자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유림외사』는 작자 오경재가 거둬드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체험을 통해 비판적으로 통찰한 청대의 사회 현실, 특히 타락한 지식인 사회의 본질을 파헤쳐 무려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자전적(自傳的) 걸작이다. 청대 지식인 사회의 위선적이고 비틀린 모습을 각 회에 등장하는 온갖 인물 군상들을 통해 찬찬히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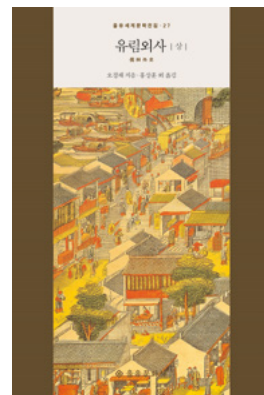
뒤틀린 청대 지식인 사회 속에서는 옳은 정신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어리석거나 미친 존재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저항하다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의 퇴장은 숭고하다기보다 쓸쓸한데, 그들의 싸움이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림외사』의 주제는 병든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고발이자 그 속에서 무력하게 스러져 가는 개별 지식인들의 실상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유림외사』를 쓴 작가의 능력이 어찌 『삼국지연의』를 쓴 나관중보다 못하겠는가?

— 루쉰

오경재 지음
홍상훈 외 옮김

2009. 12. 30. / 632쪽(상), 532쪽(하)
15,000원 / 128×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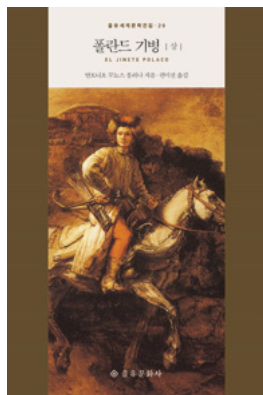


안토니오 무뇨스
물리나 지음
권미선 옮김

29·30. 폴란드 기병 EL JINETE POLACO

2010. 1. 30. / 440쪽
13,000원 / 128×188mm

민주화 이후 스페인이 내놓은 최고의 소설



현대 스페인 문학의 대표 작가인 안토니오 무뇨스 물리나가 독재자 프랑코 이후 스페인의 역사를 개인사와 결부지은 장편소설 『폴란드 기병』은 내전과 독재로 얼룩진 어두운 스페인 현대사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마누엘과 나디아의 개인사가 소설의 한 축을 이루며, 다른 축은 스페인의 역사와 연관돼 있다. 시간을 거슬러 ‘1898년 스페인의 대재앙’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스페인 내전 발발과 이후 프랑코 독재 기간, 프랑코 사후의 민주화 이행기와 같은 집단적인 역사를 덧입힘으로써 스페인 현대사 전체를 조명한다.

소설의 제목으로 차용된 작품은 1655년경 램브란트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폴란드의 기병」이다. 이 작품은 3백 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조국 스페인의 과거와 자신의 유년 시절 기억을 억누르고 살던 마누엘을 연결시키고, 그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도록 이끈다. 현대 스페인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폴란드 기병』은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주인공 마누엘의 가족사와 스페인의 역사를 재현해 내면서 포스트모던한 걸작의 진가를 보여 준다.

31. 라 셀레스티나 LA CELESTINA

스페인 중세 문학의 걸작
『돈키호테』와 쌍벽을 이루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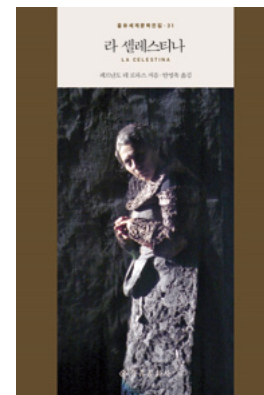
스페인 최고(最古)의 소설로 꼽히는 이 작품은 “만일 스페인에 『돈키호테』가 없었다면 대신 그 영광을 누렸을 작품”이라 할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스페인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의 원형 중 하나를 이룬 이 작품은 신 중심 사회이던 중세가 막을 내리고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뀌어 가던 시기의 산물로서, 인생과 사랑과 운명과 신을 다각도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영민하나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었던 작가는 누구보다도 시대의 공기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당시 스페인 당국은 이단 심문소를 설치하여 조상들의 종교까지 추적하여 가톨릭 피의 순수성을 강요했으며, 그렇게 개종한 사람에게는 스페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라 셀레스티나』 속에는 이런 전환기의 기운이 생생하게 녹아 있으며, 정신과 물질, 개인 가치와 사회 제도, 주인과 하인, 인간 존재와 그 본질의 투쟁과 갈등이 당시 스페인 하층 문화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작품이라
그 노골적인 표현만 좀 더 감추었더라면
불후의 명작이 되었을 것이다.

— 미겔 데 세르반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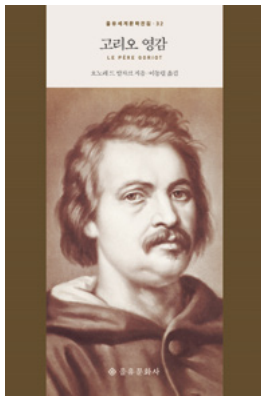
페르난도 데 로하스 지음
안영옥 옮김

2010. 3. 30. / 394쪽
13,000원 / 128×188mm



2010. 4. 25. / 442쪽
10,000원 / 128×188mm

19세기 리얼리즘 소설의 정점
서머셋 몸이 뽑은 세계 걸작 소설 10선 선정



몰락한 시골 귀족의 아들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지고 파리로 올라온 라스티냐크. 이 야심만만한 젊은이는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고 결과는 확실한 학업을 접고 사교계로 진출하기로 한다. 거기서 유력한 여자와 엮임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운명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무도회에서 만난 눈부신 미모의 여인이 같은 하숙집에 기거하는 외톨이 노인 고리오 씨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발자크 연구자들은 1833년에서 1834년을 소설가로서의 발자크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시기로 여긴다. 『고리오 영감』은 바로 그 시기에 쓰인 작품이다. 순진한 청년이 주변 인물들의 급속한 파국을 통해 사회의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은 명실상부한 발자크의 대표작이다.

발자크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으뜸이었고,
최고 중의 최고였다. 그의 모든 작품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데, 그것은 살아 있고, 빛나며,
심오하다. 그 속에는 우리 시대의 문명 전체가 오고
가고, 걷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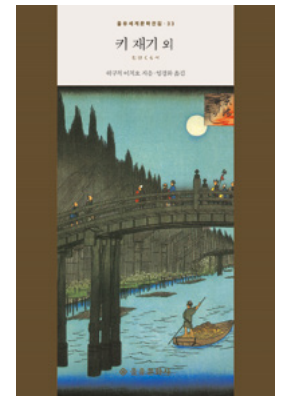
— 빅토르 위고

요시와라를 배경으로 한 소년 소녀들의 성장 소설
근대문학의 주체로서 여성상을 정립한 걸작

히구치 이치요는 일본 근대 최고의 여류 소설가이자 일본 지폐의 인물로도 채택된 작가다. 이 책은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을 모은 것이다. 이치요의 소설은 특권 계급의 ‘여류 소설가’들이 상류 사교계 등의 협소한 세계를 소재로 취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성의 삶과 고뇌를 언어화했다. 이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죽음 등으로 16세의 나이에 호주가 되어 평생 가난의 저주를 끊을 수 없었던 작가 자신의 삶이 투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표작인 『키 재기』는 그녀가 죽기 10개월 전에 완성한 것으로, 유곽인 요시와라의 구시대적 활기와 메이지적인 어둠, 사치와 빈곤, 해학과 슬픔이 교차하는 세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소년 소녀들과 그들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치요는 이 작품에서 에도 시대의 문체를 구사하면서 희미한 첫사랑의 추억이 폭력적으로 단절되는 한 유녀의 탄생을 응시함으로써 에도와 메이지를 잇는 빛줄 위를 무사히 건너고 있다.

2010. 5. 20. / 280쪽
10,000원 / 128×188mm



티르소 데 몰리나 지음
전기순 옮김

2010. 6. 25. / 352쪽
13,000원 / 128×188mm



34. 돈 후안 외 EL BURLADOR DE SEVILLA Y CONVIDADO DE PIEDRA

서구 문화의 영원한 아이콘
돈 후안 이야기의 원전

티르소의 약력은 다소 독특하다. 그는 가톨릭 사제가 된 이후 연극에 취미를 갖게 되어 희곡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1624년 발간된 첫 작품집의 서문에서 이미 3백 편을 집필해 놓았노라고 호언했다. 이후 사제로서 종단의 고위직에 오르며 종단의 역사를 집필했고, 1648년 수도원장으로 죽었다.

이 책은 17세기 스페인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극작가 티르소 데 몰리나의 희곡 『돈 후안』과 『불신자로 징계받은 자』를 한데 묶은 것이다. 돈 후안은 햄릿, 돈키호테, 파우스트 등과 함께 서구 문화의 신화적 아이콘 중 하나로, 뫼비우스, 바이런, 모차르트, 푸슈킨은 저마다 특색 있는 돈 후안 이야기를 창조하게 된다. 이 이야기의 원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티르소의 걸작 희곡이다. 특히 이 책에 실린 티르소의 대표작 중 하나인 『불신자로 징계받은 자』는 국내 초역이다.

35. 젊은 베르테르의 고통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이들의 심금을 울린 세기의 명작
정본에 부합하고자 기존의 틀을 깬 번역

1772년 봄 괴테는 베를린의 고등 법원에서 견습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법관인 부프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곧 부프의 둘째 딸인 샤를로테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샤를로테는 이미 외교관인 케스트너와 약혼한 사이였다. 괴테는 건잡을 수 없는 정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고,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두 사람에게 편지를 남기고 베를린을 떠났다. 그런데 얼마 뒤, 역시 베를린에서 브라운슈바이크 공사의 비서로 있던 예루살렘의 자살 소식을 들은 괴테는 큰 충격에 사로잡혔다. 예루살렘은 괴테와 라이프치히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친구의 부인을 사랑하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테는 자신의 체험과 예루살렘의 죽음을 엮어 『젊은 베르테르의 고통』을 탄생시켰다.

한국에서도 수십여 종의 번역본이 나올 정도로 인기작이었지만, 그동안 이 작품의 제목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관행처럼 정착되었다. 그러나 ‘슬픔’으로 번역한 단어는 원어에 담겨 있는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을 담보한다. 이 책에서는 관행처럼 사용해 온 역어들을 새롭게 정립해 정본에 보다 부합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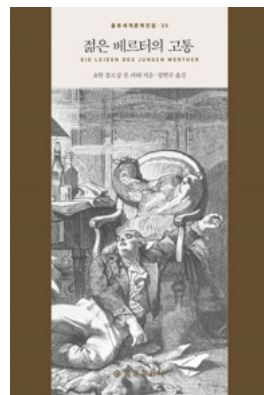
괴테는 유일하게 독일적인 예외다.

괴테는 하나의 문화다.

— 프리드리히 니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정현규 옮김

2010. 7. 30. / 232쪽
9,000원 / 128×188mm



베네딕트 예로페예프 지음
박종소 옮김

36.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 MOSKVA-PETUSHKI

2010. 9. 25. / 312쪽
13,000원 / 128×188mm



미국의 비트 제너레이션을 향한 러시아의 응답

전화 케이블공 베니치카. 근무 시간을 술로만 때우던 나날 중, 동료 근로자들의 낮 시간 알코올 소비량을 집계하여 그래프를 만든다. 불행히도 이것이 상부에 실수로 전달되면서 그는 작업반장 자리에서 쫓겨난다. 어린 아들과 애인이 사는 페투슈키로 떠나는 그는 두 시간 남짓한 기차 여행을 위해 사 놓은 여러 병의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한다. 승객들 모두가 술을 나눠 마시며 엉망으로 취하고 있을 무렵, 주인공은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는데…….

지하 출판물로 유통되다가 서방 세계에 출판되어 작가에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 준 이 작품은 브레즈네프 시대(1960·1970년대) 러시아 문학의 최대 수확 중 하나다. 길지 않은 분량임에도 작품 내부에 응축된 문학적·문화적 코드의 다양함으로 인해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텅 빔을 향해 나아가는 허무주의자의 여행이라 말해지기도 하고, 그 자체가 종교적 신념의 심오한 표현이라고 인식되기도 했다.

고골처럼 우리를 도취케 하는 작품이다.

예로페예프의 언어는 풍요롭고 다층적이다.

가장 상스러운 표현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시적인 산문이 바로 이어진다.

— 『월드 리터처 투데이』

37. 죽은 혼 MERTVYE DUSHI

니콜라이 고골 지음
이경완 옮김

러시아 근대 리얼리즘 문학의 아버지 고골의 최고작,
원전 완역으로 만나다

2010. 10. 30. / 584쪽
15,000원 / 128×188mm



이 소설은 농노 체제를 기반으로 한 19세기 러시아 지주 사회의 도덕적 퇴폐, 관료 체계의 모순과 부정 등을 사실적이고 비판적으로 그려낸,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죽은 혼”은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죽은 혼’이고,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는 ‘죽은 농노’라는 뜻이다. 살아 있으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비속한 자들이 펼치는 드라마는 고전 문학만이 지닌 위력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고골 문학의 백미이자 정수로 불리는 이 작품은 많이 소개되어 왔지만, 대부분 중역이거나 원전 번역이라 하더라도 발췌 번역에 머물러 있었다. 이 책은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원전을 번역한 작품으로서 역자는 러시아 근대 문학에 관한 축척된 연구를 바탕으로 이 까다로운 작품을 옮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고골의 4차원 산문에 비하면

푸슈킨의 산문은 3차원에 불과하다.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2010. 11. 20. / 576쪽
13,000원 / 128×188mm

어떤 로맨스보다 낭만적이지만
어떤 리얼리즘 소설보다 현실적인 걸작



우리에게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 소설은 운명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19세기 영국의 계급과 성의 좌표를 보여 주며 오늘날 영문학의 고전으로 추앙받는 작품이다. 이 번역본은 일어 중역본에서 유래한 뒤 끈질기게 유지되어 온 기존의 제목을 바로잡고, 작품 속의 사투리도 살려 원작의 분위기를 최대한 재현한 결정판 번역이다.

역자인 유명숙 교수는 1998년에 『워더링 하이츠』를 출간한 바 있다. 이 번역판은 영미문학연구회가 추천 번역으로 선정하 바 있었으나, 역자는 사투리를 살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워더링 하이츠』에서 사투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실제로 이 번역본을 읽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언쇼가의 후손으로서 하인과 다름없는 신세로 몰락한 헤어턴의 처지는 대사를 표준어로 번역해 놓아서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것이다.

『워더링 하이츠』를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사랑 이야기로 보기로 하면 어림잡아 원전의 10분의 1만 번역하면 된다. 『워더링 하이츠』는 언덕 위의 집인 워더링 하이츠에 사는 언쇼가와 언덕 아래의 집인 스러스크로스 그레이인지에 사는 린턴가 두 집안의 이야기가 큰 줄기를 이루는 소설이다. ‘언덕’이 ‘집’을 가려서는 안 된다.

— 옮긴이의 해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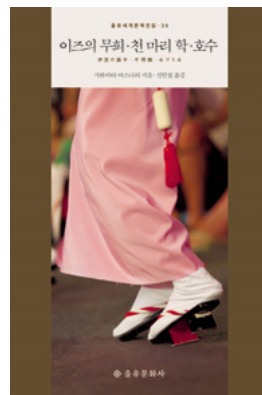
인간의 고독을 일본 특유의 서정으로 그려낸 명작
차가운 에로티시즘 속에 숨겨진 비애

2010. 12. 25. / 360쪽
13,000원 / 128×188mm

「이즈의 무희」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주인공과 유랑 가무단에 속한 무희와의 순수한 만남과 이별을 그린 작품으로 가와바타 초기의 대표작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은 한 청년의 성장을 담은 청춘 소설로 읽히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일본적 서정성으로 포장된 인간 내면의 고독감과, 차별 구조에 대한 논리가 흥미로운 소설이다.

간결한 심리 묘사와 에로틱한 긴장감이 넘치는 「천 마리 학」은 패전 후 시기의 대표작에 해당한다. 다도, 기모노 등 일본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전경에 배치되어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읽어 내기에도 좋다.

「호수」는 인간 내면의 복잡하게 얽힌 심리를 그린 이색적인 작품으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속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와바타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 작품은 이 선집이 국내에 최초로 소개했다.



등장인물의 심리와 자연이 심미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특기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자연은 차가운 에로티시즘이 비추는 인간 내면의 고독감, 단절감의 비애를 흡수하는 자연이다. (...) 사회적인 관계성이 도려내진 고독한 인간 군상들은 성적인 모티프나 자연의 서정성을 통해 그 주체할 수 없는 고독감을 투사하는 것이다.

— 옮긴이의 해설 중에서

2011. 1. 30. / 384쪽
11,000원 / 128×188mm

1850년대 ‘미국 문예 부흥’이 일군 최대의 성과



19세기 미국 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인 너새니얼 호손의 『주홍 글자』는 일종의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호손의 최고 걸작으로 간주되며 당대에도 깊은 충격을 주고 호평을 받았던 이 소설은 지금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널리 읽히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이 진행되는 고전으로 손꼽힌다.

한때 작가로서의 삶을 꿈꾸었으나 지금은 적성에 맞지 않는 세관에서 일하게 된 호손. 대부분의 시간을 무료하고 성실하게 보내던 중, 그는 낡은 문서와 자료를 쌓아 놓은 세관 2층의 한 방에서 기묘한 양피지 꾸러미를 발견하게 된다. 거기에는 독립 전쟁 이전에 발생한 어느 사건 조사 기록과 함께 대문자 A를 새긴 주홍색 천 조각이 들어 있었다. 무심코 이를 가슴에 대 본 호손은 달아오른 쇠덩어리처럼 뜨거운 느낌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 아름답고 경탄스러운 책이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그러하듯, 친숙함과 결코 고갈되지 않는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작품이다.
- 헨리 제임스

- 『주홍 글자』는 미국인의 상상력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소설일 것이다. 미국인 내면세계의
악마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작품이다.
- D. H. 로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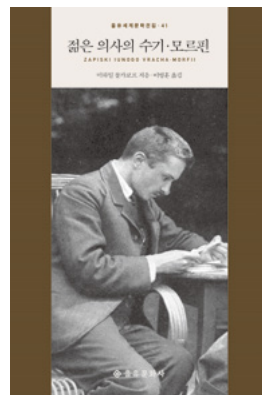
문학사상 최고의 ‘의사 작가’ 중 한 명인
불가코프의 놀라운 데뷔작

2011. 3. 5. / 248쪽
12,000원 / 128×188mm

일곱 편의 연작 단편소설로 이루어진 『젊은 의사의 수기』는 실제 의사로 활동했던 불가코프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의대를 방금 졸업한 신참 의사다. 그는 기차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벽촌에 배치된다. 그 지역에 의사라고는 자신 한 명뿐이어서 경험이 없는데도 조연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인공은 매일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을 만나고, 의사가 되려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면서 하루 1백 명의 환자를 진찰한다.

이 작품은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불가코프의 초기 걸작이다. 또한 청년 의사가 한번 진통제로 주사해 본 모르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래프까지 그려 보이며 의사다운 냉철한 눈으로 묘사한 단편 「모르핀」 역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작품이다.

- 젊은 의사의 희망과 두려움, 실수와 승리를 그려낸
진정한 드라마. 감동적인 걸작이다.
-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2011. 5. 20. / 320쪽
12,000원 / 128×188mm



소포클레스가 그려 낸 오이디푸스는 진정한 영웅이다. 모든 사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알려는 의지를 꺾지 않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마침내 모든 관객이 잘 알고 있는 최후를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인류의 대변자로 고양되어 있다. 이 판본은 「오이디푸스 왕」과 함께 「테바이 3부작」으로 불리는 「안티고네」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함께 수록했으며, 그리스 비극에 대한 역자의 해설을 추가해 더욱 풍부한 독해를 지원한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셰익스피어의 「햄릿」,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세계 문학의 영원한 3대 걸작이다.

— 지크문트 프로이트

「안티고네」는 사회 역사의 변화에 따른 집단 사이의 갈등을 윤리적 갈등의 형태로 제시한 최고의 작품이다.

— 헤겔

21세기 아랍어권 최대의 문제작
의사의 눈으로 병든 이집트 사회를 진단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야쿠비안 빌딩』은 21세기 들어 아랍어로 쓰인 소설 가운데 비평 면에서나 대중적으로나 가장 성공한 작품이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 동성애 등 아랍 문학에서 금기시되어 온 주제들을 대담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국가를 사금고처럼 운영하는 권력자들 아래서 나날이 쇠퇴해 가는 이집트 사회의 실상을 박진감 있게 묘사한다. 2011년에 일어난 이집트와 아랍 세계의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이다.

카이로 중심가의 고색창연한 유럽식 건물인 야쿠비안 빌딩. 한때는 영화를 누렸지만 점차 쇠락해 가는 이 건물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오직 여색에 탐닉하는 데 일생을 바친 늙은 신사, 경찰 대학 입학을 거절당한 뒤 이슬람 원리주의에 빠져드는 수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하는 사업가……. 치과 의사인 작가는 썩은 이를 찾아내듯, 이집트 사회를 카이로 도심의 한 건물에 집약해 놓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 나선다.

이집트의 부패와 종교적 광신주의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우아한 소설. 지난 50년 동안 아랍의 어떤 작가도 감히 이 주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 사드 에딘 이브라힘, 『포린 폴리시』



2011. 5. 20. / 392쪽
13,000원 / 128×188mm

44. 식(蝕) 3부작

2011. 6. 30. / 624쪽
15,000원 / 128×188mm



중국 현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이자 루쉰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 현대 문학의 거장 마오둔의 걸작 소설

『식 3부작』은 루쉰과 더불어 중국 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마오둔의 걸작 소설로, 한국에는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간 국내에서는 작가의 명성에 비해 마오둔의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식 3부작』은 마오둔 창작의 성숙기 혹은 수확기의 산물로, 세 편의 중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1920년대 중반 혁명 운동에 뛰어난 지식 청년들이 겪은 환멸, 동요, 추구의 체험을 다룬 것이다. 각각은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독립된 작품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연작으로도 읽을 수 있다.

초기 중국 공산당 당원이기도 했던 마오둔은 1927년 우연한 계기로 당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정치적 공백기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대혁명의 실패 후 정신없이 달려오던 삶에서 벗어나 “멈춰 서서 홀로 생각해 보는” 일을 스스로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 그 성찰의 산물이 바로 『식 3부작』이다.

『식 3부작』은 동시대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감정적 교훈주의의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현실을 파악해 낸 최초의 중국 현대 소설 작품이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자각으로 충만한 작품이다.

- 샤즈칭, 『중국 현대 소설사』 중에서

45. 엿보는 자

전혀 새로운 소설의 탄생을 알린
아름답고 음산한 미스터리

『엿보는 자』는 로브그리예의 소설 중 가장 유명하고 주목 받은 작품이다. 문학사적인 중요성과는 별도로, 극히 정밀하게 짜인 범죄소설이기도 하다. 로브그리예는 이 작품 이전에 이미 『고무 지우개』로 영국 추리 작가 협회상 최종 후보까지 오르기도 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범죄소설처럼 작가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각종 단서와 증거들은 본문 곳곳에 뿌려져 있으므로 독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 평자에 따라서는 보르헤스가 그의 몇몇 단편소설에서 암시했던 새로운 탐정 소설의 가능성을 로브그리예가 나름대로 실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작품의 문체는 극히 객관적이고 명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시종 독자를 숨 막히게 하는 서스펜스가 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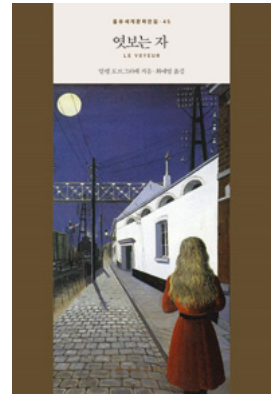
로브그리예를 빼놓고 소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뉴욕 타임스」

로브그리예는 현대 소설에서 일어난 혁명의 선구자이다. 그 혁명은 낭만주의와 자연주의의 등장보다 훨씬 급진적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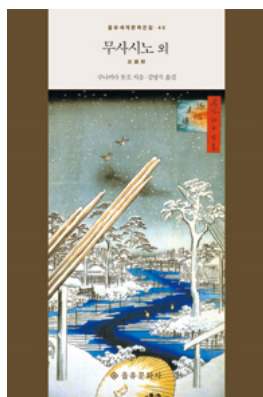
- 클로드 모리야크

2011. 7. 25. / 328쪽
13,000원 / 128×188mm



2011. 8. 10. / 376쪽
13,000원 / 128×188mm

나쓰메 소세키와 더불어 일본 근대 문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구니키다 돗포의 걸작 단편집!



구니키다 돗포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쓰메 소세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등과 더불어 일본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또한 그는 일본 문학사에서 자연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며 후대의 여러 유파에 영향을 끼친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집에는 「무사시노」 외에도 이름 없는 소민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시적 정취가 가득한 풍경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외로움을 그려 낸 「젠 노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담은 「쇠고기와 감자」, 세속적 출세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민을 예찬한 「비범한 범인」, 우주의 신비와 인간의 기이한 운명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다룬 「운명론자」, 궁핍했던 말년의 작품으로 현실주의적 수작으로 꼽히는 「공사」와 「대나무 쪽문」 등 구니키다 돗포의 걸작 단편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 근대 문학은 구니키다 돗포에 의해 처음으로
쓰기의 자유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 가라타니 고진

구니키다 돗포는 재인이었다. 자연주의의 작가들은
모두 정진하여 걸어갔지만 단 한 사람,
돗포만은 때때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20세기 미국 현대 문학이 낳은 불멸의 걸작

2011. 11. 10. / 272쪽
11,000원 / 128×188mm

헤밍웨이, 포크너와 더불어 20세기 초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대표작. ‘재즈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1920년대 미국 동부를 배경으로 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는데, 『위대한 개츠비』는 이 당시의 사회 현실과 정신의 풍경을 예리하고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어 ‘미국을 알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으로까지 꼽힌다. 1970년대에는 매년 3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천4백 곳에 달하는 대학에서 필독서로 선정됐다.

헨리 제임스 이후 최초로 진일보한 작품이다.

— T. S. 엘리엇

완벽한 일급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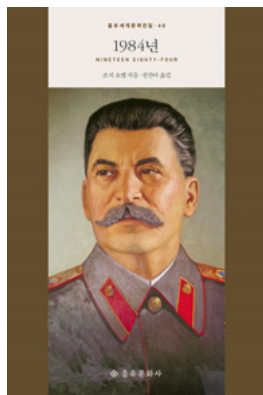
— 어니스트 헤밍웨이

대단한 소설이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질리지 않고
문학으로서의 깊이는 자양분이 넘친다.

— 무라카미 하루키



2012. 1. 20. / 440쪽
12,000원 / 128×188mm



20세기가 낳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최고 걸작

20세기의 본질을 가장 잘 담아냄으로써 유수의 기관에서 선정하는 최고 명저 목록에 빠짐없이 오르는 『1984년』은 조지 오웰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동물 농장』과 더불어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섬뜩한 상상을 보여 주는 대표작이다. 또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자미아틴의 『우리』와 함께 20세기 3대 반유토피아 문학으로 꼽히기도 한다. 작가 자신이 한 에세이에서 밝혔듯이, “1936년 이후 나의 모든 진지한 저작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민주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명 의식이 가장 뚜렷하게 발휘된 작품이 바로 그의 마지막 소설인 『1984년』이다. 이 소설 속에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 브라더의 존재는 감시 사회의 대명사처럼 쓰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다란 반향을 얻고 있다.

『1984년』은 내 작품 『멋진 신세계』보다
미래 세계를 더욱 실감 있게 표현했다.
— 올더스 헉슬리

어떤 면에서 『1984년』은
『동물 농장』의 성공에 가려진 피해자다.
— 토머스 핀천

보스니아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걸작 중단편
세르비아어 원전 번역

2012. 2. 15. / 272쪽
13,000원 / 128×188mm

196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20세기 발칸의 호메로스’라 불리며 구 유고 연방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애독되는 작가인 이보 안드리치의 대표 중단편집이다. 안드리치는 19세기가 저물어 갈 무렵인 1892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는데,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생애적인 요소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풍요로운 원천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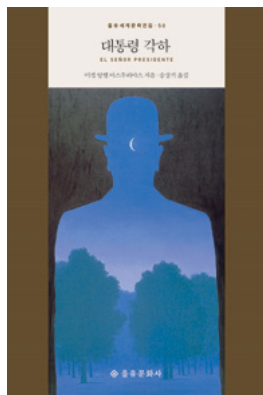
안드리치의 걸작 중단편 여섯 편을 묶은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저주받은 안뜰」이다. 작품의 배경은 각지에서 끌려온 수형자들로 가득한 이스탄불의 한 구치소로, 바깥세상과 철저히 절연되어 있는 이곳은 ‘저주받은 안뜰’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이 작품은 인생의 낙오자 등 더 이상 바닥일 수 없는 부류의 인간들로 가득한 구치소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이보 안드리치는 자국 역사의 주제와 운명을
서사시적 필력으로 그려 냈다.
— 스웨덴 한림원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지음
송상기 옮김

2012. 3. 10. / 480쪽
14,000원 / 128×188mm



50. 대통령 각하 EL SEÑOR PRESIDENTE

독재로 점철된 과테말라의 역사적 현실을
초현실주의적으로 그린 작품

1967년, 중남미에서는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차지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대표작이다. 아스투리아스가 노벨문학상을 받던 1967년은 보르헤스, 네루다, 옥타비오 파스 등이 서방에 알려지면서 열렬한 호응을 받기 시작할 무렵이다. 이들 중남미 작가들은 자국의 역사적 현실과 구전되던 민담을 초현실주의와 아방가르드적 미학과 조우시킴으로써 현실 고발을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세계 문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흐름의 물꼬를 튼 작가가 바로 아스투리아스다.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대통령 각하』를 통해 민족의 역사를 아방가르드적인 프리즘에 투사했지만 서구적 시각의 보편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지역의 색채에 자신을 투사했지만 토속주의나 지역주의에 함몰되지도 않았다. 작품에 나오는 많은 시구는 과테말라에서 구전되어 내려오거나 당시 유행하던 노래에서 따왔으나, 이를 한층 드라마틱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변형해 놓았다. 또한 많은 토착 언어가 작품에 등장하지만, 이를 향토주의적 묘사의 차원을 넘어서 초월적이고 시적인 견지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 율킨이의 해설 중에서

51.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 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 GENTLEMAN

18세기 영국의 전위 소설
현대 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작품

이 작품은 명목상으로는 주인공 트리스트럼 샌디의 자서전적 이야기로, 멀리 그가 잉태되던 순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시작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트리스트럼의 생애에 대해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겨우 다섯 살 때까지의 이야기일 뿐이고, 나머지는 트리스트럼의 주변 인물들인 아버지 월터 샌디, 어머니 엘리자베스 등과 관련한 갖가지 일화와 인생에 대한 트리스트럼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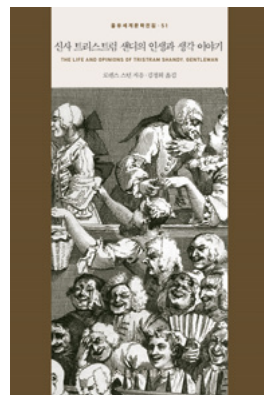
18세기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로렌스 스텐의 대표작인 이 소설은 출간 당시 유럽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고, 세상에 나온 지 2백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를 매료하고 있다. 또한 파격적 실험성과 유희 정신, 그리고 이성 중심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의 시대정신에 대한 거리 두기 등으로 20세기 후반 탈근대적 문학의 선구로 평가받고 있다.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한 심오한 통찰, 스텐 특유의 유머, 친밀한 수다, 인간에 대한 사랑, 페이소스, 여기에 라블레와 세르반테스적인 희극성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의 독자들까지도 깊이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로렌스 스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자유로운 작가다.

— 프리드리히 니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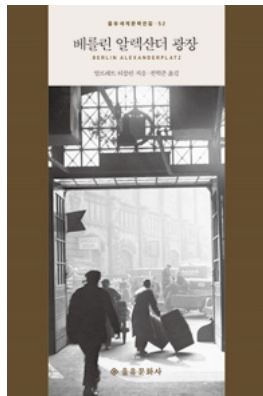
로렌스 스텐 지음
김정희 옮김

2012. 4. 25. / 906쪽
18,000원 / 128×188mm



2012. 5. 20. / 756쪽
17,000원 / 128×188mm

대도시에 짓눌린 인간의 수난을
서사적으로 재현한 도시 소설의 걸작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은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토마스 만의 『마의 산』 등과 함께 20세기 독일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처럼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내용은 물론 기법 측면에서도 기존의 소설들과는 다른 실험적 양식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되블린의 명성을 알린 이 작품은 1차 자료의 직접적인 인용, 영화적 구성, 비선형적 서사 구조, 내적 독백의 기법, 몽타주 기법 등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주인공 프란츠 비버코프의 삶을 단속적으로 제시했다. 이 작품을 통해 되블린은 거대하고 위험하며 유혹적인 바벨탑 같은 공간으로 등장한 대도시에서 겪는 다양하고 혼란스런 인간의 초라한 자화상을 포착했으며, 20세기 대도시의 변화된 시공간에 조응하는 새로운 서사 문학을 창조했다. 전후 독일의 대표 작가 귄터 그라스는 ‘알프레트 되블린 문학상’을 제정하여 그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 되블린은 나의 스승이다.
- 작가로서 되블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 귄터 그라스

- 누구보다도 되블린의 서사 문학에서 많이 배웠다.
- 그의 서사 작품과 서사 이론은
- 내 연극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베르톨트 브레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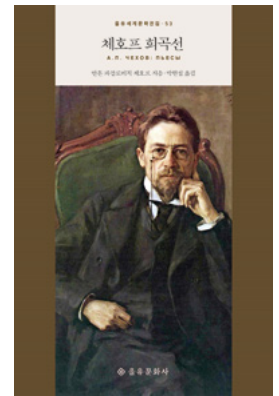
체호프라는 세상의 정수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이자 단편 소설 작가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거장들이 주도한 장편 소설의 대세 속에서 주변적 지위에 머물러 있던 단편 소설은 체호프를 통해 비로소 러시아 문학의 한 주류로 자리 잡았다. 또한 러시아의 연극, 나아가 세계의 연극은 체호프를 통해서 근대 사실주의 연극의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현대 연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

지난 세기의 작가들 가운데서 체호프만큼 광범위한 독자층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은 소설가도, 셰익스피어 이래로 체호프만큼 자주 공연되는 극작가도 찾아보기 힘들다. 평범한 작가에게는 둘 중 하나도 불가능한 업적을 체호프는 혼자서 이루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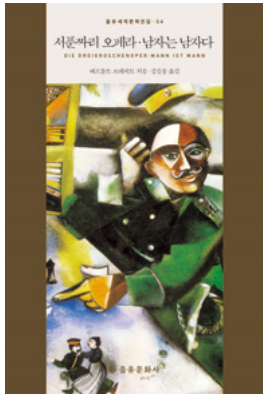
이 책에 수록된 「갈매기」는 체호프가 극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는 작품으로, 초연 당시에는 혹평을 들었지만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재공연되면서 대성공을 거둔다. 이후 이 책에 함께 실린 「바냐 삼촌」, 「세 자매」, 「벚나무 동산」 등의 걸작을 발표하며 성공을 거뒀고, 영국 비평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2012. 6. 25. / 464쪽
14,000원 / 128×188mm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김길웅 옮김

2012. 7. 20. / 296쪽
13,000원 / 128×188mm



54. 서푼짜리 오페라·남자는 남자다
DIE DREIGROSCHENOPER·MANN IST MANN

관객의 색안경을 벗기고 사회 부조리를
직접 보게 만든 걸작

이 작품집에는 연극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을 실현하려 했던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정수가 담겨
있다. 바로 관객의 시선을 객관적으로 변모시키는,
이른바 ‘생소화 효과(낯설게 하기)’를 도입한 희곡들이다.
현대 연극의 포문을 연 브레히트의 중후기 작품들은
이 두 작품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작품성 역시 브레히트의 최고작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서푼짜리 오페라』는 구걸 조직 우두머리 피침의
딸 폴리와 악명 높은 강도 매키스의 결혼을 매개로,
여기에 얹힌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와
관계의 부조리를 보여 준다. 서민 오페라로 불리기도 한
이 작품은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남자는 남자다』는 제품 포장공 갈리가이가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부재중인 제라이가 집을 대신해 자동
화기 분대의 일원이 되고, 철저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가 너무 쉽게 자신을 부정하며 ‘새로운
인물’과 ‘소속된 집단’에 적응하는 과정들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모순과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든다.

55·56. 죄와 벌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대표하는 걸작

관과 같은 좁은 방에서 사회에 대한 불온한 이념을 키워
나가던 대학생 라스콜니코프. 끊임없이 사색에 잠긴 채
자신만의 질서를 꾸미고 오던 그는 마침내 자신이 비범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해 오던 끔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는데…….

『죄와 벌』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전까지 쓰고
발표한 모든 작품을 능가하는 높이와 깊이에 도달하고
있다. 묘사의 대상으로부터 묘사 주체로 올라서는 인물들,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의도적인 다의성, 상호 대립적인
세계관을 논쟁적으로 다루는 방식 등에서 이전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취를 보인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작가정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역량을 완벽히 펼치기 시작한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서적, 특히 문학 작품은
내 자신의 것을 포함해서 모두 불살라 버려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만은
예외다. 그의 작품은 모두 남겨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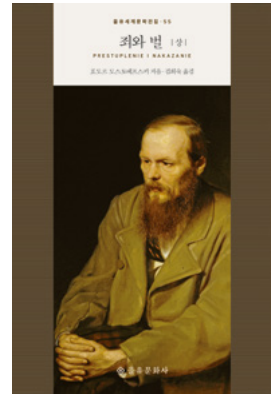
— 톨스토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고통의 한계까지 시달렸을 때,
삶 전체를 화끈거리고 욕신거리는 하나의 상처라고
느낄 때, 절망을 호흡하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어야 한다.

— 헤르만 헤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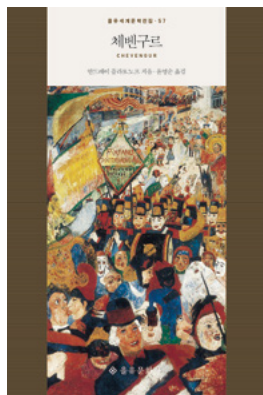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김희숙 옮김

2012. 9. 20. / 484쪽(상), 536쪽(하)
12,000원 / 128×188mm



2012. 10. 15. / 692쪽
17,000원 / 128×188mm

인간이 없는 공산주의의 도래를 통찰한
소비에트 유토피아 문학의 정수



조이스나 프루스트, 포크너에 비견되는 20세기 러시아 산문의 대가이자 ‘소비에트의 조지 오웰’로 불리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대표작으로, 그가 유일하게 완성한 장편 소설이기도 하다.

『체벤구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접해 보지도 못한 프롤레타리아들이 나름대로 혁명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건설해 가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플라토노프는 태생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음에도, 스탈린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작품 세계로 인해 반소비에트주의자로 비난받으면서 소련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된 작가 중 한 명이었다. 특히 1928년에 탈고한 이 작품은 무려 60년이 지난 1988년이 되어서야 자국의 독자들을 만났으며, 위대한 장편 소설을 자신의 작품군에 추가한 플라토노프는 20세기 러시아 문학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체벤구르』는 나에게 개인적인 성격적 역할을 해 왔다. 어려울 때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 책을 읽는다.

— 박노자

체호프가 이룬 것 이상으로
러시아 문장을 발전시킨 거의 유일한 작가.
매력적이지 않은 문장을 발견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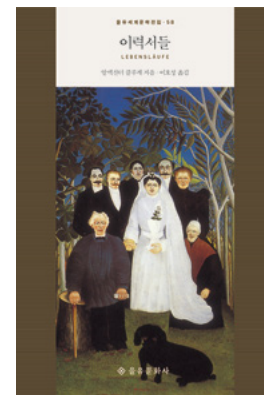
— 「더 타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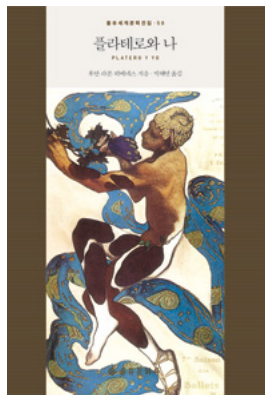
아이러니한 허구 속에서
삶의 꺾진성을 보여 주는 다채로운 이력들

2012. 12. 20. / 396쪽
13,000원 / 128×188mm

전후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독일 문학이 지닌 이색적인 감수성과 심미안을 체현하고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이 책은 ‘뉴 저먼 시네마(New German Cinema)’의 대부이자 ‘오버하우젠 선언’을 주도한 영화감독 알렉산더 클루게의 대표작으로 그의 문학적 세계를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단편집이다.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세계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 전후의 수많은 개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전쟁, 살인, 망명, 강제수용소의 실험, 실정법과 처벌 등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지나친 엄숙주의로 흐르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러 개성적인 캐릭터들의 이력을 쫓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악과 정의의 문제, 현대 사회에서의 감정과 사랑의 문제, 추모와 희망으로 기능하는 이야기 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알렉산더 클루게는 이러한 묵직한 주제들을 여러 다양한 실험적인 서사 기법을 통해 보여 준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반대되는 악은 누가 규정하는가, 그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 등의 철학적 주제와 질문을 다룬 이 소설에서는 사실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하고 부조리한 설정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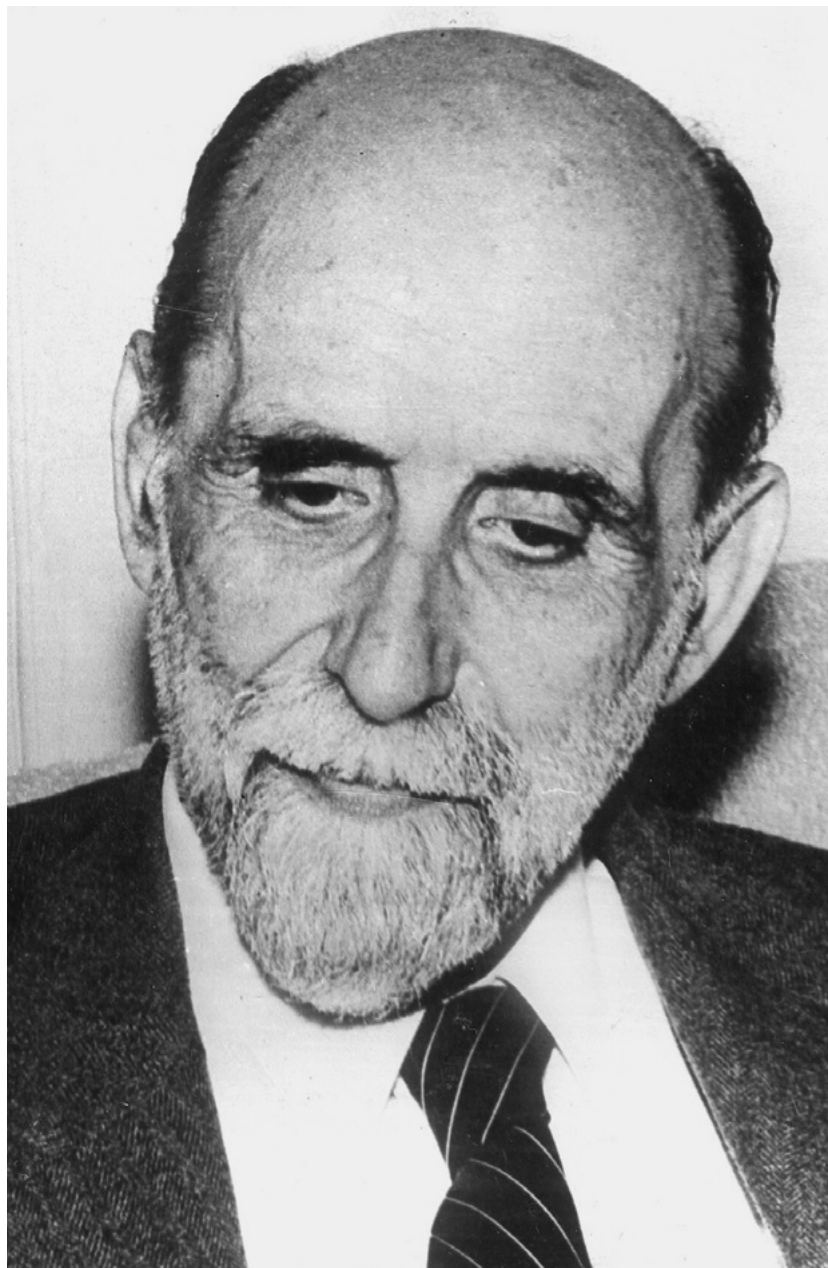


59. 플라테로와 나 PLATERO Y YO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산문시
영원을 꿈꾸는 불멸의 순수시

『플라테로와 나』는 스페인과 중남미의 여러 나라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스페인의 생텍쥐페리’라는 찬사를 받은 195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후안 라몬 히메네스의 산문시집이다. 이 책에는 『플라테로와 나』 외에도 아름다운 ‘히메네스 시선’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플라테로와 나』는 20세기 스페인 문학의 산문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작가의 고향인 모게르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반 스페인의 역사·사회·문화적 풍토를 잘 재현했다. 그는 19세기 말, 몰락한 스페인의 고질적 문제로서 흔히 ‘스페인 문제’라고 불리던 주제를 훌륭한 산문시로 승화시켰다. 이 작품을 비롯해 『세 세계의 스페인 사람들』에 이르는 후안 라몬 히메네스의 산문이 20세기 스페인 산문 문학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멜로디가 있는 긴 문장, 풍부한 삽입과 은유, 문장 리듬의 자유로운 변조, 표현력을 극대화한 인상주의적 서술, 시적 이미지 사용 등이 그것이다. 밀도 높은 표현력이 백미로 꼽히는 『플라테로와 나』는 위의 특징을 모두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2013. 2. 25. / 414쪽
12,000원 / 128×188mm



제인 오스틴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접근성이 뛰어난 이야기, 기승전결의 균형 잡힌 전개 방식, 선명한 매력을 가진 주인공을 바탕으로 독자를 인간 세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통찰로 이끈다.

영국의 작은 마을 하트퍼드셔에 거주하는 베넷 가족은 하나같이 개성이 넘친다. 아버지는 냉소적인 유머와 내성적인 성격이 뒤섞여 있고, 어머니는 오직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만이 삶의 목적인 단순한 인물이다. 부모님에 비해 첫째 딸 제인은 섬세하면서도 마음이 곱고,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영리하고 재치가 넘친다. 반면 셋째 딸 메리는 잘난 척이 심하고, 남은 두 동생인 키티와 리디아는 허영심이 많고 무식한 데다 게으르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이 한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에는 시골 특유의 비슷비슷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이웃에 부유하고 매력적인 청년 빙리가 이사를 오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제인 오스틴의 섬세한 묘사와 함께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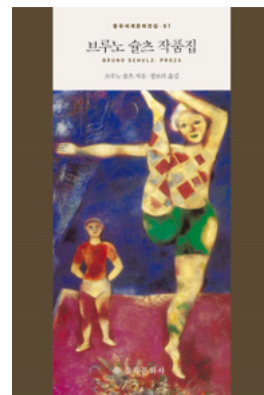
- 제인 오스틴은 풍자의 회초리를 들어
사정없이 인물들을 매질하는데, 이러한 풍자에는
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녀의 완벽하고
예리한 감각이 실려 있다.
- 버지니아 울프

『백년 동안의 고독』을 뛰어넘는,
어디로 튼튼지 모를 상상력의 향연

2013. 3. 25. / 444쪽
13,000원 / 128×188mm

상상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독자를 몽환의 세계로 이끄는 『브루노 슈츠 작품집』은 그의 단 두 권의 중·단편집을 모은 것으로, 비트키에비치, 고프로비치와 함께 폴란드에 실험적인 전위주의 문학을 확립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브루노 슈츠는 폴란드의 카프카로 불리며, 폴란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지만 재능을 더 꽃피우지 못하고 나치에게 총살당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1934년에 출간한 단편집과 이후 여러 잡지에 소개된 중·단편을 모아 출간한 작품집이 전부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독특하면서도 많은 비유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가로 활동하기도 한 저자가 소설에서도 그림 같은 장면을 묘사하려는 시도를 자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러 장면들이나 도시와 자연의 풍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슈츠 특유의 초현실적인 문체로 묘사하는데, 이것이 그의 작품에 독특한 색을 만들어 낸다.



슈츠는 상상력으로 모든 것을 변모시키고 확장시키고
왜곡하여 꿈으로 바꾸어 버린다.

- 체스와프 미워시 (198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2013. 4. 15. / 543쪽
15,000원 / 128×188mm



출간 이후 중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선집

『송사삼백수』는 중국 송대(宋代)의 사(詞)라는 시가(詩歌)의 모음집으로 만청(晩淸) 사대사학자(四大詞學者)로 꼽히는 주조모가 송대의 작품을 대상으로 엄준한 선사(選詞) 과정을 거쳐 사 작가 88명의 작품 3백여 수를 엮은 것을 번역한 책이다. 사는 송대에 접어들어 폭넓은 계층으로부터 애호를 받으며 크게 흥성하였고, 기존의 전통적 중국 시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중국 시가 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송대에 사를 지었던 주된 작가층은 문인이었지만, 이외에도 황제, 승려, 규방 여인, 기녀 등 그 폭이 매우 넓었다.

사가 지어진 상황 또한 여러 가지여서, 연회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서재에서 고심과 퇴고를 거듭해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평소에는 근엄한 관료나 진중한 학자로 지내던 문인이라 할지라도 유약한 여인의 속내를 애절한 어조로 호소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사 작품을 보면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이성과 감성을 혼드는 파스칼의 ‘생각의 단편들’
프랑스 사상사에 큰 영향을 미친 고전

2013. 5. 30. / 632쪽
15,000원 / 128×188mm

『광세』 안에는 계산을 발명한 과학자, 진리를 위해 싸우는 과격한 운동가, 종교에 대한 독서와 고찰을 멈추지 않는 신앙인, 승합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의 실천가와 같은 파스칼의 다양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의 언어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깊고, 신비롭다. 블레즈 파스칼은 종교를 해치는 큰 적이 무신론자와 자유사상가라고 보고, 그들에게 자신이 믿는 유일한 진리를 설득하려고 기독교 변증론을 세웠다. 그는 ‘진리’라는 말에 무감각해진 시대를 위해 이 작품을 썼지만, 갑작스럽게 병이 위급해져 완성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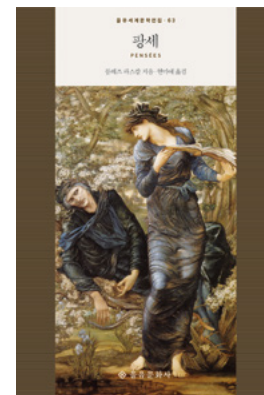
『광세』는 파스칼이 죽은 뒤인 1670년, 그의 큰누이가 중심이 되어 그의 글 묶음을 모아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 씨의 광세(생각)』라는 제목으로 펴낸 것이 ‘광세’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나는 파스칼에게 어떤 애정 같은 것을 느끼는데,
그는 나에게 무한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 니체

나의 삶을, 나의 영원을 결정한 작가 파스칼.

— 프랑수아 모리악



2013. 6. 25. / 718쪽
18,000원 / 128×188mm



『최초로 개인의 의식을 그려낸 역사가』로 불리는 살럿 브론테의 대표작이다. 순응하고 인내하며 봉사하는 여성이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빅토리아 시대에, 현실적인 조건이나 개인적 자질에서 이와 동떨어진 여성인 제인의 성장을 통해 당대 여성의 삶 전반, 즉 여성의 교육, 고용, 사랑, 결혼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가난한 고아인 제인은 끊임없이 일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현실과의 맞부딪침 가운데 당대의 이상적 여성상에 반대되는 가치들을 구현하고 있다.

이처럼 제인은 독립적이고 열정적이며 억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인은 지배적인 남성으로부터, 또 기존 현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제인에게서는 모순된 두 충동이 똑같이 강렬하게 존재하며, 이것이 그녀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인 에어』에서 살럿 브론테의 천재성과 격정,
분개에 빠져든다.
- 버지니아 울프

- 『제인 에어』에서 독자를 휘어잡는
살럿 브론테를 능가하는 작가는 거의 없다.
- 해럴드 블룸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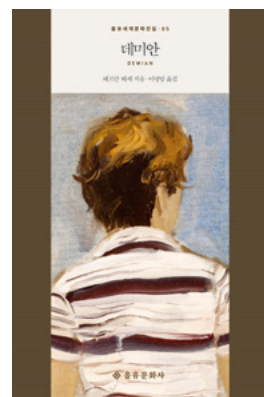
2013. 8. 25. / 228쪽
10,000원 / 128×188mm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체험이 녹아 있는 자전적 소설로 그의 대표작이다. 그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밑바탕이 된 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세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당시 문학계를 뒤흔든 문제작이다. 기존의 성장 소설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이 책은 1919년에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도 ‘청춘의 바이블’이라 불리며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 대전이라는 대규모 전쟁의 참상을 겪고 기존 세계의 가치에 회의와 불신을 품게 된 유럽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혼란과 고통 그리고 고뇌와 동경을 담은 이 작품에 열광했다. 고통스럽게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힘든 여정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표현한 이 책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 준다.

- 『데미안』이 불러일으킨, 온몸을 전율케 하는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 토마스 만

- 현대적인 의미에서 위대한 작가다.
복잡하고 섬세하며 암시적이다.
- 「뉴욕 타임스」



2013. 10. 30. / 280쪽
12,000원 / 128×188mm



『반지의 제왕』 등 수많은 대작의 기원이 된 게르만 신화의 출전. 신과 거인, 엘프, 난쟁이, 전사 등이 빚어내는 음울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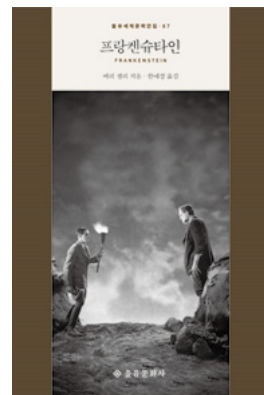
게르만 신화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게르만 신화집이다. 대중이 읽기 쉽게 신화 이야기를 다듬어 펴낸 다른 도서와 달리 게르만 신화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노리 스톨루손의 『산문 에다』를 그대로 번역했다.

『에다 이야기』는 스노리가 음유 시인들에게 시를 짓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전체 3부로 구성하여 집필한 『산문 에다』 중에서 게르만 신화와 관련된 부분인 1부와 2부만을 소개했다. 1부에서는 창세기에서 종말까지 게르만 신화의 전모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2부에서는 난쟁이의 마법 반지에 얽힌 탐욕과 저주 이야기, 영웅 시구르드(지크프리트)의 비극적인 전설 등 1부에서 소개하지 못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천지 창조부터 인류의 탄생, 신들의 사랑과 음모, 세계 종말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스케일이 짜임새 있게 구성된 이야기는 게르만 신화의 음울하고 매혹적인 면모를 충실하고 다채롭게 보여 준다.

— 매일신문

2013. 12. 30. / 299쪽
12,000원 / 128×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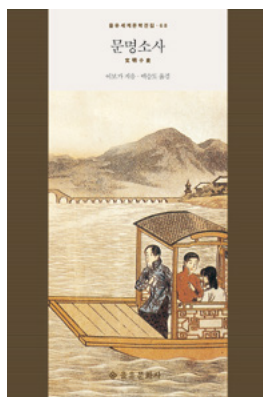


신에게 도전한 프로메테우스의 현대판이자 인조 인간을 다룬 SF의 효시가 된 고전

열아홉 살의 메리 셸리가 놀라운 상상력으로 탄생시킨 과학 소설로, 다른 인간이나 남성에 대한 ‘절규’를 담은 작품이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 논쟁의 불을 지핀 선구적인 작품이다. 정본으로 인정받는 1818년 판을 번역했으며, 페미니즘 코드에 바탕을 둔 신선한 작품 해석 「타자로서의 괴물, 타자로서의 여성」을 실었다. 낭만주의 공포 소설 혹은 괴기 소설의 전통에 속하는 메리 셸리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후대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워더링 하이츠』, 『모비 딕』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작품을 각색한 공포 영화를 본 뒤 추악하고 악한 괴물을 기대했던 독자들은 작품을 읽고 나서 놀랄 것이다. 우리가 미워할 수 없게 괴물은 설득력 있는 웅변을 구사하고, 『실낙원』의 아담과는 달리 창조자에게 불만스레 반항하는 매우 복합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괴물을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 없도록 괴물답지 않은 속성, 즉 전통적인 고딕 로맨스와 달리 괴물이 원래부터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가질 뿐더러 추악한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설득력 있고 조리 있는 언어를 구사한다.

2014. 5. 30. / 844쪽
18,000원 / 128×188mm



루쉰이 4대 건책 소설 작가로 추앙한 이보가의 장편소설 격변기 중국 관료 사회의 부패와 무능, 설익은 지식인들의 이중성, 기녀와 같은 기층민들의 실상을 꼬집은 수작

이 작품은 청 정부가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잇달아 경자사변(庚子事變)을 겪으면서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고 새 정치, 새 학문을 내세워 근대화를 추진하던 청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청말 중국 소설계에서 정치·사회적 비판 의식이 가장 두드러진 작가 중 하나인 이보가가 다양한 일화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와 미숙하고 충동적인 지식인, 구습에 얽매인 우둔한 백성 등 다양한 군상이 새로운 시대와 문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문명소사』 속 관료 사회는 시험을 보고 안 되면 돈으로 관직을 사는 것이 당연한 곳이고, 꼬였던 일도 인맥과 뇌물이 동원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의 길이 열리는 곳이다. 혁명 운운하는 인물들 역시 유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처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 자신의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은 새로운 문명을 향한 점진적인 근대화의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2014. 7. 10. / 474쪽
14,000원 / 128×188mm



우리 모두가 헤엄치고 있는
신의 세계에서 각각의 인간은 ‘특별한 경우’다

올리츠키야의 단편 소설 모음집으로, 작가는 이 작품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현대 러시아에서 ‘우리 짜르의 사람들’, 즉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 준다. 시골 벽지에 사는 프랑스 여인부터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 두 다리가 없는 술주정뱅이 상이군인, 성가대의 노래하는 여인, 장님 노인,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젊은 청년, 의사, 수학자, 간호사 자매, 성공을 거둔 여성 작가와 그의 딸들 등 각 단편 작품마다 마주치는 다양한 인물, 성격, 관계 들은 하나의 전체적인 군상을 이루고, 그들이 모여 만드는 전형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모자이크는 그 어느 작품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다.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참담하고 힘겨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삶을 영위해 나간 러시아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상이군인과 그 가족의 삶의 모습,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의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일반 소련 시민들이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과 그의 죽음에 대해 취했던 태도,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궁핍한 러시아의 현실과 꿈을 상실한 러시아 청년들의 이야기 등을 가감 없이 진실하게 접하게 된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지음
손영주 옮김

2014. 10. 20. / 828쪽
18,000원 / 128×188mm



70. 사랑에 빠진 여인들 WOMEN IN LOVE

제인 오스틴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문학이 시작되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유명한 작가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제인 오스틴의 문학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문학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세기말적 분위기와 국가와 민족 간의 새로운 개념 정립에 관한 논의, 아울러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대두되었던 연애관과 결혼관의 변화와 이제 막 태동되기 시작한 페미니즘적인 시각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은 그저 단순한 연애담을 다룬 로맨스 소설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정치, 역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화두들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의 생각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한다.

천재적 작가들의 경우가 대개 그러하듯 로렌스의 성취를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 서구 문명의 종말을 직감하면서도 새로운 삶의 비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영혼의 치열하고 처절한 고투를 담고 있으며, 현대 서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가차 없는 해부와 극복을 모색한 영문학사상 가장 중요한 걸작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로렌스에겐 일상적 경험의 숨어 있는
본질을 끌어내는 천재성이 있다.

— 아나이스 닐

71. 시카고 SHĪKĀGŪ

미국의 거대 도시 시카고에서 살아가는 이집트인들
9·11 이후 심화된 아랍과 서구 문화의 충돌,
이집트 독재 정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야쿠비안 빌딩』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알라 알아스와니가 자신의 유학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 미국 내 대학에 유학하는 이집트 학생들과 이집트계 교수들의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보여 준다. 운동권 출신인 까닭에 이집트에서 의사가 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유학 온 나지, 콥트인으로 차별을 받아 조국을 떠난 카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인 사프와트와 그의 끄나풀인 다나나, 조국 이집트를 경멸하고 미국을 예찬하는 라오파트 교수, 애인을 이집트에 두고 이민 와 미국인 여성과 결혼해 사는 살라흐 교수, 성공을 위해 학업에 충실한 타리크, 보수적 집안 출신의 샤이마…….

소설은 이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전개하면서 시카고 내 미국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미국 내 문제에 대한 아랍인의 시각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이집트 지식인들의 삶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이집트 사회의 부패와 독재 체제를 고발한다. 미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집트 문학계의 최신 화제작으로, 세계 문학계의 흐름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알라 알아스와니 지음
김능우 옮김

2014. 11. 20. / 476쪽
15,000원 / 128×188mm



2015. 1. 15. / 268쪽
12,000원 / 128×188mm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이자 모더니즘 문학의 개척자
카프카의 대표 중단편 모음



카프카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로 현대 소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를 제외하고는 20세기 소설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카뮈, 사르트르, 베케트, 이오네스코, 보르헤스, 마르케스 등 세계적 작가들이 카프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문학을 넘어 연극과 철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이 두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합리적 의식 세계와 비합리적인 무의식 세계의 대립이다. 합리적 세계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게 만들 만큼 광대한 비합리성의 세계는 무의식의 영역에 발을 들여 놓은 20세기의 정신사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며, 카프카의 작품은 이를 문학적으로 가장 잘 구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작품들은 비논리적이고 답답한 꿈의
바보짓을 정확히 흉내 냄으로써,
생의 기괴한 그림자놀이를 비웃고 있다.

— 토마스 만

나는 카프카의 글에서 가장 고유한 방식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거나 놀라지 않았던 글은
단 한 줄도 읽어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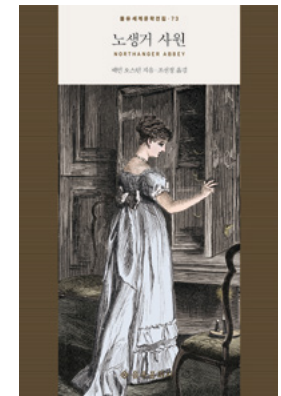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첫 작품이면서 동시에 유고작이라 할 수 있는
제인 오스틴의 ‘별종’ 같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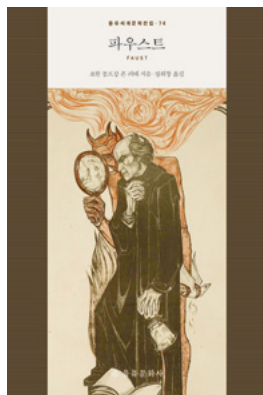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 한 명인 제인 오스틴의 사실상 첫 장편소설이다. 1799년 이미 탈고한 후 ‘수전(Susan)’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팔았으나, 출간을 기다리는 사이 다른 소설가의 다른 작품이 같은 제목으로 나오면서 출간되지 못했다. 결국 작가가 1816년에 다시 원고를 사들인 후, 죽고 나서 가족들에 의해 유고작으로 출간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장편소설 중에서 그녀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만큼 주제나 인물 형상화, 서술 기법 측면에서 제인 오스틴의 초기작 느낌이 강하다.

이 책은 또한 ‘시대를 타는’ 소설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타지 않는’ 웃음으로 가득한 작품이다. 작가인 오스틴은 당시 여성의 교육 문제와 결혼관, 상류 계층의 허위의식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시종일관 시대를 넘나드는 녹슬지 않는 위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제인 오스틴은 이 작품에서 당시 문학시장의 주류였던 고딕소설을 풍자하고 있다. 이는 고딕소설 마니아인 주인공 캐서린이 벌이는 엉뚱한 망상과 해프닝으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디는 엄밀히 말해서 고딕소설 자체보다는 고딕소설이 소비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인 오스틴은 특정한 소설가나 작품을 풍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성의 독서를 둘러싼 물질적 환경과 여성 교육 전반에 문제를 제기한다.

2015. 3. 1. / 324쪽
12,000원 / 128×188mm



2015. 3. 30. / 832쪽
18,000원 / 128×188mm



괴테 필생의 역작이자
독일문학의 금자탑

이 책의 주인공 파우스트는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한계를 느끼고 자살을 결심한다. 그때 메피스토피레스가 나타나 쾌락과 젊음을 약속하는 대신 악마에게 영혼을 맡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한다. 이 계약을 받아들인 파우스트는 첫사랑인 그레트헨을 만나거나 헬레네와 결혼하면서 마음껏 자신만의 삶을 즐긴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악마와의 계약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한다.

중세 봉건 사회 말기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 근대 유럽 정신의 방향과 모험을 추적하고 있는 『파우스트』는 괴테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 위대한 걸작의 반열에 올랐다.

불멸의 고전이 된 『파우스트』에는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2003년 괴팅겐대학의 게르만어문학자인 알브레히트 쇠네 교수는 괴테의 원래 의도에 더 가깝게 접근하려는 시도로 기존 판본에서 제외되었던, 일명 ‘발푸르기스의 보따리’라 불린 부분을 과감히 복원하였다. 본 도서는 이렇게 추가된 원고와 정본에 실린 장면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발푸르기스의 밤’을 부록으로 실었다.

알브레히트 쇠네의 『파우스트』 판본은 옛 텍스트가 새로운 텍스트일 수 있고, 우리의 텍스트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슈피겔」



2015. 5. 15. / 468쪽
14,000원 / 128×188mm



파우스트와 그의 동료들이 서구의 문명과 역사를
체스 말처럼 다루며 토론하는 산업혁명기의 천일야화

상상력을 자극하는 풍부한 이야기와 여러 철학적 담론들이 펼쳐지는 이 작품은 19세기판 천일야화라 할 수 있다. 천 일에 못 미치는 아홉 번의 밤을 보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철학적이면서도 현학적인 대화와 서구 문명의 병폐를 꿰뚫는 작가의 시선은 천일야화에 버금가는 깊이로 담고 있다. 소설 속에 또 다른 소설이 소개되는 액자식 구성을 지닌 이 작품은 작가가 이야기 속 인물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주제들을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되는 ‘기사 잠바티스타 피라네시의 작품들’ 이야기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했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건축의 설계도면이 실린 책에 붙잡혀 실제로 설계도면이 건축되기 전까지 영생에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 계속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흥시인’에서는 악마 같은 능력을 지닌 박사에게 쉽게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달라고 부탁한 주인공의 파멸을 그리고 있다. ‘이름 없는 도시’라는 이야기는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인류의 미래를 경고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이다. 이외에도 기발한 상상력과 문학성을 지닌 단편들이 가득하다.

20세기의 도스토옙스키로 불리는 살라모프의 대표작
삶을 재현하는 거대한 모자이크이자
한 줌의 다이아몬드 같은 이야기들

『콜리마 이야기』는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20세기의 도스토옙스키다”라는 찬사를 받은 바를람 살라모프의 대표작 중 하나다. 작가는 이 작품을 17년 동안 콜리마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중노동을 하고 석방된 뒤에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1954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비교적 짧은 단편들로 이뤄져 있으며 흥미로운 동시에 주제가 신랄하고, 밝고 생생한 언어로 쓰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콜리마라는 수용소가 만든 지옥을 기록한 단순한 회상이나 회고록을 넘어서서 새로운 산문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바를람 살라모프는 서두르지 않고 안정감과 폭발적인 내용의 콘트라스트를 통해 교도소와 통과수용소의 세계를 생생히 묘사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나 역사서 같은 느낌마저 준다. 살라모프는 독자에게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말하지 않는다. 단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뿐이다.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도출해 내려는 톨스토이나 솔제니친과 달리 살라모프는 단순히 이야기만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야기는 안톤 체호프와 이삭 바벨과 비견될 수 있다.

『콜리마 이야기』는 존재의 본질을 반영하는 책이다.

— 솔 벨로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천재적인 작가다!

— 타르코프스키

2015. 6. 25. / 360쪽
12,000원 / 128×188mm



2015. 8. 25. / 272쪽
12,000원 / 128×188mm

인간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신의 응징과 고난을 통하여 지혜에 도달한다



아이스퀼로스는 저주받은 가문의 역사를 작품의 줄거리로 삼아 그의 근본 사상인 “인간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신의 응징과 고난을 통하여 지혜에 도달한다”를 표현했다. 인간의 죄과에 대한 신의 응징은 반드시 당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 대에 가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 사상이 가장 원숙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아트레우스 가문과 특히 오레스테스 및 엘렉트라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 등의 세 작품이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이스퀼로스는 아트레우스 가문의 혈족 살해의 저주와 복수 이야기를 비극의 형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신과 운명,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 깊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아이스퀼로스는 비극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비극 작가 중에서 가장 진실하게 비극적이다. 그 누구도 인생의 불협화음으로부터 그처럼 울려 퍼지는 음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 이디스 해밀턴

보는 형식이 아니라 듣는 형식의 연극
드라마가 아닌 오페라로 불리는 중국 전통극의 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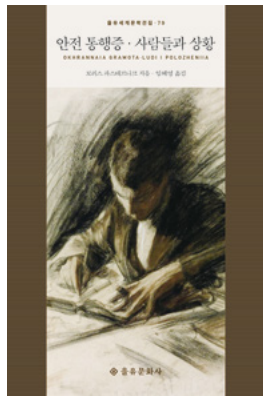
『원잡극선』은 중국 전통극 가운데 하나인 원나라 시대의 잡극이 수록된 작품집이다. 이 책에는 원국 4대가로 꼽히는 관한경, 백박, 마치원을 비롯해 이호고, 석군보, 맹한경, 기군상, 정정옥 등 원잡극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잡극은 원나라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로 중국 고전문학사 후반기의 중요한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원잡극을 포함한 중국 전통극은 서구극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과 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찍이 20세기 독일의 연극학자 베르톨트 브레히트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가 주창한 유명한 서사극 이론에서 추구하는 연극적 실천 모델이 되기도 했다.

송나라 이후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총체적인 재편의 시기를 산 사회 기층 민중의 생활과 그들의 삶,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원잡극을 통해 그 시기 범상한 민중의 삶을 소상히 들여다볼 수 있다.

2015. 11. 25. / 836쪽
18,000원 / 128×188mm





79. 안전 통행증·사람들과 상황
OKHRANNAIA GRAMOTA ·
LUDI I POLOZHENIIA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닥터 지바고』의 저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자전적 에세이

이 책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두 편의 자전적 에세이를 엮은 것이다. 30대 후반에 쓰기 시작해 3년간 집필한 『안전 통행증』과 60대 중후반에 그 속편 격으로 쓴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30여 년간의 작가의 변화와 성숙된 시각을 느낄 수 있다.

『안전 통행증』은 파스테르나크가 예술과 문화 등 일련의 문제에 관한 사상을 피력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으며, 『닥터 지바고』는 소설 형태를 갖춘 “또 하나의 『안전 통행증』의 세계”라고 말할 만큼 무게감 있고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집에는 그가 어떻게 문학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지를 비롯해 그와 릴케, 마야콥스키, 톨스토이와의 인연도 담겨 있다. 또한 파스테르나크 작품 세계의 배경을 알 수 있음은 물론, 격변기의 러시아·소련의 역사와 문화도 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사람들과 상황』은 작가가 직접 밝히고 있듯이 첫 자전적 작품인 『안전 통행증』을 보완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만 첨가된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이후 작가의 더 성숙된 시각이 제시될 뿐 아니라 첫 번째 자전적 에세이와 동일한 몇몇 묘사 대상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전작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문장이 눈에 띈다. 3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작가가 ‘쉽고 단순한 문체’라는 고수의 경지에 오른 까닭이다.

80. 쾌락
Il Piacere

공허한 기존의 가치와 파멸로 치달는
현실 사이의 불화를 그린 ‘데카당스의 백과사전’

단눈치오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 작품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 “복잡한 사랑의 열정과 관능적인 모험의 끝은 어디인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 주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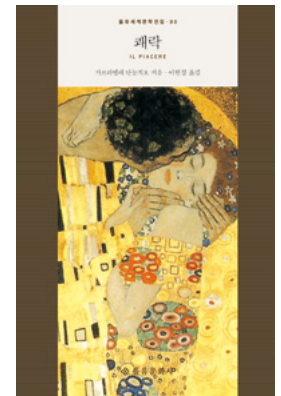
1889년 출간된 『쾌락』에는 단눈치오가 경험한 로마 사교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향락적이고 세기말적인 분위기의 로마를 계속 등장시키며 귀족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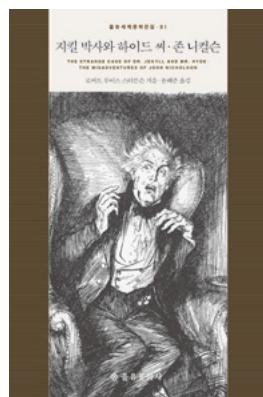
『쾌락』은 서사 구조나 표현 방식에서는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미세한 심리 분석과 비밀스러운 감각들, 지식인의 복잡한 삶을 심도 있게 파헤치면서 자연주의의 경계를 벗어나, 오히려 데카당스하고 유희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특히 안드레아를 둘러싼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 작품들을 묘사할 때 유희주의는 절정에 이른다.

단눈치오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인용하고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소설의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 19세기 말부터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와 은유로 안드레아의 심리를 한층 깊이 있게 표현하여 비난받아 마땅할 부도덕한 행위들을 오히려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단눈치오의 이질적이고 관능적이고 야수적이고 데카당스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

— 베네데토 크로체





81.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존 니컬슨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THE MISADVENTURES
OF JOHN NICHOLSON

스코틀랜드의 국민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대표작

이 책은 작가 스티븐슨이 독자들을 위해 쓴 이른바 '크리스마스 책' 두 편을 담고 있다. 인간의 이중성, 선과 악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관한 괴상한 사건」은 다소 어둡고 기괴한 느낌을 준다. 반면 「존 니컬슨의 불행한 모험들」은 제목에 '불행하다'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플롯이 다소 과장되어 있고 블랙코미디를 연상시킨다.

지킬 박사는 천재적인 학자인 데 반해 존 니컬슨은 다소 모자라고 멍청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존 니컬슨은 본의 아니게 살인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은행 잔고를 들고 튜 사기꾼으로 몰리기도 하며 갖은 고생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지킬박사는 구원 받지 못하고 존 니컬슨은 구원받는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책에는 같은 '크리스마스 책'으로 기획되었지만 느낌이 정반대인 두 작품을 한데 합쳐서 보는 색다른 즐거움이 담겨 있다.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문체를 최대한 살린 역자의 번역을 들 수 있다. 원문의 구두점과 문장 구분을 존중하면서 다소 고풍스러운 스티븐슨의 문체를 만날 수 있다. 세미콜론이나 콜론으로 절을 연결하는 형태의 긴 문장 역시 쉽표를 사용해서 스티븐슨이 의도한 리듬과 호흡을 따라가도록 했다.

어린 시절부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내게 행복의 형태를 가운데 하나였다.
— 보르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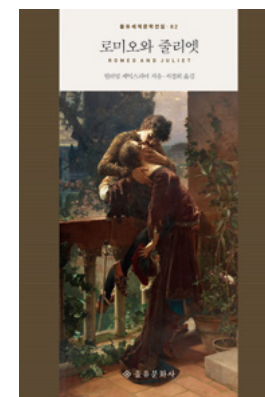
82.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섬세하면서도 함축적인 언어로 세기의 로맨스가 된 고전

오늘날 명실공히 글로벌 문화 아이콘 가운데 하나가 된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햄릿』과 함께 연극 무대에 가장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오페라, 발레,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예술 문화 및 대중문화 장르에 특별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4백 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 낸 이 작품의 두 연인은 이제 시간을 초월한 낭만적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다.

복잡 미묘하고 함축적인 셰익스피어의 언어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역자는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대사 호흡을 살린 공연 대본의 구실도 충실히 하면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될 수 있게 옮기려 했다. 또한 소네트 형식을 취하는 코러스의 대사와 로미오와 줄리엣의 첫 만남 대사를 제외하면 운문의 경우라도 특별히 글자 수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고, 원문의 뜻을 충실히 전하면서 셰익스피어 특유의 비유와 시적인 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역본을 통해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를 넘어 명실공히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등장인물들은 물론 허구의 존재지만,
그 사실성은 우리의 그것을 능가한다.
— 해럴드 블룸



2016. 5. 30. / 264쪽
12,000원 / 128×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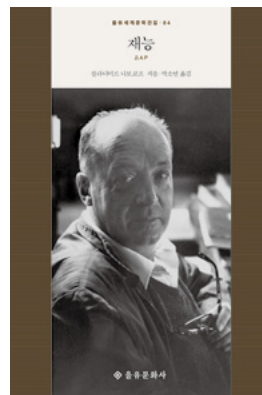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인 ‘식민주의’의 문학적 표현이자
유럽 카니발 문학의 정수를 보여 주는 걸작

『마쿠나이마』는 1920년대 브라질 모더니즘 문화 운동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브라질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이다. 아마존 정글 출신의 반영웅 마쿠나이마가 정글을 떠나 도시로 와서 브라질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빼앗기 위해 식인 거인과 싸워 이긴 후 다시 정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브라질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모색을 유쾌하고 토속적인 풍자 속에 녹여 낸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브라질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이후 브라질의 모든 문화 텍스트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 소설은 ‘식민주의’를 잘 나타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주의란, 브라질의 문화 정체성이 곧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가 혼합된 브라질의 역사가 말해 주듯 다른 지역의 문화를 마구 먹어 치워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쿠나이마』는 형식적인 면에서 원주민, 아프리카, 포르투갈, 브라질의 다양한 신화, 노래, 제의, 텍스트 등을 왕성하게 흡수한다. 언어적인 면에서도 브라질 민중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다양한 원주민 방언을 포르투갈어에 합병시킴으로써 식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장르적인 면에서도 설화, 편지문, 노래, 기도문 등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가 뒤섞여 있어 복잡하고도 화려한 세계를 구축한다.

나보코프의 환상적인 지적 유희가 돋보이는
체스 같은 소설

2016. 9. 5. / 676쪽
18,000원 / 128×188mm



이 소설은 나보코프 스스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향수 어린 작품(BBC와의 인터뷰)”으로 꼽았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망명 생활의 슬픔과 기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나보코프 스스로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러시아어 소설로 손꼽은 『재능』은 그만큼 작가의 전작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작품은 나보코프를 작가로 성장시킨 러시아 문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소설이자 자신의 정신과 영혼의 뿌리가 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선사한, 돌아갈 수 없는 조국 러시아에 대한 절절한 연서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는 다수의 문학적 인용과 문화·역사적 인용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 미술, 자연과학 등에 이르는 나보코프의 방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이 녹아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다양한 소설 구성 기법들, 기만과 속임수로 점철된 소설 구성 원칙, 심지어 한 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시제와 시점의 예기치 않은 변화, 현실과 상상의 복잡한 교차, 객관적 묘사와 내적 독백의 융합, 작가와 타인의 목소리 결합 등, 복잡한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 거기에 상충되는 형용어구의 병치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 산문 안에 녹아 있는 시의 운율과 리듬 등 다양한 유형의 언어유희가 한몫 거든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소설 작법을 총망라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2016. 10. 1. / 644쪽(상), 660쪽(하)
18,000원 / 128×188mm



폴란드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폴란드 최고의 소설

『인형』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체스와프 미워시를 비롯한 많은 문학 평론가들에게 폴란드 최고의 소설로 인정받는 작품으로,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풍부한 묘사와 단순하고 명쾌한 언어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폴란드의 몇몇 건물에는 “이 집에 1878년부터 1879년까지 볼레스와프 프루스가 소설 『인형』에 등장시킨 인물 스타니스와프 보쿨스키가 살았다. 그는 1863년 봉기에 가담했고,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살았으며, 상인이었고, 수도 바르샤바의 시민이었다. 그는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자선가였고, 학자였다. 그는 1832년에 출생했다” 같은 문구를 담은 기념물이 있는데, 이 기념물들은 애독자들이 그 건물에서 소설 『인형』 속의 가공인물이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독자들이 기념물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경우는 문학사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2015년 9월 5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민 책 읽는 『인형』의 날’ 행사 때는 전국의 학교, 문화 회관, 도서관, 서점, 공중 독서실 등 1천6백여 장소에서 전 국민이 동시에 『인형』을 읽었을 정도로 『인형』은 폴란드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폴란드 귀족들의 완고한 특권 의식, 이기심, 도덕적 해이, 경제관념의 부재, 노동에 대한 경시, 시대 변화에 대한 무지, 이성적 사고 불능 등 폴란드의 근대화 장애가 되는 봉건주의적 잔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만든 SF의 대부,
미스터리와 철학을 결합해 특별한 탐정 소설을 완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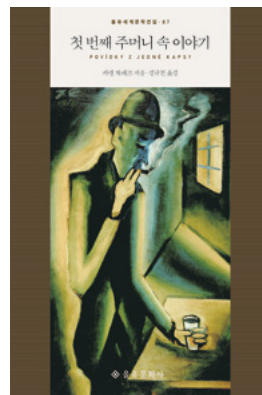
체코 문학사를 통틀어 체코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작가 카렐 차페크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사이에 깊은 철학적 사유와 행동하는 지성을 보여 주며 철학자, 저널리스트, 번역가 및 평론가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해 체코 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감당해 온 체코의 ‘국민 작가’다.

단편집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에서 카렐 차페크는 탁월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선보이며, 깊은 철학적 사유를 유쾌한 추리 소설 형식으로 풀어내어 미스터리를 철학의 반열로 끌어올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이 위대한 작가의 인간에 대한 성찰과 독보적인 발상, 천재적인 감각을 자랑하는 유머와 위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창작의 원천은 카프카, 하세크, 그리고 카렐 차페크다. 차페크는 전체주의 세계의 섬뜩한 미래를 예견한 소설들을 쓴 첫 유럽 작가다. 그의 문체는 매력적이고 심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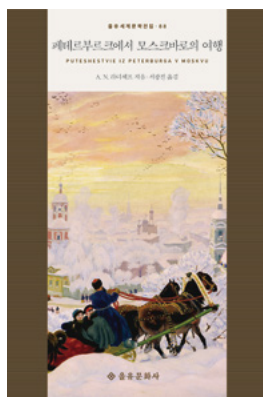
— 밀란 쿤데라

2016. 11. 20. / 300쪽
13,000원 / 128×188mm



2017. 3. 30. / 332쪽
13,000원 / 128×188mm

백 개의 아가리를 가진 괴물들이 판치는
제정 러시아 사회를 고발하는 거대한 고발장



라디셰프는 명실상부 ‘혁명의 예언자이자 선구자’란 평가를 받으며 러시아적 저항 정신의 첫 자리에 놓이는 인물이다. 1918년 7월 30일에 개최된 소비에트 인민위원회는 레닌의 주도 아래 ‘사회주의와 혁명의 위대한 활동가들’ 및 작가, 시인들의 동상 제작을 의결했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라디셰프 동상이었다. 이러한 라디셰프의 개혁가적인 모습은 소설 곳곳에서 잘 드러난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에 등장하는 서민들은 모두 건강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만큼을 받아가는 선한 존재들이다. 반면 억압에서 수많은 말을 내오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관리나 귀족들은 노동을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위에서 착취하기만 하는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들로 그려진다. 라디셰프는 이런 괴물 같은 자들을 없애야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자연법적인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한다. 그만큼 이 작품은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근대 러시아 소설이 태어나던 자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트리포노프의 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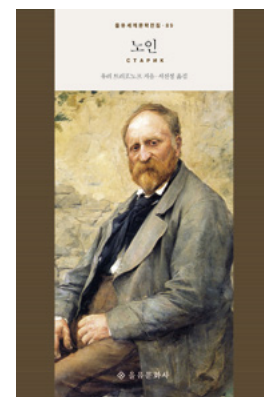
이 작품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지시할 수 없는 온갖 작은 일들로 인한 우연이야말로 삶의 실존적 본질이라고 말한다. 역사의 물결 속에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수많은 개인의 삶이 얹혀 있고, 그것이 함께 뒤섞여 시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난 1919년의 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벌어진 대혼란은 그러한 흐름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작가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감정과 생각이 빠진 사건의 건조한 기록 속에는 역사적 진실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노인』은 서술자 ‘파벨’과 그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역사와 이념, 혁명과 시대 앞에 놓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한다.

소설을 읽는 동안 혁명의 역사와 그 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자신의 아버지였던 혁명 세대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을 날날이 파헤치는 트리포노프의 용기에 놀라게 된다. 그러한 탐구의 결과는 공산당의 공식적인 찬양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 VV. 소키르코 (소비에트 평론가)

2017. 5. 25. / 400쪽
15,000원 / 128×188mm



2017. 7. 30. / 373쪽
14,000원 / 128×188mm



90. 돈키호테 성찰 MEDITACIONES DEL QUIJOTE

‘니체 이후 최고의 작가’라 불린 오르테가 이 가세트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원천이 되는 작품

이 책은 『돈키호테』를 해설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주의(세르반테스주의)를 다룬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 당시의 스페인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땅이었다. 과거를 박제화해 놓고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오르테가는 이것을 반동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반동주의는 과거를 불러내어 현재를 지배하게 한다. 오르테가는 돈키호테를 통해 반동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한다.

돈키호테는 새롭게 탄생한 근대의 영웅이다. 그는 피상적이고 표층적인 근대적 인식론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인 풍차를 향해 돌격하고 마에세 페드로의 인형들과 싸운다. 비록 놀림의 대상이 되는 비극적 삶이지만, 그는 자신을 둘러싼 물질성과 속물성에 맞서 이상을 찾고, 근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심층의 세계를 살아간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험에 뛰어들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나’가 된다. 내면에 영웅의 잔재를 품고 있는 인간의 삶은 불투명한 미래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연속이다. 오르테가는 이 작품에서 스페인의 운명을 투사하면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든 돈키호테처럼 스페인이 역사의 전설을 힘차게 부르길 소망하고 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니체 이후
유럽 최고의 작가일 것이다.
— 알베르 카뮈

91. 조플로야 ZOFLO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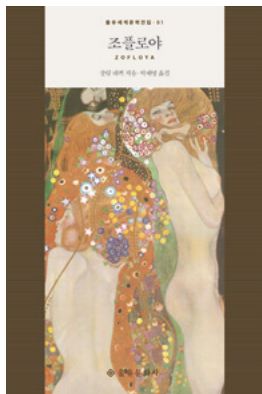
출간 당시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은 고딕 로맨스 소설

빅토리아는 어머니 라우리나가 지고지순한 남편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감히 행동하는 어머니를 부러워한다. 이런 유혹에 빠진 열일곱 살의 빅토리아는 못 여성들의 우상인 베렌차에게 연정을 느낀다. 경쟁 심리에 빠진 빅토리아는 그를 먼저 차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와 결혼 후 경쟁 상태에서 벗어난 빅토리아는 더 이상 베렌차를 욕망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의 관심은 이미 약혼한 남자인 엔리케에게로 옮겨 가는데…….

1806년에 출간된 『조플로야』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 주인공 빅토리아는 한 남자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순결한 약혼녀가 있는 남자를 갈망하며, 이로 인해 조플로야라는 인간의 모습을 한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만다.

하지만 『조플로야』를 단순히 독자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한 교훈 소설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저자가 원하는 것은 여성의 자치성, 자유, 욕망, 인권의 표출이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샬럿은 이 작품을 통해 이런 여성성을 성공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2017. 9. 30. / 444쪽
15,000원 / 128×188mm



2018. 1. 25. / 338쪽
14,000원 / 128×188mm

서글픈 변방의 유년 시절과 주인공의 성장을
차분한 어조로 아름답게 그린 작품



활발한 창작 활동을 보이며 뷔르트 문학상, 베를린 문학
작업실의 오픈 마이크 문학상, 라이프치히 도서관 시전상,
독일서적상, 브레멘 문학상, 졸로투르너 문학상, 문학의 집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현대 독일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가
된 테레지아 모라의 첫 작품집이다.

『이상한 물질』에는 모두 10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는데, 변방의 고향에서 보낸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이
주를 이룬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성년으로
입문하기 전 단계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섬세하고 차분한
시각으로 세상을 관조하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공통적으로 궁경 지대의 시골이다. 다만 시골이라
해도 도시의 대척점에서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길을 잃기 쉬운 늪지대가 있거나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변두리 모습으로,
낙후되고 답답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결혼 가족이나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월경자,
집시, 이방인 등으로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작품집의 제목인 ‘이상한 물질’이 은유하듯이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기존의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걸돌아 주류
사회로부터 이상한 물질처럼 여겨진다.

몽환적이면서도 동시에 지독히 현실적인 변방의
풍경을 스산하지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집은
독자들에게 ‘테레지아 모라’라는 낯설지만 독특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잘 보여 준다.

모든 악덕과 미덕의 목록을 재작성하고
욕망의 전형을 창조해 낸 사실주의 거장의 걸작

2018. 5. 25. / 436쪽
15,000원 / 128×188mm

『사촌 폰스』는 발자크가 평생 동안 집필한 200편이
넘는 소설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 작품 가운데 하나로,
국내 초역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발자크 평전』에서
이 작품을 발자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하며
“그의 눈길이 이보다 더 명확한 적은 없었으며, 인물을
형상화하는 그의 손길이 이보다 더 확고하고 냉정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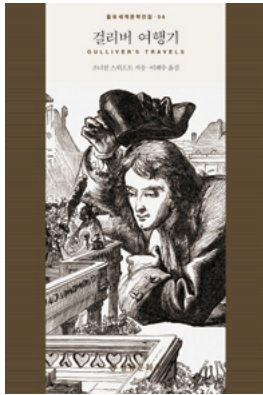
유행에서 뒤쳐진 노총각이자 식충 취급을 받는
폰스의 비극적 일대기는 권선징악형 소설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현실적인 한 편의 풍속화 같은 이야기를 보여 준다.
또한 “정념들, 정의, 정치, 커다란 사회 세력들은 사람을 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와 같은 인간 사회를
 꿰뚫는 통찰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천재보다 더 슬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정받지 못한 위장이다”와 같은
발자크 특유의 재치 있는 문장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인물,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통찰과 유포가 담긴 문장은 왜 발자크가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그리고 복합적인 작가
발자크는 문명이라는 괴물과 그 모든 갈등, 야심,
걱정들을 보여 준다.

— 보들레르

2018. 7. 30. / 476쪽
15,000원 / 128×188mm



걸리버의 환상적이고 광기 어린 여행기
신랄한 인간 비판이 돋보이는 성인용 풍자소설의 완역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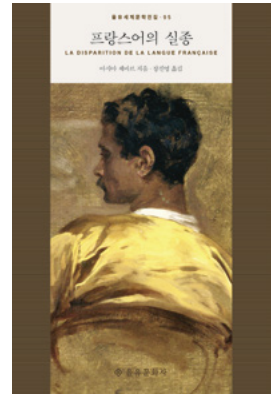
『걸리버 여행기』는 한국인 대부분이 특히 친밀감을 느끼는 세계 명작이다. 또한 이 작품은 『천로역정』, 『로빈슨 크루소』 등과 더불어 구한말에 한글로 가장 먼저 번역된 서구 문학 중 하나로 한국인의 상상력에서 오랫동안 커다란 자리를 차지해 온 작품이기도 하다.

『걸리버 여행기』는 환상 속 나라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인 동시에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확립되어 가던 근대의 초입에 첨예하게 대두되던 신구(新舊) 논쟁, 과학주의, 식민주의, 자아의 문제, 여성 문제 등이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성난 분노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풍자문학’이다. 특히 말의 나라(후이눔국)는 완벽한 이성과 언어 능력을 갖춘 말 ‘후이눔’과 짐승보다 못한 흉측한 인간 ‘야후’의 묘한 관계가 펼쳐지는 환상의 공간으로, 인간이란 종(種)에 대한 근원적인 풍자가 전복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으로 뿜어져 나온다.

- 내게는 걸리버 여행기의 결말이 인간의 영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느껴진다.
— T. S. 엘리엇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아랍을 대표하는 작가의 걸작

2018. 10. 30. / 308쪽
13,000원 / 128×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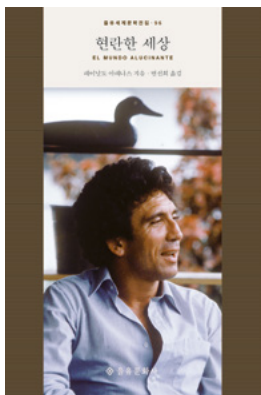
이 작품은 일생 동안 두 개의 국가와 언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세계적 작가 아시아 제바르가 즐겨 다룬 주제들, 즉 언어, 역사, 여성의 문제가 대립해 전개된다. 프랑스어/아랍어, 문어/구어, 정복자/피정복자, 식민주의/피식민자, 남성/여성 등등 대립을 넘어 분열로 치달을 수 있는 이들 쌍은 과연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통합에 이를 수 없는 관계일까에 대한 아시아 제바르의 고민과 해답이 담겨 있다.

특히 아시아 제바르가 평생 관심을 가져온 주제들, 이를 테면 프랑스 제국주의자의 악행,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프랑스어 및 모국어에 대한 관점, 엄격한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이 감당하는 억압과 배제 등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다. 한국 역시 독립을 위해 투쟁하면서도 분열을 피하지 못했고, 가부장제 아래에서 다수 여성이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이 소설은 마치 아시아 제바르가 한국을 이야기하는 듯 친근감과 함께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만든다.

이처럼 작가가 다루는 주제는 묵직하지만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어둡다거나 딱딱하게 전개되지는 않는다. 수려한 문장과 독특한 구성,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건 등 소설을 읽는 재미만도 아주 쏠쏠하다. 특히 주인공 베르칸과 나지아의 사랑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큼 매혹적이고, 알제리의 근현대사와 맞물려 벌어지는 사건들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2019. 3. 30. / 396쪽
16,000원 / 128×188mm

몽롱함과 이성 사이를 오가며
현실 세계와 환영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소설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혁명에 동참했으나 카스트로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이를 비판하는 소설을 쓰다가 반체제적 글쓰기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쫓기는 삶을 살았던 레이날도 아레나스의 대표작.

『현란한 세상』은 주인공 세르반도 수사의 『회고록』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현실 재현을 거부하고 과장, 풍자, 그로테스크, 아이러니, 알레고리 등의 문학적 장치를 통해 영원한 비극적 현실을 동정적인 역설로 완화시킨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우화적이고 신비로운 면을 띠게 되었다. 검열 때문에 쿠바에서는 출간이 불가능하여 프랑스에서 출간되었으며, 1969년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과 함께 최고의 외국어 작품상을 받았다.

이후 이 작품은 바로크 소설이면서 동시에 ‘마술적 사실주의’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아 왔다. 그만큼 책에서 보이는 마술적이고 환상적인 면은 마르케스의 소설을 읽은 독자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온다. 또한 심각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유희적인 면이 강하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것으로, 척박한 현실에 대한 환멸로 이상향을 직접 창조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세르반도 신부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모험 소설을 쓰면서, 실질적인 삶의 에피소드들을 환상으로 바꾸고 있다.

작가가 몸담았던 파리 예술계를 무대로
실제와 허구를 넘나들며 인상과 화가의 삶을 조명한 걸작

『작품』은 에밀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중 유일하게 실제로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과 예술 작품을 소재로 한 보기 드문 소설이다. 작가 자신과 폴 세잔이라는, 후대의 최고 작가와 화가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소설은 많은 사람의 흥미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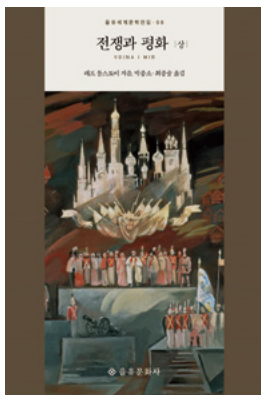
에밀 졸라는 자신이 몸담았던 파리 예술계를 무대로 제2제정기를 살았던 예술가들을 소설 속에 등장시키며 예술 창작의 여러 문제를 심각하고 밀도 있게 부각시키려고 했다. 특히 주인공 클로드 랑티에를 통해 자신이 옹호한 인상파 화가들의 삶과 작품의 탄생 과정을 대변하고자 했는데, 결국 졸라는 예술가들이란 인간으로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창조 행위에 몸담은 사람들이므로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이를 테면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광기에 휩싸였던 주인공 클로드의 시신 아래 쓰러져 처참하게 절규하는 그의 아내 크리스틴의 비참한 몰락은 그림 앞에서 목매달아 죽은 클로드 못지않게 인간 위에 군림하는 예술의 위력을 공포하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의 진정한 의도는 모든 예술가가 창작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조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으로 이 소설은 문학으로서의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다. 에밀 졸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소설을 쓰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이 소설 안에는 지문을 대신하는 여러 그림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어 독자들에게 한 편의 대작을 감상하는 기분을 선사한다.

2019. 5. 30. / 676쪽
18,000원 / 128×188mm



2019. 12. 15. / 860쪽(상),
864쪽(중), 852쪽(하)
각 18,000원 / 128×188mm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실존했던 인물과 허구적 인물까지 5백여 명이 등장하는 대하소설이다. 『전쟁과 평화』는 소설적 장들과 철학적 장들로 구분할 수 있는 작품으로, 그중 하나를 제거하면 소설 자체가 해체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 작품이 이론 주요 혁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소설적 서사와 철학적 논설의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전쟁과 평화』가 보이는 철학적 논설은 학술적인 동시에 예술적인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회 세태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삶의 윤리적 문제를 제시한 윤리소설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어느 하나의 장르에 귀속되지 않고 여러 장르가 복합된 『전쟁과 평화』의 저자를 가리켜 러시아의 비평가 빅토르 시클롭스키는 “위대한 창조자일 뿐 아니라 낡은 구성을 파괴한 위대한 작가”라고 칭송한 바 있다. 이 작품이 지닌 거대한 서사성을 칭송한 동시대인들은 『전쟁과 평화』를 “러시아의 『일리아드』이자 『오디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톨스토이의 윤리적 입장을 대변하는 작품인 『전쟁과 평화』는 왜 지금까지 이 작가가 대문호이자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세기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최고의 소설 가운데 하나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다.
— 토마스 만

헤르만 헤세 문학상, 스위스 도서상 수상작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 크리스티안 크라흐트의 최신작

『망자들』은 크리스티안 크라흐트의 예술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여러 의미에서 이미 죽은 적이 있는 자, 즉 ‘망자들’의 여정을 기묘하고 환상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크라흐트는 1930년대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 독일과 일본을 오가는 주인공들의 삶을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무대 위에 신선하게 펼쳐 보이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특별한 세계 속으로 독자들을 끌고 들어간다.

소설은 1930년대, 비가 쏟아지는 도쿄에서 잘못을 저지른 한 일본 장교가 할복자살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장교는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붉은 선혈이 방을 가로지른다. 방 한구석의 구멍 뒤에서는 카메라가 돌아가며 그 장면을 촬영한다. 카메라로 촬영된 실제 죽음은 영화가 된다. 이렇듯 첫 대목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을 담은 영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음’과 ‘예술’은 이 소설을 끌고 가는 주요한 모티프다. 『망자들』은 찰리 채플린의 일본 여행과 1930년대에 추진된 영화 합작 사업 등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역사적 인물들을 곳곳에 등장시키며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재미를 선사한다. 작가는 허구와 실재의 간극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끌어냄으로써 우리 뇌리에 인상 깊은 몽타주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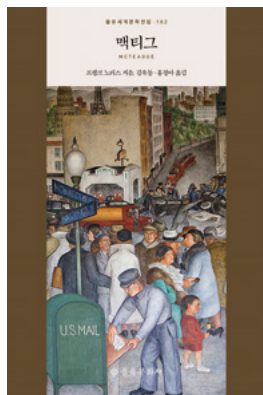
동시대의 세계 문학이 낳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소설.
— 펠릭스 슈테판 (비평가)

2020. 3. 30. / 272쪽
13,000원 / 128×188mm



2020. 4. 30. / 552쪽
16,000원 / 128×188mm

피츠제럴드와 헤밍웨이를 탄생시킨
미국 자연주의 문학의 금자탑



『맥티그』는 ‘미국의 에밀 졸라’라 불리는 프랭크 노리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문학비평가인 앨프리드 케이진이 “미국의 상상력이 빚어낸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칭할 만큼 미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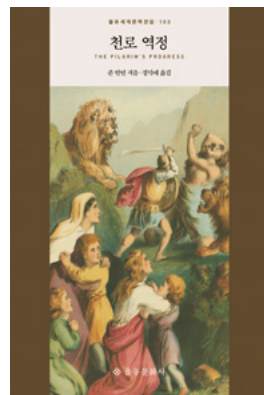
이 작품은 자연주의를 사실주의의 극단이 아닌, 낭만주의의 연장선상으로 본 그의 작품 세계를 뚜렷이 보여 준다. 프랭크 노리스는 「낭만주의 작가로서의 졸라」라는 글에서 “자연주의란 사실주의의 내접원이 아니라 낭만주의의 한 갈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문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다소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작품의 소재로 주로 사용했다. 『맥티그』에서 주인공 맥티그의 소소한 행복과 몰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자연주의자이자 낭만주의자로서의 프랭크 노리스를 잘 보여 준다. 일상을 뛰어넘는 비범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이 소설은 독자들을 곧바로 끌어들인다. 이처럼 능수능란한 스토리의 강약 조절은 프랭크 노리스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알레고리 문학의 대표작이자
다양한 상징으로 충만한 걸작

2020. 5. 30. / 472쪽
15,000원 / 128×188mm

『천로 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여러 시험을 거치며 구원으로 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하지만 이 작품이 흔한 종교서 또는 교리문답집이 아니라 문학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공의 여정에서 한 인간이 겪는 내적·외적 어려움과 스스로 느끼는 의문, 공포, 유혹 같은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심리적 깊이 때문에 『천로 역정』의 주인공은 알레고리적 인물임에도 때때로 자기 의지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다각적이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캐릭터 속에 『천로 역정』이 지닌 문학성이 존재한다.

이 작품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풍자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천로 역정』에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느꼈던 고충이 생생히 담겨 있다. 이 작품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경(卿), 귀부인, 신사 같은 칭호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처럼 『천로 역정』은 단순히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종교 소설이 아니라 심리 소설이자 일종의 사회 소설로도 볼 수 있다.



번연은 가장 수수한 흙으로 빚어졌지만
천상의 불로 만든 본능을 지닌 사람이다.

— 너새니얼 호손

헤르만 헤세 지음
권혁준 옮김

104. 황야의 이리 DER STEFFENWOLF

2020. 7. 25. / 372쪽
12,000원 / 128×188mm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인 고백 소설이자
‘헤세 열풍’을 선도한 히피들의 바이블

헤르만 헤세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의 작품에는 자전적인 요소가 많다. 1927년에 발표된 『황야의 이리』는 자기 내면의 전기인 동시에 시대의 기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당시 헤세가 처했던 개인적인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는 우스꽝스럽고 역겨운 세상에서 자신이 철저히 배제된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런 시민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내면의 자살 충동이 작품 속 주인공 하리 할러가 경험하는 삶의 위기로 표출된다. 『황야의 이리』는 헤세 생전에도 전쟁을 경험한 후 삶의 의미와 방향에 목말라 있던 젊은 세대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미국에서는 사후인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 탈권위주의, 반전, 반핵, 환경 운동을 내세우며 미국 및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던 ‘68 학생운동’ 세대와 문명을 등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히피’들이 바이블처럼 여기고 열독하면서 ‘헤세 열풍’을 선도했다.

헤세는 1941년에 쓴 후기에서 “나로서는 『황야의 이리』가 병과 위기를 묘사하는 소설이기는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과 위기 또는 몰락이 아니라 그 반대, 즉 치유를 그려 낸 소설임을 독자들이 알아차린다면 기쁠 것이다”라며 이 작품이 치유까지 나아가는 소설임을 내비쳤다. 헤세가 의도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주인공의 열린 결말’은 똑같은 잣대로 평가되는 삶과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 지친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한다.

105. 이방인 L'ÉTRA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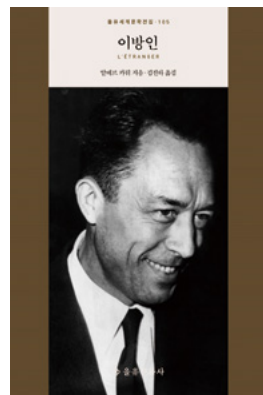
알베르 카뮈의 감각적인 문체와
독특한 문맥을 자연스럽게 살린 한국어판

젊은 청년 뫼르소는 어느 날 양로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다. 그는 곧 과거 직장 동료였던 마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아파트에서는 이웃 주민인 레몽과 친분을 맺는다. 급기야 레몽이 자신을 등진 애인을 괴롭히려 하고 고민할 때 그의 계획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며칠 후 뫼르소는 레몽 일행과 해변에 놀러 갔다가 아랍인 무리와 맞닥뜨린다. 양쪽이 심한 싸움을 벌이고 헤어진 뒤, 뫼르소는 홀로 다시 해변으로 나선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몽을 다치게 했던 아랍인과 마주치고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긴다.

1942년 알베르 카뮈가 발표한 소설 『이방인』은 작가 특유의 부조리 철학, 개성 있는 등장인물, 대담한 구성과 하드보일드 문체 등 여러 특질을 통해 당대의 손꼽히는 문제작이자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살인을 두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 뫼르소는 합리성을 가장한 억압적인 문명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힘겹게 대응하는 현대인을 그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회적 관례를 추종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카뮈가 『이방인』과 뫼르소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반항적 삶의 메시지다.

알베르 카뮈 지음
김진하 옮김

2020. 8. 20. / 248쪽
12,000원 / 128×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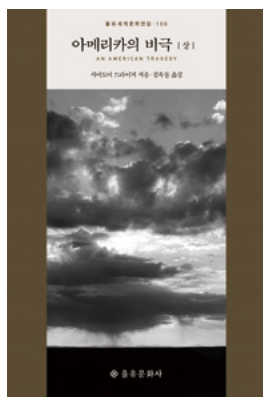
시어도어 드라이저 지음
김옥동 옮김

106·107. **아메리카의 비극**
AN AMERICAN TRAGEDY

4.
현대 예술의 거장

2020. 10. 10. / 804쪽(상), 808쪽(하)
18,000원 / 128×188mm

영화 [젊은이의 양지]의 원작 소설이자
미국판 『죄와 벌』로 꼽히는 걸작



일찍이 저널리스트로 출발한 드라이저는 미국 사회의
누추한 모습과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어두운 현실을 직접
지켜보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다년간 현장
곳곳을 누비며 형성된 저자의 날카로운 문제적 시각이
돌보이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현대 사회가 부를 향유하는
소수와 힘겹게 살아가는 다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 준다. 이러한 냉철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작품은 환경과 유전, 본능에 지배받는 인간의 비극성을
생생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려 내고 있다. 사회경제적
결정론과 우연적 사건은 주인공 클라이드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작품 속에서는 등장인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누추한 삶을 개선할 여지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적 부조리와 개인의 모순을 극적으로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은 오늘날 미국판 『죄와
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아메리카의 비극』에는 20세기 초엽의 미국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거리
전도사부터 시골 농부, 사업가,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의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 지리적 배경도
애디론덱산맥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을 포함하다시피 한다.
시어도어 드라이저는 이 작품을 당시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거울이라 생각했다. 『아메리카의
비극』은 그러한 그의 의도에 부합하는 대작이다.

론다 개어릭 지음
성소희 옮김

2020. 11. 10. / 888쪽
32,000원 / 130×187mm



코코 샤넬
MADEMOISELLE

현대 패션의 완성자 코코 샤넬
그녀의 찬란한 인생 여정과 위대한 유산을 총망라한 평전

샤넬 제국의 창립자인 가브리엘 코코 샤넬. 그녀는 여성이 옷을 입는 방식을 영원히 변모시켰다. 모자에서 불필요한 장식을 과감히 걷어 내고 치마를 활동하기 좋은 적당한 길이로 만들어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이었다. 그녀가 고안한 카디건 스웨터, 플랫 슈즈, 리틀 블랙 드레스는 어느덧 스타일의 기본이 되었다. 지금도 연령을 초월한 수많은 여성이 샤넬을 입는다. “나는 전 세계에 옷을 입혔다”는 샤넬의 말처럼, 그녀는 억만장자가 된 동시에 세상의 시각적 미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코코 샤넬이라는 인물 자체와 패션을 초월하는 샤넬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정체성이 사회·역사·문화·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헤친다. 즉 샤넬이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새로운 여성성과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바꿔놓는 데 인생을 바친 여정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샤넬의 성장 환경과 인간관계, 내면의 욕망과 콤플렉스, 사업 감각과 통찰력 등 다채로운 내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해석은 결코 주관적이지 않다. 저자는 샤넬과 주변의 주요 인물에 관한 일화와 증언, 서류 증거 등을 빈틈없이 수집하고 교차 검증해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짐 모리스
NO ONE HERE GETS OUT ALIVE

록 음악의 영원한 아이콘 짐 모리스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의 스물일곱 인생과 도어스 이야기

전설의 록 그룹 도어스의 리드 싱어 짐 모리스. 그는 결핍으로 가득한 스물일곱의 짧은 생을 살다 갔다. 어려서부터 시에 빠져들고 영화를 공부한 이유도, 더 나아가 록 밴드를 만들어 마이크를 잡은 이유도 자신을 충족하기 위함이었다. 1960년대 후반 그룹 도어스의 멤버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문학성 짙은 가사, 조각 같은 외모, 파격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The End〉, 〈L.A. Woman〉 등 도어스의 명곡을 장식한 위험하면서도 황홀한 시어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늘 알코올과 약물로 중독되다시피 하며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 나갔다. 그러나 지난한 소송과 대중의 지나친 관심에 지친 그는 결국 프랑스 파리로 잠시 외유를 떠나지만, 그곳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고 영원한 자유를 맞이하게 된다.

이 책은 한 시대를 풍미한 어느 불안한 영혼과 그의 예술 세계를 가장 잘 아는 두 ‘전문가’가 빚어낸 역작이다. 『롤링 스톤』에서 무려 20년간 에디터로 활동한 저널리스트와 10대 때부터 도어스와 일한 매니저 출신 저자가 방대한 인터뷰 자료와 경험담을 토대로 만든 탄탄한 결과물이다.

제리 홉킨스,
대니 슈거맨 지음
김경진 옮김

2020. 6. 30. / 608쪽
27,000원 / 137×187mm



2020. 2. 25. / 728쪽
28,000원 / 137×187mm



팝 음악의 지평을 넓힌 전설의 뮤지션 조니 미첼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녀의 삶·사랑·음악 이야기

단순한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지위를 넘어 ‘뮤지션들의 우상’이 된 조니 미첼. 독학을 통해 재능 있는 뮤지션이자 뛰어난 밴드 리더로 진화한 그녀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앨범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해 왔고, 무엇보다 그녀가 쓴 가사는 자신의 인생과 사랑에서 비롯한 통찰력 있는 언어와 솔직한 감정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섬세한 서사와 독창적인 음악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그녀는 밥 딜런, 레너드 코언 등 대중음악의 전설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은 물론 허비 행콕, 웨인 쇼터 등 혁신적인 재즈 뮤지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제 〈Big Yellow Taxi〉, 〈Both Sides, Now〉, 〈A Case of You〉 등 그녀의 주요 레퍼토리는 유행을 타지 않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고, 후대의 수많은 싱어송라이터에게 끼친 영향력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유산이 되었다. 영문학자이자 음악 평론가인 저자가 그녀와 그녀의 지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해 완성한 이 책은 한 아티스트와 그 시대를 정교하게 그린 세밀화처럼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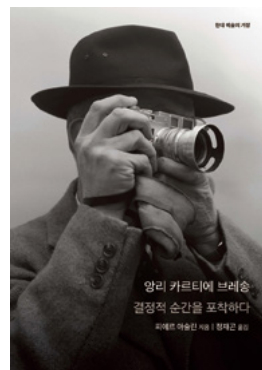
- 규정 자체를 거부하는 예술가의
삶과 작품에 대한 결정판
- 데이비드 헤이주(음악평론가, 컬럼비아대 교수)

20세기 사진 예술을 선구한 ‘세기의 눈’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그의 경이로운 생애와 사진 미학을 담은 대표 전기

2019. 10. 30. / 636쪽
27,000원 / 137×187mm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단순히 주변 풍경이나 일상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역사적인 현장에 가까이 참여함으로써 사진을 통해 시대를 증언하는 임무를 떠안았다. 스페인 내전과 조지 6세의 대관식, 해방된 파리, 폐허가 된 독일, 간디의 장례식, 중국의 내전 현장 등을 담은 그의 사진은 20세기의 역사 그 자체다. 이 책은 저명한 평론가이자 전기 작가, 무엇보다 카르티에 브레송의 ‘친구’였던 저자가 카메라 뒤에 감춰져 보이지 않던 대가의 진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촘촘히 완성해 나간 저작이다. 생전 자기 사진이 찍히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미디어에의 노출도 최소화했던 이 예술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가 저자에게 사진을 포함해 자신의 아카이브를 모두 공개하고 내어 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 이 거침없는 전기는 카르티에 브레송의 팬,
추종자 들이 그의 놀라운 작품에 깃든 규정하기 힘든
주제를 재발견하는 데 영감을 줄 것이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2019. 8. 30. / 708쪽
27,000원 / 137×187mm

재즈사에 큰 영향을 끼친 탐미주의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
한 편의 영화 같았던 그의 삶과 예술 세계



오늘날 재즈 피아노의 언어에 심대한 기여를 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빌 에반스. 저자는 빌 에반스의 음악에 매혹된 열성 팬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클래식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에반스 음악의 본질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우리를 그의 예술과 삶의 세계로 안내한다. 『뉴욕타임스』가 평했던 것처럼 이 책이 “빛나는 시선으로 쓰인 놀라운 전기”인 이유는 에반스의 예술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사유의 시간을 선사하기도 하거니와 에반스의 음악적 여정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따라가면서 그 숨결을 복원하고자 했던 저자의 노력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는 오랫동안 재즈에 관한 글을 쓰며 한국의 대표적인 재즈 저술가로 자리매김한 황덕호의 번역과 주석이 더해져 평전의 완성도를 높였다.

빛나는 시선으로 쓰인 놀라운 전기 한 편이 여기 있다.
— 『뉴욕타임스』

시대의 금기를 초월한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
그의 뜨거운 탐미주의를 아로새긴 최초의 한국어 전기

2019. 7. 20. / 736쪽
28,000원 / 137×18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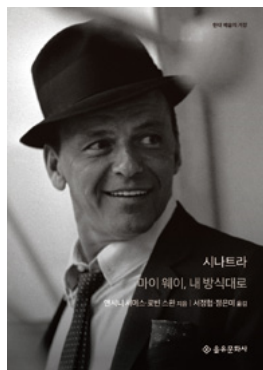
1970~1980년대 뉴욕에서 활동한 사진가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정확히 그 시공간을 대변하는 아이콘이다. 그는 인종과 성별을 불문한 인간의 나체와 동성애, 이상 성욕 등 시대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주제들을 카메라에 담아 예술적 찬사와 사회적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주체할 수 없는 야욕과 출세욕을 채우기 위해 위험하면서도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 그의 삶과 미학은 폭발적인 욕망과 탐미주의가 낳은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메이플소프로부터 직접 전기 집필을 의뢰받은 저자는 메이플소프 본인과 그의 사후에 주변 인물들로부터 확보한 방대한 증언을 토대로 흠잡을 데 없는 평전을 완성했다. 이 책으로 독자는 메이플소프의 뜨거운 예술혼과 1970~1980년대 미국 예술계의 생생한 풍경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정말로 감탄스러운 전기, 용감한 책이다.
저자가 그려 낸 초상의 선명함과 솔직함은
그 집필 대상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 아서 단토(미술평론가)

앤서니 서머스,
로빈 스완 지음
서정협, 정은미 옮김

2019. 5. 25. / 840쪽
28,000원 / 137×187mm



시나트라 SINATRA

명곡 「마이 웨이My Way」의 주인공
20세기를 대표하는 명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그의 영화 같은 삶을 담은 전기

가수 겸 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는 지금까지도 ‘최고’라는 수식어를 단 채로 인구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아이콘이다. 노래 「마이 웨이My Way」로 상징되는 그의 삶은 마치 흥행 요소를 모두 모아 놓은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하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지하 세계, 그리고 정치 영역까지 발을 걸쳐며 전 세계를 뒤흔든 인물이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화려한 모습 뒤에는 감추어진 진실이 더 많았다. 때로는 거짓말쟁이이며 변덕쟁이였고, 바람둥이이자 동시에 한 여자에게 지조를 보인 모순된 인물이기도 했으며, 약자에게 연민의 정을 베푼 자선가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를 ‘목소리 (The Voice)’로 기억한다. 놀라울 정도로 드라마틱하면서 공정한 시선을 견지한 이 책은 시나트라에 관한 단연 최고의 평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시나트라 전기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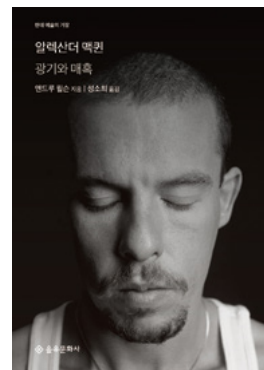
영국이 낳은 천재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
그의 광기 어린 인생과 매혹적인 패션 세계를
파헤친 궁극의 평전

영국이 낳은 천재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감각적이면서 전위적인 스타일로 패션계의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고, 강인한 여성상을 강조한 옷을 디자인하면서 셀러브리티는 물론 왕실 인사까지 사로잡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당당한 외양과 악동 이미지 뒤에는 냉혹한 패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린 영혼이 웅크리고 있었다. 맥퀸의 광기 어린 인생과 매혹적인 패션 세계는 이미 전설이 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저자는 방대한 문헌 조사와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치열하게 분투한 한 인간의 모습을 구체화했다. 이 책은 맥퀸의 작품과 인생이 혼연일체가 된 어두운 교차로를 심도 있게 파고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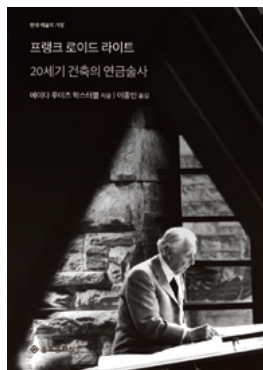
저자는 (...) 충격적인 에피소드를 가득 실으면서도 맥퀸을 천재성에 시달린 인간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
— 『데일리 텔레그래프』

앤드루 윌슨 지음
성소희 옮김

2019. 2. 25. / 608쪽
25,000원 / 137×187mm



2018. 10. 25. / 380쪽
18,000원 / 137×187mm



르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와 함께
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삶과 예술

구겐하임 미술관, 낙수장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기성 체제나 양식을 좇는 대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그는 위선적인 겸손보다는 정직한 오만으로 세상에 맞선 건축계의 이단아였다. 수많은 부침과 꺾으면서도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건축에 대한 열정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은 그는 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진다. 이 책은 1932년 『자서전』으로 라이트 스스로 재창조한 이른바 ‘라이트 신화’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규명해 거장의 ‘진짜’ 모습을 보여 준다. 2008년 후 10년 만에 나온 본 개정판에는 유현준 건축가와 김신 디자인 칼럼니스트의 글이 새롭게 실려 건축과 디자인 측면에서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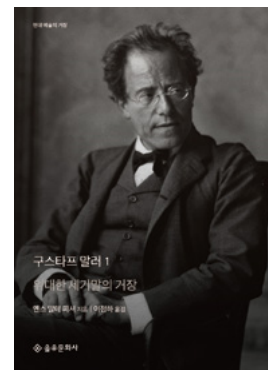
라이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에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실제 일어났던 일과 재창조된 일이다. (...) 그러나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라이트가 건축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 『뉴욕타임스』

승리와 비극으로 점철된 삶을 산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분석

바야흐로 ‘말러의 시대가 왔다. 사후 50년이 지나서야 재조명받기 시작한 구스타프 말러는 이제 클래식 공연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 작곡가로 꼽히고 있다. 말러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타오른 말러 열풍은 한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저자는 말러의 서신, 말러의 아내였던 알마의 회상록, 주변 사람들의 회고록 등 수많은 사료를 토대로 말러의 삶과 문학 편력, 사상, 지휘자로서의 성과, 결혼 생활,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다. 단지 사료를 나열해 말러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럽의 정치·사회·문화·과학·예술적 맥락을 함께 짚어 냈다. 다각도로 그려 낸 말러의 삶과 예술은 말러 열풍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 주며, 노련하게 정치적 수완을 구사할 줄 알았고 강인한 체력을 가졌던 예술가 말러를 지금-여기 우리 곁으로 데려온다.

전체적으로 대단히 명석하고 탁월하며
놀랍도록 사랑스러운 책이다.
이로써 말러 문헌은 더욱 풍성해졌다.
— 한스 볼슬래거(말러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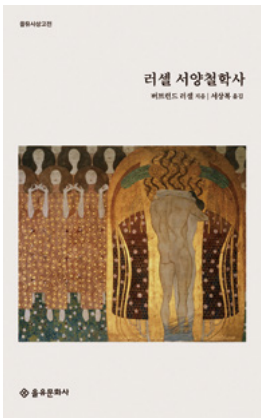
2018. 8. 31. / 956쪽(1권), 1076쪽(2권)
각 22,000원 / 137×187mm



5.

을유사상고전

2019. 4. 30. / 1,056쪽
32,000원 / 120×200mm



러셀 서양철학사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1950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20세기 대표 지성 버트런드 러셀의 인생 역작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양 철학의 지평을 넓힌 세기의 고전

철학자, 수학자, 사회운동가, 교육자,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 버트런드 러셀이 고대 그리스철학부터 현대 분석철학까지 서양 철학사를 서양 철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철학자의 주요 사상을 사회문화 및 정치적 배경과 연결하여 러셀의 관점에서 쓴 철학 고전이다. 2500년 동안 발전해 온 서양 철학에서 일관된 철학적 주제를 하나하나 찾아내 흥미진진하게 논의한다. 이 책은 기존의 철학 책과 달리 저자의 고유한 철학적 관점과 참신한 분석적 방법으로 수많은 철학자의 사상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비판한다. 또한 철학이 사회문화나 정치적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는지를 다른 분야와 연결하여 보여 준다. 철학적 주제를 터득하려면 그 시대의 전후 맥락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술된 『러셀 서양철학사』는 1950년에 러셀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 주었고, 과거로부터 빚어진 오늘날의 삶과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선사한다.

학파와 의견의 대립을 뛰어넘어
최고의 가르침을 보여 주는 소중한 책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버트런드 러셀
Bertrand Russell
(1872 ~ 1970)

철학자, 수학자, 사회운동가, 교육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영국 수상을 두 차례 지낸 존 러셀 경의 손자로,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1910년에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학 원리』를 출간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세계에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분석철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논리학·인식론·존재론·윤리학·사회철학 등 철학 전반에 분석적 방법을 적용해 독창적 견해를 발표했고, 기호논리학도 확립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전쟁과 징병을 반대하는 글을 써서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쫓겨나고, 6개월간 옥고를 겪었다. 1927년에는 아내 도라 블랙과 함께 영국에 진보적인 대안 학교를 설립했고, 1938년부터 하버드대, 뉴욕시립대 등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철학을 강연했다. 1950년에 『러셀 서양철학사』, 『인간 지식』, 『결혼과 도덕』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9. 5. 22. / 760쪽
27,000원 / 120×2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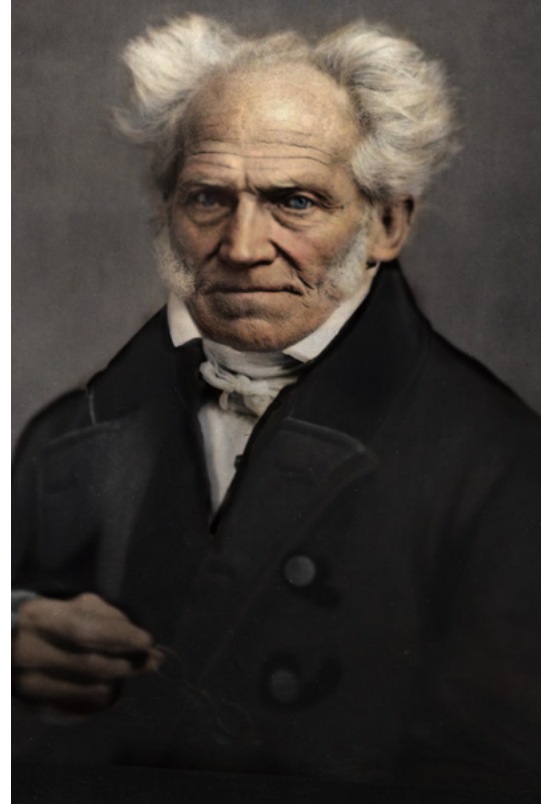


세계적인 인문·철학 필독서
19세기 독일 철학의 대들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공식 출간 2백 주년 기념 전면개정판

19세기 서양 철학의 거목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헤겔로 대표되는 이성 철학을 거부하고 이성이 아닌 의지로 세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동시에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의지를 부정해야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냉철한 전언을 남겼다. 당시로서는 독창적이었던 그의 의지 철학과 인생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을유문화사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2009년 첫 출간 이후 2015년 개정증보판을 거쳐 2019년에 전면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인 역작이다. 공식 출간 200주년을 맞아 ‘을유사상고전’ 시리즈로 출간되는 이번 개정판을 위해 역자인 홍성광 박사는 기존의 명쾌한 해설을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본문에는 쇼펜하우어와 그의 철학을 둘러싼 30여 점의 도판이 새로 실려 독자의 확실한 이해를 돕는다.

나는 쇼펜하우어가 인간 중에서 가장 천재적인
인물이라 생각한다.

— 레프 톨스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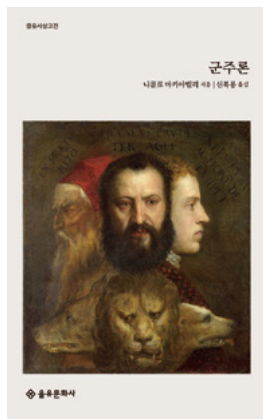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
(1793 ~ 1860)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1788년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793년 함부르크로 이주해 성장했고,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한동안 상인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805년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학자가 되기 위해 김나지움에 입학했다. 1811년 베를린대학교에 들어가 리히텐슈타인, 피셔, 피히테 등 여러 학자의 강의를 들었고, 1813년 같은 대학 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충분근거율의 네 가지 뿌리에 대하여」를 집필, 우여곡절 끝에 예나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819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한 후 1820년부터 베를린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839년 현상 논문 「인간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로 왕립 노르웨이 학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1860년 폐렴으로 숨진 후 프랑크푸르트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신복룡 옮김

군주론
IL PRINCIPE

2019. 6. 30. / 360쪽
16,000원 / 120×200mm



마키아벨리를 정치사상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대표작
인간 본성과 권력 투쟁에 대한 통찰을 담은
정치철학의 고전

이탈리아 피렌체의 관료이자 군사 전략가였던
마키아벨리를 정치사상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군주론』은
인간 본성과 권력 투쟁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은
정치철학의 고전이다. 이 책은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관계의 전형을 보여 주며, 권력을 둘러싼 투쟁의 속성을
 꿰뚫고 있고, 여기에 개입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본성을
냉철하게 분석해 뱀으로써 정치철학의 명저가 되었다.
『군주론』은 16세기 피렌체의 지배자였던 메디치가에
헌정된 것으로, 이러한 특성을 살려 신복룡 교수는
1980년에 국내 최초로 공손한 ‘서간체’ 형식으로
『군주론』을 번역했다.

우리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숨김없이 밝혀낸 마키아벨리 같은 저술가에게
큰 신세를 졌다.

— 프랜시스 베이컨

『군주론』은 대단히 위대하고 고결한 심정을 갖춘,
참으로 정치적인 두뇌의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고
진실로 가득 찬 착상이다.

— 헤겔

목자
墨子

공자를 비판한 실용주의 사상가
작은 예수이자 큰 마르크스라 불린 목자의 대표 저서

『목자』 교감본(校勘本)과 백화번역본(白話翻譯本) 등
지금까지 출간된 여러 판본을 비교·대조하여 기존
원전에서 빠진 글자나 구문, 오자 등을 최대한 바로잡은
완역판이다. 어려운 한자나 단어에 일일이 주석을
달았으며, 주석을 달지 않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그 뜻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번역했다. 목자의 사상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해제와 각 장의 내용을 소개하는 편장 개요도
실려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목가의 철학은 평화를 숭상하는 ‘겸애(兼愛)’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목자』에는 그 외에도
‘목자 십론(十論)’이라 불리는 여러 사상이 담겨 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여러 견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자』가 실천적 사상임을 일깨워 준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천이지
말이 아니다. 그 실천이 『목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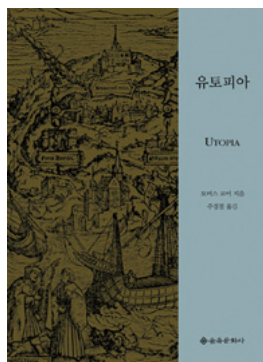
— 루쉰

목자 지음
최환 옮김

2019. 7. 25. / 1,244쪽
36,000원 / 120×200mm



2007. 6. 10. / 236쪽
12,000원 / 161×216mm



16세기 유럽의 부패한 왕정과 사유재산제의 폐해를 풍자하고 가상의 이상사회를 통해 현실 개혁을 역설한 고전. 토머스 모어가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라는 포르투갈 선원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가상의 인물인 히슬로다에우스는 신세계를 여행하던 중 유토피아 섬에서 5년간 생활하다 온 것으로 묘사된다. 유토피아는 당시 유럽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생활방식을 갖춘 이상 세계로 그려진다. 가공의 인물의 입을 빌려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이 작품은 시대의 문제에 대해 투철했던 위대한 인물의 사유에서 빚어진 걸작이다.

서울대 주경철 교수가 현대 언어 감각에 맞추어 풀어서 번역하였으며, 상세한 각주와 해설로 이해를 돕고 있다. 플라톤의 <공화국>, 프랜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등 유토피아 사상을 담은 저작들과 토머스 모어의 편지를 수록하였다.

2013. 2. 15. / 520쪽
18,000원 / 161×216mm

염세주의자로만 알려진 쇼펜하우어의
전면목을 복원하는 인생철학의 정수
쇼펜하우어만의 유쾌한 행복의 기술과 명량한 삶의 예지

쇼펜하우어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안겨준 『소품과 부록(Parerga und Paralipomena)』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소품(Parerga)’에서 삶의 지혜를 위한 아포리즘(Aphorismen zur Lebensweisheit)을, ‘부록(Paralipomena)’에서 인생과 관련되는 여러 유익한 글들을 추려서 실었다. 두 부분은 알기 쉽게 ‘행복론’과 ‘인생론’으로 칭했다.

6년간 작업해 완성한 『소품과 부록』도 원래는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나중에 덧붙여 실으려고 했으나, 주저의 새 판을 찍을 기회가 없어 보며 1851년 따로 출간되었다. 1853년에 영국의 옥센포드가 급진파 신문 「웨스트민스터 리뷰」지에 실은 ‘독일 철학에서의 우상 파괴’라는 소개 글 덕분에 오늘날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되었다.



2008. 3. 25. / 1,027쪽
35,000원 / 161×216mm

중국 고대 사상을 집대성한 최고의 유학서
천하통일과 법가의 사상적 기틀을 제시한 순자를 만나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02).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로 널리 알려진 순자는 공자가 창시한 유학을 현실적·객관적 입장에서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재정립한 전국 시대 최고의 사상가다. 자연론, 인식론, 예론, 성악설, 후왕 사상 등 그의 독특한 사상을 담고 있는 『순자』는 기존의 유가에서 주장하는 도덕론·심성론 등과는 다른 순자의 견해가 담겨 있으며 제자백가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중국 고대 사상을 집대성하고 있다.

『장자』, 『노자』 등 중국 고대 사상서들을 번역한 바 있는 김학주 서울대 명예교수에 의한 완역으로 개정 출간된 이 책은 원문의 맛을 살리면서도 쉽게 읽히도록 번역했으며, 각 절마다 원문을 싣고 상세한 해제와 해설, 주석을 덧붙여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각 편의 제목을 이해하기 쉽게 풀고 내용 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중국의 명문(名文)만을 엄선한 동양 고전의 정수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03, 2004). 옛 문인들의 필독서이자 우리나라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이다. 동양적 사고와 정신문화의 지평을 넓혀 준 한문 문장 교과서로 평가되는 『고문진보』의 번역판. 2001년과 2003년에 출간되었던 『고문진보』 전·후집을 다시 개정해 낸 것이다. 앞서 낸 책에서 발견되는 오자와 오기, 전·후집을 따로 낸 데서 발생했던 체재의 불일치를 수정·보완하였다.

주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의 고시와 고문을 엮은 책으로 전집은 시(詩)만을 엄선한 시선집이고, 후집은 산문을 비롯하여 산문과 운문의 결합체인 사부(辭賦)체, 변려문 등을 수록하였다. 임금에 대한 절개, 출세를 위한 지략, 인생의 덧없음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 책을 통해 옛 선현들의 사유의 편린과 시공을 초월한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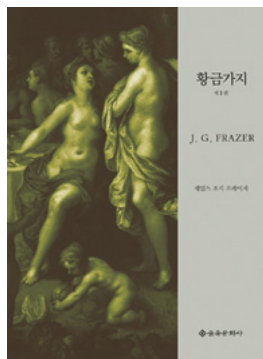
2020. 9. 30. / 887쪽(전집),
1,333쪽(후집)
35,000원(전집), 40,000원(후집) /
161×216mm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지음
박규태 역주

황금가지 THE GOLDEN BOUGH

2005. 5. 30. / 872쪽(1권), 776쪽(2권)
32,000원(1권), 30,000원(2권) /
161×216mm



문학과 예술, 인류학의 지평을 넓힌 세기의 고전

『황금가지』는 영국의 민속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1843~1941)가 쓴 원시 종교의 기원과 진화의 과정에 관한 방대한 서술로 원문으로는 전 13권에 이르는 대작이다. 인류학이나 종교학에서 신화론과 의례론을 촉발시킨 이 저서는 서구 교양인들에게 기독교의 독단에 대한 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또한 끊임없이 문학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영국은 프레이저의 나라’라고 했을 정도다. 특히 종교학자 엘리야데, 영국의 시인 T. S. 엘리엇 등이 이 책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1922년에 저자가 직접 한 권으로 요약하여 맥밀란 출판사에서 간행한 축약본의 한국어판 역주본으로, 질적 수준 또한 높아 『황금가지』의 정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역주와 도판을 풍부하게 삽입하여 신화학, 인류학에 대한 기본 지식 없는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레이저의 다른 저작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연보를 수록했다.

노자
老子

현존하는 최고(最古) 판본
곽점초묘죽간본(郭店楚墓竹簡本) 〈노자〉의 완역서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선정. 모든 길은 ‘스스로 저절로 그러한’ 것에 들어 있다(道法自然)는 도가 사상의 지혜와 그 참뜻을 가장 정확히 헤아리고자 한다면 곽점초묘죽간본(郭店楚墓竹簡本, 초간본) 『노자』를 만나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본의 가장 원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초간본 『노자』는 초기의 노자 및 그 학파의 생생한 목소리를 발견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판본에서 보이는 각 장(章)의 배열 순서나 문장 해석상의 여러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귀중한 자료다.

이 책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초간본 『노자』의 완역서로 학술사적, 문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문자 고증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상세한 주해와 해설, 초간본의 원형을 보여 주는 도판과 그 원문이 실려 있고, 노자라는 인물과 사상에 대한 종래의 연구 성과가 집적·비교 정리되어 있어 『노자』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노자 지음
최재목 역주

2006. 12. 15. / 324쪽
18,000원 / 161×216mm



장자 지음
김창완 옮김

장자 (내편·외편·잡편)
莊子

2010. 3. 30(내편), 2010. 10. 10(외편),
2012. 3. 25(잡편) / 352쪽(내편),
682쪽(외편), 560쪽(잡편)
18,000원(내편), 25,000원(외편),
23,000원(잡편) / 161×216mm



장자는 중국 철학의 황금기로 불리는 전국 시대 때의 인물로, 전통적 사상과 제도에 반대하며 인간과 사물의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말했다. 유한한 삶의 경계 바깥에서 삶의 안쪽을 바라보는 그의 사유는 초탈적이고 광활하며 아득하다. 그것은 일상적 사고를 초월하는 심원한 상상력과 다채로운 비유와 우언을 통해 표현된다. 그럼으로써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사는 우리 의식의 지평을 비약적으로 확장시킨다. 절대적 자유와 해방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장자』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장자』는 내편 7편, 외편 15편, 잡편 11편으로 구성되며 이 책은 을유문화사에서 전 3권(내·외·잡편)으로 완간한 판본이다. 옮긴이 김창완은 수많은 주와 다양한 주장을 나열하면서 시비와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장자』 전체를 꿰뚫는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풀이를 추구했다. 축자적 직역을 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글자도 소홀히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되, 직역으로 의미 전달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최대한 간략하게 주를 달아 보충했다.

우파니샤드
UPANISAD

저자 미상
임근동 옮김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답아낸
인도 철학 사상의 정수

2012. 5. 18. / 872쪽
38,000원 / 161×216mm

인도 철학 사상의 정수를 담은 책으로 상카라의 산스크리트어 주석에 의거하여 정통 『우파니샤드』를 국내 최초로 완역한 책이다. 『우파니샤드』는 인도 정신문화의 원천이며 우주의 궁극적 근원과 참자아의 발견을 통한 해탈을 추구한다. 인도에서 나타난 철학적 사유는 고대 신비주의 문헌이자 인도 최고의 경전인 『베다』에 그 기원을 둔다. 『베다』는 자연의 사물과 자연 현상, 그리고 자연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신격화하여 찬양하고 기원하는 시 모음집이다. 『우파니샤드』는 이러한 『베다』의 핵심을 담고 있다. 역자는 비전(秘傳)을 통해 전수되는 신비주의 전통에 따라 생략과 상징, 함축과 많은 대명사의 사용을 통해 서술되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냈다.

『우파니샤드』를 공부함으로써 나는 내 삶의 위로를 얻었다. 또한 그것은 내 죽음의 위로도 될 것이다.

— 쇼펜하우어



2007. 12. 30. / 298쪽
13,000원 / 161×216mm



자기 수양의 근거와 방법을 체계화한 유학 입문서

『대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강령을 밝히고 그 강령을 실천하는 단계별 조목을 제시한 책이다. 나의 덕성과 소양을 먼저 가꾼 뒤, 남도 나와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여덟 단계의 과정인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을 제시한다.

『중용』은 세계의 본질과 삶의 자세를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 사상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중용’의 ‘중’은 극(極)으로 적당한 중간이 아니라,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최선을 말한다. ‘용’은 상(常)으로 평범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가치를 일컫는다. 이러한 『대학』과 『중용』은 현대 독자에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은 최고의 수양서로 손색이 없다.

인간의 행복과 너그러운 정치를 설파한
『맹자』 사상이 정선된 역서

맹자의 언행 및 당시 사람들 혹은 제자들과 맹자의 문답을 기술한 책으로, 공자 학통의 계승자라고 생각한 맹자의 정치 철학, 윤리 사상, 교육 사상, 처세 철학이 담겨 있다. 중요한 유가 경전 가운데 하나로 학자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은 문장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문 문법의 요체를 터득하며 한문의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된다. 본서는 중국의 권위 있는 언어학자 양백준 교수의 『맹자』를 저본으로 하고, 국내에 소개된 판본들을 면밀히 검증해 현토와 주석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명과 지명에 관한 자세한 주석과 글자의 음과 뜻, 문법 설명, 수사 방식, 역사 지식, 지리 연혁, 문물제도, 풍속 습관 등에 관한 치밀한 훈고와 고증이 돋보인다.

2007. 2. 15. / 952쪽
35,000원 / 161×216mm



저자 미상
정병석 옮김

주역
周易

2010. 11. 30.(상), 2011. 1. 10.(하) /
498쪽(상), 754쪽(하)
20,000원(상), 30,000원(하) /
161×216mm



암호처럼 이해하기 힘든 『주역』의 내용과 본질을 객관적·합리적·연구자적인 입장에서 번역한 책이다. 주역은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뜻의 ‘백인백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학문적으로 풀이되기보다는 일종의 신비서로 취급되는 경향도 있다. 역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역』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성질에 맞춰 번역했다. 또한 일본의 번역본을 말없이 옮겨 놓은 다른 책과는 달리, 주석서나 번역서를 참고할 경우 분명하게 그 출처를 밝혔고 참조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주역의 패효사나 역전의 구절들을 쉽게 번역하고 전달하기 위해 정평 있는 외국의 주석서와 번역본들을 자세히 참조했다. 또 이 책은 1970년대에 출토된 백서주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번역 소개하여 통행본 주역의 체제에 맞추어 서로 대조하고 있다. 이런 대조과정을 통하여 통행본 주역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역을 새로운 각도나 지평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열고자 하였다.

시경
詩經

희노애락애오욕의 보편적인 감정 세계를
진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시가 문학의 원천

『시경詩經』은 유교儒敎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민간의 가요(풍風)와 조정 연회에서 사용되었던 악장(樂章, 소아小雅·대아大雅)과 묘당廟堂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되었던 전례典禮 음악(송頌) 등을 모아 놓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이다. 모두 305편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천5백 년 전 내지 3천 년 전, 곧 기원전 11세기 주나라 건국 초기로부터 기원전 6세기의 동주(東周), 즉 춘추(春秋) 중엽에 이르는 약 5백여 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작품들이다. 주대(周代) 사회의 생활환경과 생활 방식 및 의식 형태를 기록하여 당시 사람들의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의 감정세계를 진실하게 전해 준다. 이 기록은 문학, 언어학, 역사, 문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시경』에 수록된 시들을 정리한 공자(孔子)는 여기 수록된 시들이 지닌 효능과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공자가 『시경』을 중요한 교과서로 내세운 본뜻은, 다양한 사람들의 솔직하면서도 함축된 서정 등을 읽고 느낌으로써 인간의 참모습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간관을 갖도록 함에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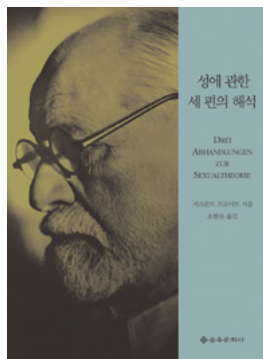
저자 미상
정상홍 옮김

2019. 5. 22. / 760쪽
27,000원 / 161×216mm



지크문트 프로이트 지음
오현숙 옮김

2007. 7. 10. / 212쪽
12,000원 / 161×216mm



성에 관한 세 편의 해석 D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

성성의 개념을 대중의 시각으로 끌어올린 귀중한 기록
프로이트의 이론에 근간을 이루는 역작

『성에 관한 세 편의 해석』은 『꿈의 해석』과 함께 프로이트 이론의 근간을 이룬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애(성욕)의 개념은 이 책과 함께 정신의학, 신경학 등 전문 분야의 논의 주제에서 벗어나 심리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 신학 등 어느 분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적인 주제가 되었다. 특히 이 책에는 독일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라이무트 라이헤(Reimut Reiche)의 해제 원고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현재의 발달된 심리학 이론에 비추어 분석한 것은 물론, 인접 학문에 미친 파장까지 아우른 폭넓은 지식을 진보된 시각에서 설명한다. 라이헤가 프로이트 이론을 현재의 발달된 심리학 이론에 비추어 분석한 것처럼, 이제 프로이트 이론 중 일부는 진일보한 현대 이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리비도와 관련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에는 감각적이고 관능적이며, 신체적인 쾌감과 충동적인 욕구, 즐거움, 사랑 등과 함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 〈해제〉 중에서

논어
論語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시작과 끝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동양 최고의 바이블 『논어』
한국 독자를 위한 결정판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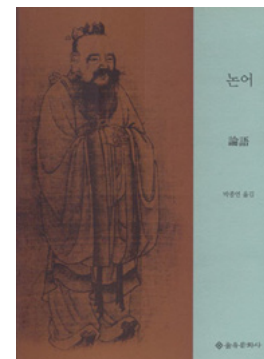
『논어』는 유가 사상을 집대성한 것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궁극의 문헌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관련서만 3천여 종, 한국어 번역본은 160여 종이 넘게 나올 정도로 『논어』가 현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을유문화사가 ‘을유사상고전’ 시리즈로 선보이는 『논어』는 타 출판사의 동종 도서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여러 모로 차별화된다. 우선 원문의 해당 한자에는 각각 한자 발음을 달았고, 한글로 토를 달았으며, 한 단락씩 원문을 대조해볼 수 있도록 편집해 번역이 쉽게 이해되도록 했다. 또한 독자들에게 상세한 주석을 제시함으로써 본문의 번역이 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그 신빙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한국 독자를 위한 결정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곤궁한 곳에 오래 살 수 없으며,
또한 편안한 곳에서도 오래 살 수 없다.

— 「사는 곳에는 인덕이 있어야」 중에서

공자 지음
박종연 옮김

2006. 3. 20. / 615쪽
20,000원 / 161×216mm



2012. 8. 20.(상), 2013. 1. 15.(중),
2013. 5. 15.(하) / 1,090쪽(상),
1,744쪽(중), 1,590쪽(하)
35,000원(상), 40,000원(중),
38,000원(하) / 161×216mm



동아시아 최초의 역사서이자
통치학과 인간학의 보고

『춘추』 또는 『좌씨춘추』라고 불리기도 하는 『춘추좌전』은 체제와 서사가 완전한 최초의 고대사 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일찍이 유가 사회의 공직자가 필독해야 하는 한자 문화권의 대표적인 역사 교과서이자 사서오경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대의명천, 순망치한, 결초보은 등 무수한 고사성어의 원전이 되었다. 또한 중국 최초로 대화체 서술 방식을 사용했으며, 사료가 상세하고 예술성이 강해 사학사 및 문학 사상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번역본은 『춘추좌전』의 본문만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읽고자 하는 독자와 깊이 있게 읽고 혼자서 고서를 읽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독자 모두에게 맞게 원문과 번역문을 2단으로 구성했고,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원문의 주해를 달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 춘추일 것이며, 나를 죄주는 것도 오로지 춘추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 『맹자·등문공(滕文公) 하권』

수천 년간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사유를 지배한
유교적 이상향의 원류를 만나다

2020. 11. 30. / 656쪽
30,000원 / 150×2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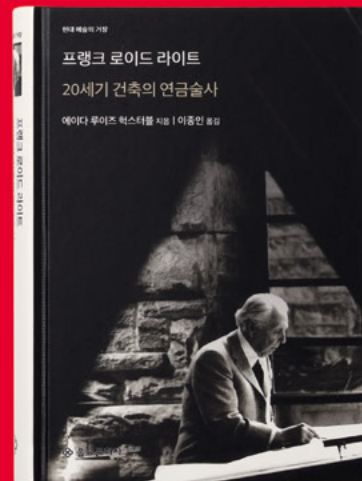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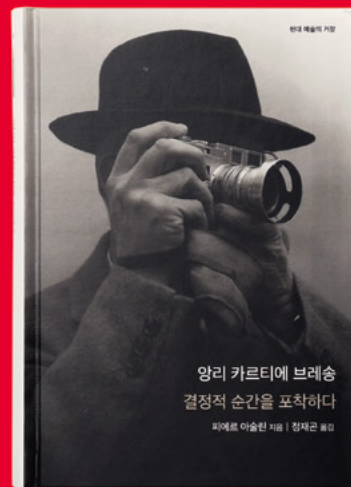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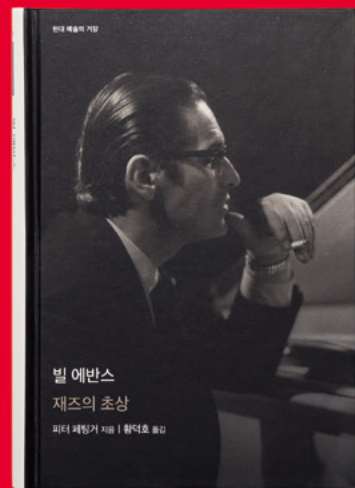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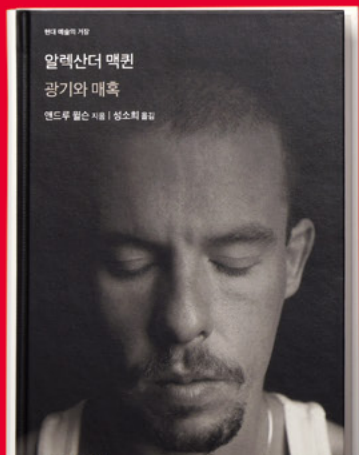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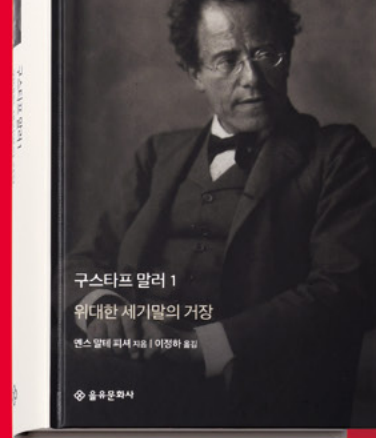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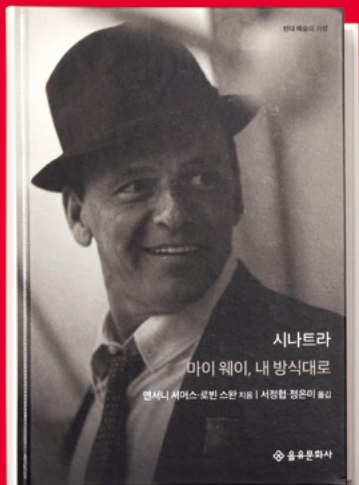
‘상서(尙書)’ 또는 ‘서(書)’라고도 불리는 『서경』은 유교적 정치 이념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중국 고대의 훌륭한 군주들과 현명한 신하들의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적인 군주인 요(堯)·순(舜)·하(夏)·은(殷)·주(周)를 건국한 우(禹)·탕(湯)·문무(文武)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한 도리를 담은 이 책은 동아시아의 역대 왕조들이 정치 이념의 기준으로 삼아 왔던 고전 가운데 하나다.

『서경』은 문장의 내용에 따라 왕의 통치 행위를 기록한 전(典)과 다스림의 위대한 계책인 모(謨),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조언인 훈(訓), 왕이 신하에게 깨우침을 주는 고(誥), 신하들에게 연설하는 서(誓), 관리를 임명하면서 격려하고 경계하는 말인 명(命)으로 나뉜다.

유교적 이상향을 담고 있는 『서경』은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다. 그들에게 요·순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익숙한 인물이었고, 그 말씀은 언제나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한 이들의 사유와 행동을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해 온 이 유교적 가치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정치적이면서 이상적인 이 고전을 통해 독자는 여전히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유교적 정치 이념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목자

목자 지음 | 최한 옮김



을유사상고전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 신복룡 옮김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 신복룡 옮김



을유문화사

을유사상고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 홍성광 옮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 홍성광 옮김



을유문화사

리셀 서양철학사

리셀 지음 | 서상복 옮김



1940~1950

출판문화의 햇불을 들다

을유문화사는 민병도(전 한국은행 총재), 윤석중(아동문학가), 조풍연(언론인·작가), 정진숙(초대 을유문화사 회장) 4인의 동인체제로 시작되었다. 창립동업들은 문화의 황무지였던 해방공간에서 출판을 통해 일제의 강점으로 잃었던 우리 겨레의 정신을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서울 종로 2가 영보빌딩에 사무실을 열었다. 그리하여 도서출판과 더불어 대대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동문화의 선도적 창달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첫 발걸음은 1946년 이각격의 한글 글씨 교본 『가정글씨체첩』이었고, 시인 정지용의 『지용시선』, 박목월·박두진·조지훈 3인의 『청록집』, 신석초의 『석초시집』 등 민족시인들의 시집, 한국 근대 역사 소설의 최고봉 『임궽정』, 을유의 대표적 학술총서인 『조선문화총서』 등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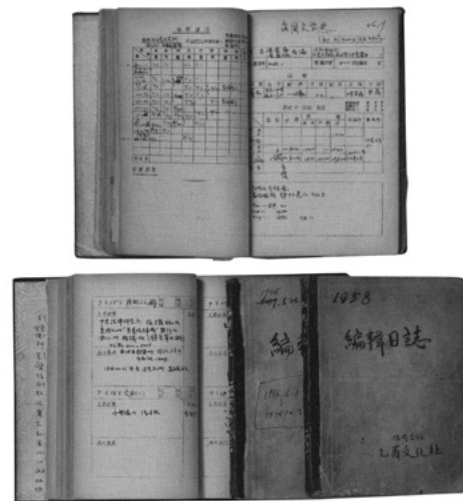


1950~1956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다

한국전쟁의 여파는 을유문화사의 운영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와, 급기야는 피난지 부산에서 4인의 동인체제가 와해되고 정진숙 대표 단독체제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양서의 대중화를 위해 발간되어 국내 문고관의 효시가 된 『을유문고』, 학술문화 풍토에 새 바람을 일으킨 학술잡지 『학풍』 등 국학 관련 출판이 의욕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47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해 출간된 『조선말큰사전』은 우리나라 출판사상 초유의 업적이자 을유를 대표하는 중요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지체되었다가 11년 만에 전6권으로 완간된 『큰사전』은 식민지 시절, 우리말을 보존하여 겨레의 넋을 잃지 않고자 조선어학회와 함께 발간이 기획되었고, 편찬과정 또한 민족의 수난사와 아픔을 같이하며 완성되었기에 한국 출판문화의 금자탑으로 일컬어질 만큼 국내 최대의 저작이었다.



1957~1972

학술서 출판으로 성가를 높이다

1953년 서울 환도에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을유문화사는 관철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때 출간된 『세계문학전집』과 『한국사』가 종로시대와 관철동 시대를 연결하는 큰 시발이 되었다.

진단학회 주도로 1959년부터 1965년에 걸쳐 간행된 『한국사』는 해방 이후 한국 사학계의 방대한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기념비적인 저작이었다. 『세계문학전집』 역시 치밀한 기획과 꼼꼼한 번역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문학전집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일어판의 중역이 기승을 부리던 이 시기에 우리 번역문화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제정된 ‘을유번역문학상’은 을유문화사가 당대 출판문화운동의 중심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실례이다.



1973~1977

대형 전집물로 새바람을 일으키다

1973년 수송동에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였을 당시 검인정 교과서 파동 등으로 경영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유능한 저자 발굴과 신간활동을 왕성히 함으로써 1975년 창립 30주년을 기점으로 신장판 『세계문학전집』의 발간과 『을유문고』의 200권 돌파 등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종수의 신간을 발행하였다.



1978~1990

전집물에서 단행본 시대로 진입하다

1980년대에는 외판전집물에서 단행본 시대로 진입하여 세계 문단에서 주목받는 참신하고 전위적인 작가의 최신작만을 엄선한 『해외걸작선』과 한국영어영문학회와 손잡고 그간의 성과를 총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영미어문학대계』의 출간을 시작했으며, 인류 문명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은 바 있는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등을 발간하여 단행본 출판에도 전력하였다.



1991~2020

새로운 세계로 지평을 넓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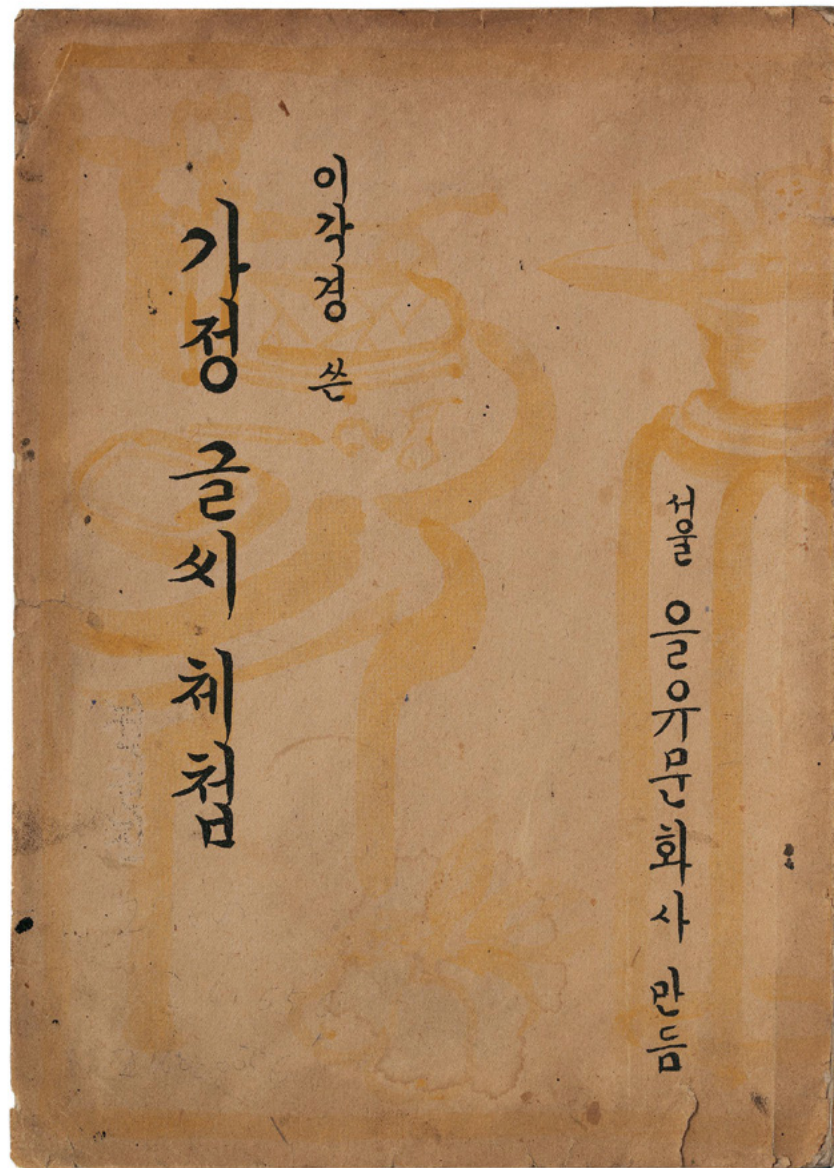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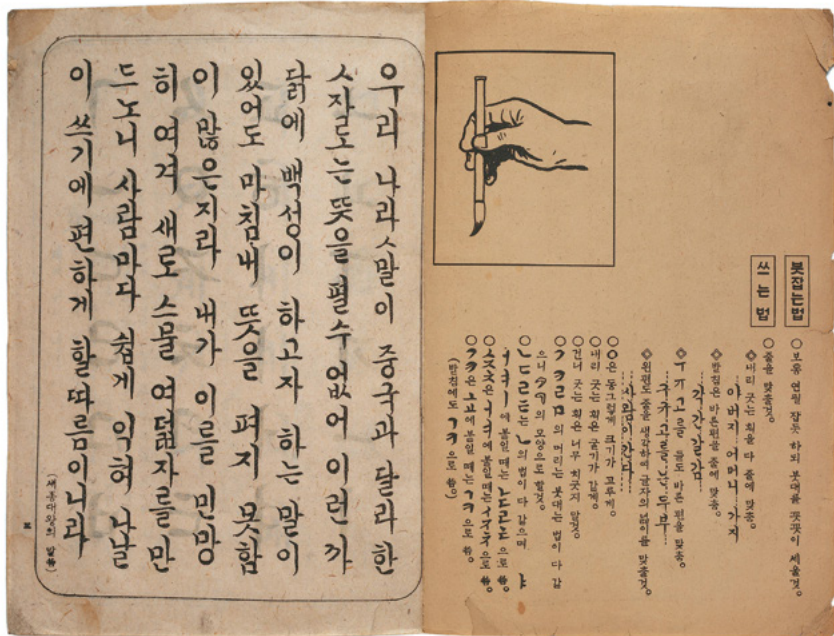
1990년대를 거쳐 21세기를 맞이한 을유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집중 조명한 『현대사회학』, 국제정치학 분야의 종합적인 개론서인 『세계정치론』, 새로운 경제 경영서의 고전을 표방해 기획한 『포지셔닝』, 『원 페이지 프로포절』과 같은 도서들을 출간하였다. 동시에 주역 해설의 대표 저서인 서대원의 『주역강의』 등 동양 고전 문화의 확산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경영과 혁신의 아이콘인 구본형,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건축가 유현준 등 세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저자를 발굴 및 지원하였다.

또한 을유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서양의 고전을 현대 번역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을유사상고전’ 시리즈 및 위대한 인간과 그들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는 ‘현대 예술의 거장’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간하고 있다. 지난 1975년 100권 완간 이래 2007년에 새롭게 출범한 ‘세계문학전집’은 2020년에 100번째 도서를 출간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세기 넘게 5,000여 종 이상의 책을 출간한 을유문화사는 지난 75년의 세월 동안 면면히 이어 내려온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며, 인문 출판의 명가를 넘어 양서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이 염원을 이루고자 을유문화사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지성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일궈 나갈 것이다.

1. 『가정글씨체첩』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고전 명문 중에서 가려 뽑은 구절들을 이각경의 궁체 글씨로 정리한 책으로, 책머리에 붓대 잡는 법과 글씨 쓰는 법을 설명했다. 해방을 맞은 지 얼마 안 되어 한글의 원상 회복과 언어 생활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였으므로, 이 책의 출간은 향후 을유문화사의 출판 정신을 대변하는 초석이 되었다. 1946년 2월 1일 발행.



2. 어린이 주간지 『주간 소학생』, 『월간 소학생』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주간 잡지. 1946년 2월 11일 창간되어 1947년 4월까지 통권 45호를 내고, 5월 1일자로 발행된 46호부터는 월간으로 전환했다. 이 잡지는 코주부 김용환과 김의환 형제, 동요작가 권태웅, 동요와 동시로 유명한 김요섭의 작품이 게재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 이후 한국 소년 잡지의 명맥을 이어간 『소학생』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79호를 끝으로 종간되었다.



3. 해방공간의 문학 (시, 시조, 수필)

1946년 상반기 출판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지용의 『지용시선』, 박두진·박목월·조지훈 등 3인의 공동 시집 『청록집』, 그리고 신응식의 『석초시집』이었다. 이 세 권의 시집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사에 나타난 서정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대표하는 책들로서, 을유문화사가 문학 출판의 메카로도 이름을 떨치는 시조가 되었다. 그중 『청록집』은 한국 현대시의 큰 수확으로 꼽히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용시선』, 1946. 5. / 『청록집』, 1946. 6. / 『석초시집』, 1946. 6. / 『이양하수필집』, 1947. 12. / 『담원시조』, 1948. 2.



4.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

시집 출판에 이어 1946년 9월 첫 번째 소설집으로 허준의 『잔등』이 출간되었으며, 11월에는 당대 최고의 작가인 상허 이태준의 장편소설 『사상의 월야』가 출판되었다. 이후 을유문화사는 한국학 출판의 본산이라는 명예에 가려져 비교적 덜 알려지게 되었지만, 문학에서도 이치열 걸출한 업적들을 남겼다.

『사상의 월야』, 이태준, 1946. 11. / 『불』, 안희남, 1947. 2. / 『무녀도』, 김동리, 1947. 5. / 『맥』, 김남천, 1947. 11. / 『삼대』, 염상섭, 1947. 11. / 『복덕방』, 이태준, 1947. 5.



5.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

을유문화사는 한국전쟁으로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큰사전』의 간행 사업을 비롯, 조선문화총서와 을유문고 등의 출간이 중단되었으며, 다수의 필자들이 납북되거나 월북하여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학서들이 출간되어 전란에 지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1950. 10. / 『고려청자』, 고유섭, 1954. 10. /

『취우』, 염상섭, 1954. 11. / 『역류』, 이무영, 1955. 3. / 『오분간』, 김성환, 1957. 10. /

『불꽃』, 선우휘, 1959. 2.



6. 조선문화총서

우리나라 고유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 천명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국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을 총동원, 우리 문화 각 방면에 걸쳐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연구를 선보인 '조선문화총서'는 한국 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1947년 4월에 손진태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전쟁 때까지 총 12집을 발행했으며, 전후 '한국문화총서'로 이름을 바꾸어 발간을 계속했다.



7. 한국문화총서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조선문화총서’는 1954년 ‘한국문화총서’로 이름을 바꾸어 이인영의 『한국만주관계사의 연구』와 이홍직의 『한국고문화론고』를 시작으로 출간을 재개했다. 조선 초기의 북방 개척과 이민, 그리고 만주 지역과의 교류를 다룬 『한국만주관계사의 연구』는 관련 분야 저술로는 처음이어서 출간 의의가 컸다.



8. 조선말큰사전

1947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해 첫째권이 출간된 이래, 한국전쟁으로 지체되었다가 1957년 완간되었다. 우리나라 출판사상 초유의 대역사로 일컬어지는 사전이다. 순우리말, 한자말, 외래어, 관용어, 사투리, 은어, 결말을 비롯해 고유명사, 전문어, 제도어, 고어, 이두 등을 수집해 국어로 뜻풀이를 한 이 사전은 B5판 양장본 3,804쪽, 올림말 164,125개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이다. 원고 작성 기간만 28년에 편집 기간은 11년에 달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제 새로 출간된 『우리말큰사전』을 보건대, 그 인쇄, 제본, 장정 등에서 진선지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저작이요 인쇄 문화의 최고봉일 줄 안다. 우리의 학술 문화 중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 없는데 홀로 『큰사전』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극찬했다.



9. 대학총서

1948년 당시 대학 교육에서 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착안한 조풍연 편집국장이 사학자인 홍이섭 교수의 도움을 얻어 기획한 총서. 번역보다 국내의 독창적인 역자를 발굴하는 데 주안을 둔 이 총서는 1960년대 이후에도 계속 간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양주동의 『국학연구논고』, 이승녕의 『중세국어문법』 등은 판을 바꾸어 가면서 쇄를 거듭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 오스틴 래니의 『현대정치학』 등이 뒤를 이었다.



10. 임격정

1928년 11월 21일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 몇 차례 중단을 거듭하며 1939년 3월 11일까지 연재되었고, 이듬해인 1940년에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조광』 10월호로 옮겨 연재를 계속했으나 결국 미완성인 채로 끝나고 말았다. 을유문화사에서는 이를 완결시키고자 저자와 교섭,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전 10권으로 간행기로 하고 1948년 3월 ‘의형제편 1’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그해 연말까지 여섯 권을 간행했다. 그러나 홍명희의 월북으로 완간하지 못했다. 우리 평단에서 “한국 근대 역사 소설의 최고봉이자 리얼리즘 문학의 금자탑”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 소설은 뒷날 사계절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다.



11. 월탄 박종화의 역사소설선집

당초 전9권으로 기획된 월탄의 역사 소설은 그 첫째권으로 『대춘부』 상권이 1949년 2월에, 하권이 6월에 나왔으며, 그 사이 조선조 연산군의 비극을 다룬 『금삼의 피』가 간행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60년 10월에 완간되었다. 이 가운데 『임진왜란』은 4년간에 걸쳐 조선일보에 장기 연재되었던, 원고지 1만 장에 달하는 대하 역사 소설로서 정사에 입각한 월탄의 사관이 유려한 필치로 독자의 심금을 울린 명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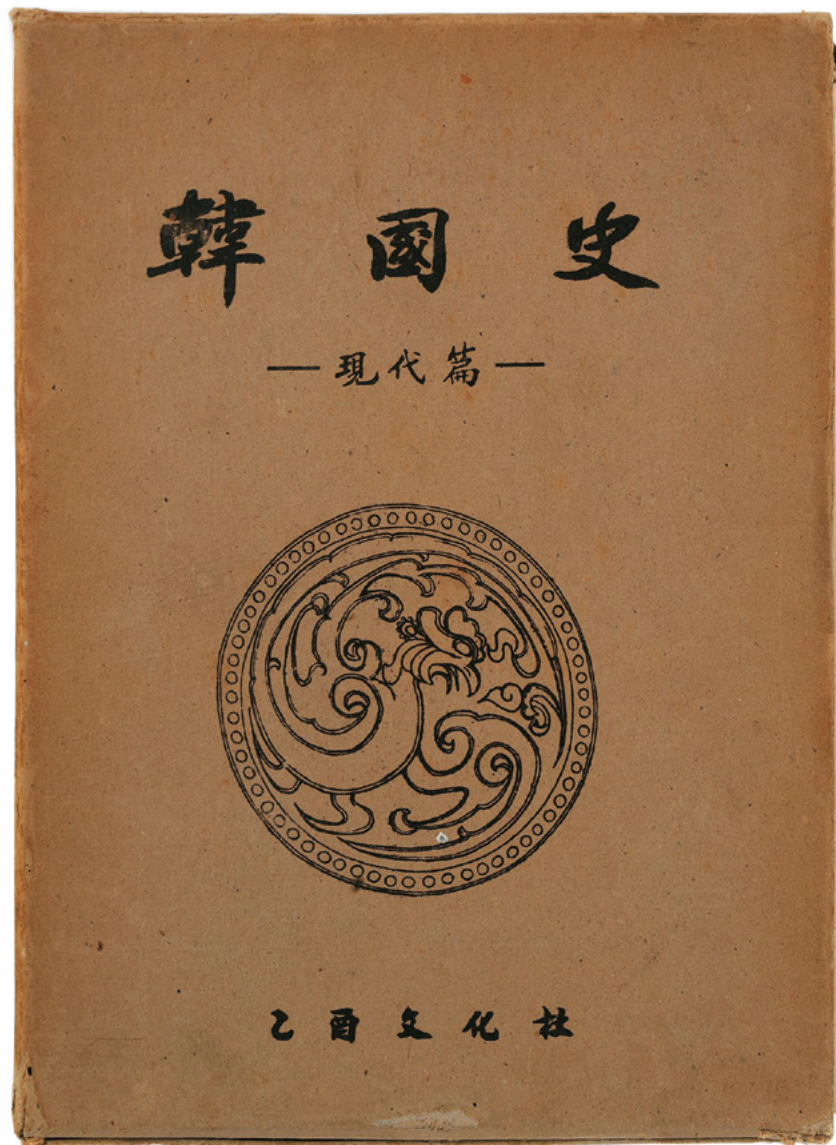
12. 구미신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 사상가들을 통해 현대 서구 문화를 조망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총서로, 195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해서 1964년까지 12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종교, 철학, 교육, 정치,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문화, 학술 분야의 명저들을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한 시리즈로서 전쟁 중 새로운 지식에 굶주렸던 젊은 지성에게 서구 문화의 진수를 접할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출판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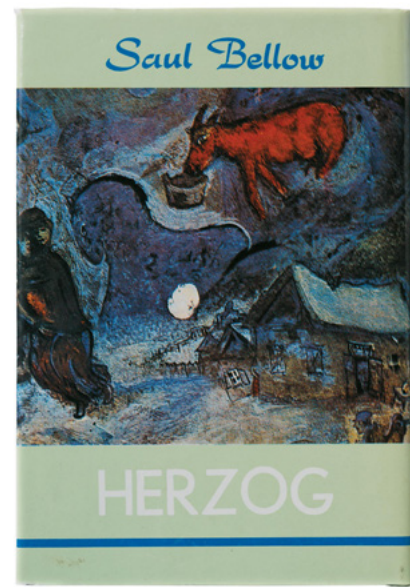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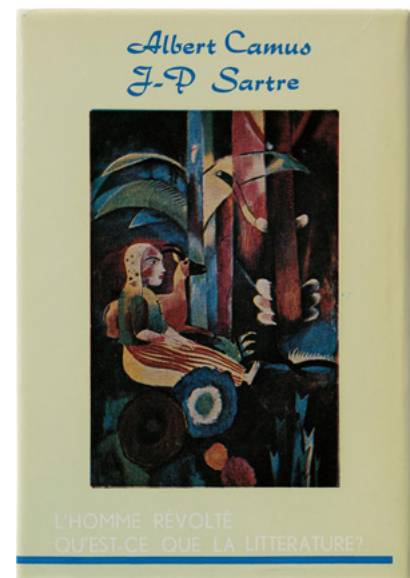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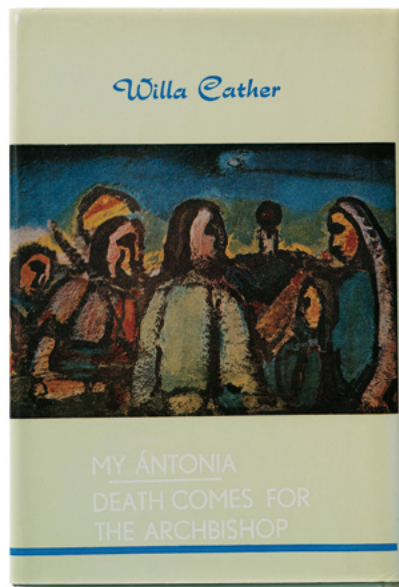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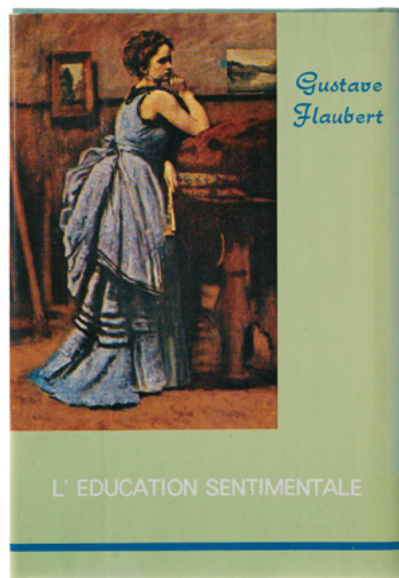
13. 한국사

1959년 6월부터 1965년까지 진단학회의 주도로 간행된 한국사 개설서. 해방 이후 한국 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성, 총괄 정리함으로써 방대한 역사의 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했다. 사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심혼을 기울여 집필·편찬한 획기적인 한국 전사로, 귀중한 민족 문화재로 꼽힌다. 해방이 되고 독립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통사 하나 없던 우리 학계는 이로써 일제의 식민사관을 지양하고 우리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말하게 되었으니,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이때부터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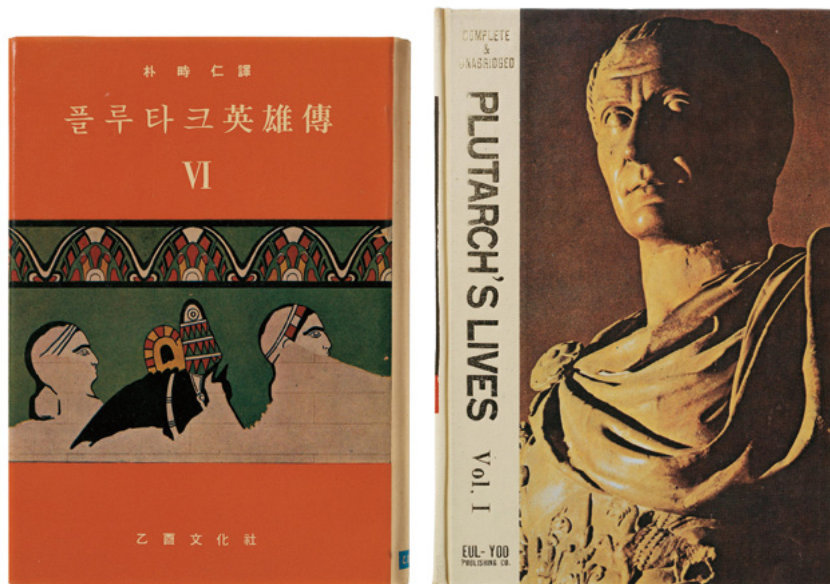
14. 을유세계문학전집

인류 수천 년의 역사가 낳은 필독의 세계 명작을 문학의 각 장르에 걸쳐서 망라하고 집대성한 세계 문학의 보고. 1959년 8월에 어원 쇼의 『젊은 사자들...』을 시작으로 간행된 이 전집은 1차로 60권, 2차로 40권 등 총 100권으로 마무리되었다. 맨 마지막권인 『독일민담설화집』은 1975년 11월에 나왔으니, 장장 17년에 걸쳐 완결된 것이다. 종래의 세계문학과 달리 소설·시·희곡은 물론 평론·서간집·철학적 에세이를 아우르는 체계를 갖추었고, 번역은 원전 및 원어에 충실을 기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예간 광고를 통해 간행 사실을 알렸으며, 세계 출판계의 최신 동향을 참작해 문학 전집에 사상서를 넣은 것도 독보적인 기획으로 평가받았다.



15. 플루타크영웅전

서양 문명의 2대 원류인 그리스와 로마의 위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언행을 비롯한 교우, 사랑, 전쟁기를 기록한 역사서이자 전기 문학의 전형이다. 로마의 창건자 로물루스, 명연설가 데모스테네스, 전략가 알키비아데스,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 알렉산더, 철학자 디오게네스 등 다양한 인물을 통해 고대 역사를 조명했다.



16. 한국역사소설문학전집

신문학 이후 반세기에 걸친 역사 소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전집. 1960년 3월 이광수의 『사랑의 동명왕』과 『단종애사』를 한데 묶어 제1권으로 펴낸 후,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대거 가담하여 역사 소설을 잇따라 집필했다. 책의 성격에 걸맞게 한말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이용해 책의 품위를 높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960년 12월에 정한숙의 『처용랑·황진이』를 끝으로 완간되었다.



17. 중국고전문학선

1960년 1월 삼국지 제1권이 나온 이래, 1969년 3월 홍루몽이 출간되면서 근 10년 만에 27권으로 완간되었다. 당초 기획은 중국의 4대 기서로 불리는 『삼국지』, 『수호지』, 『금병매』, 『서유기』까지 완역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중국 고전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아 기획을 확대하여 『열국지』, 『요재지이』, 『홍루몽』까지 연이어 출간했다.



18. 한국고대소설전집

잊혀져 가던 전래 민족 문학을 고전에 충실하면서도 평이한 문체로 현대화한 이 전집은 우리 문학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 얼을 되새겨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한문으로 씌어진 고소설 외에 대중들에게 널리 읽혔던 신소설 이전의 한글 소설까지도 포함했다. 윤보 김기창이 표지를 그리고 철농 이기우가 제자를 쓴 반양장본으로, 1962년 9월에 시작되어 1965년 6월에 모두 20권으로 완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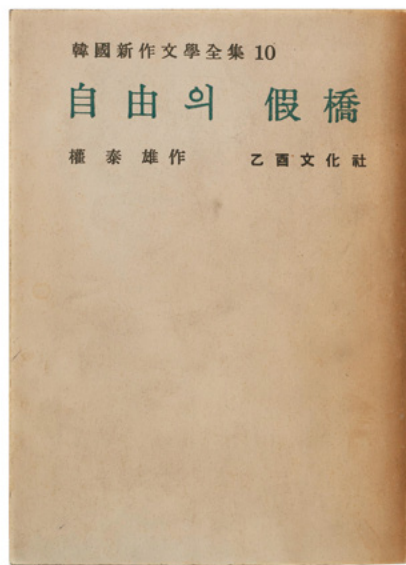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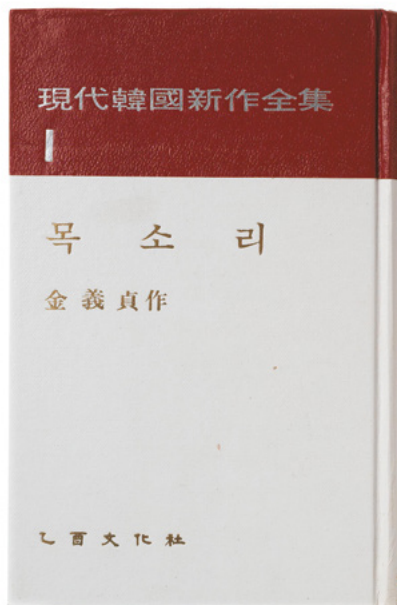


19. 한국신작문학전집 / 현대한국신작전집 / 한국신소설전집

한국신작문학전집: 외국 번역물에 치중해 있던 관행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신예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제고하자는 기획으로 시작한 전집. 1962년에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이 출간되었고, 1963년 5월 손소희의 『남풍』을 끝으로 완간되었다.

현대한국신작전집: 한국신작문학전집을 향한 좋은 평가를 바탕 삼아 더욱 참신하고 알찬 문학 작품을 발굴하고자 기획된 전집이다.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사회성 짙은 작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한국신소설전집: 현대 소설에서 소외되어가는 소설 독자층에게 재미있고 가치 있는 '신소설'을 소개하고자 기획된 전집. 1968년 3월에 이인직의 『혈의 누』로 시작된 이 전집에 수록된 작품수는 총 65편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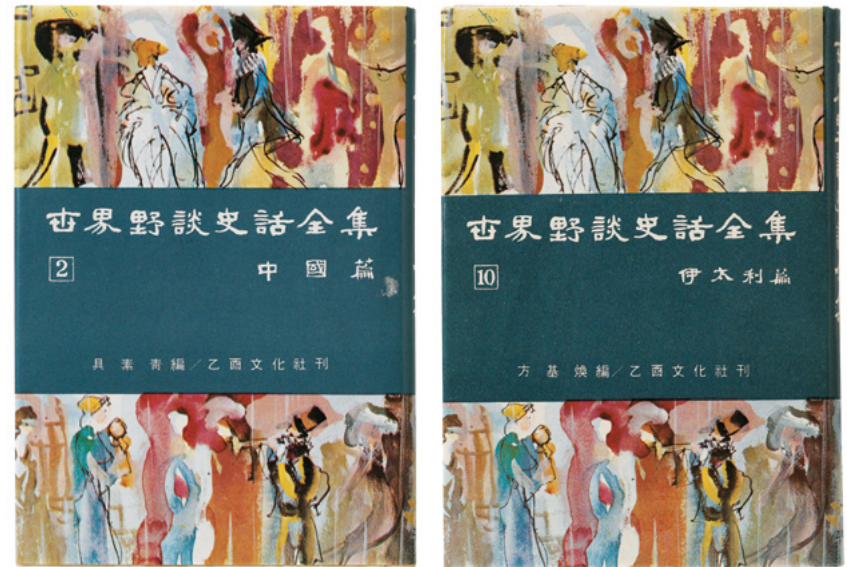
20. 세계사상교양전집

당시의 사상 전집물들은 양적인 면에서도 빈약하고, 선정된 책들도 저자의 대표작이 아닌 것이 많았다. 이에 '고전'의 완역을 표방하면서 시작한 전집이다. 당초 12권으로 기획되었으나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간되었다. 원전에 충실한 번역과 함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권마다 원저자의 생애와 사상의 요체를 담은 해설을 싣고, 본문에도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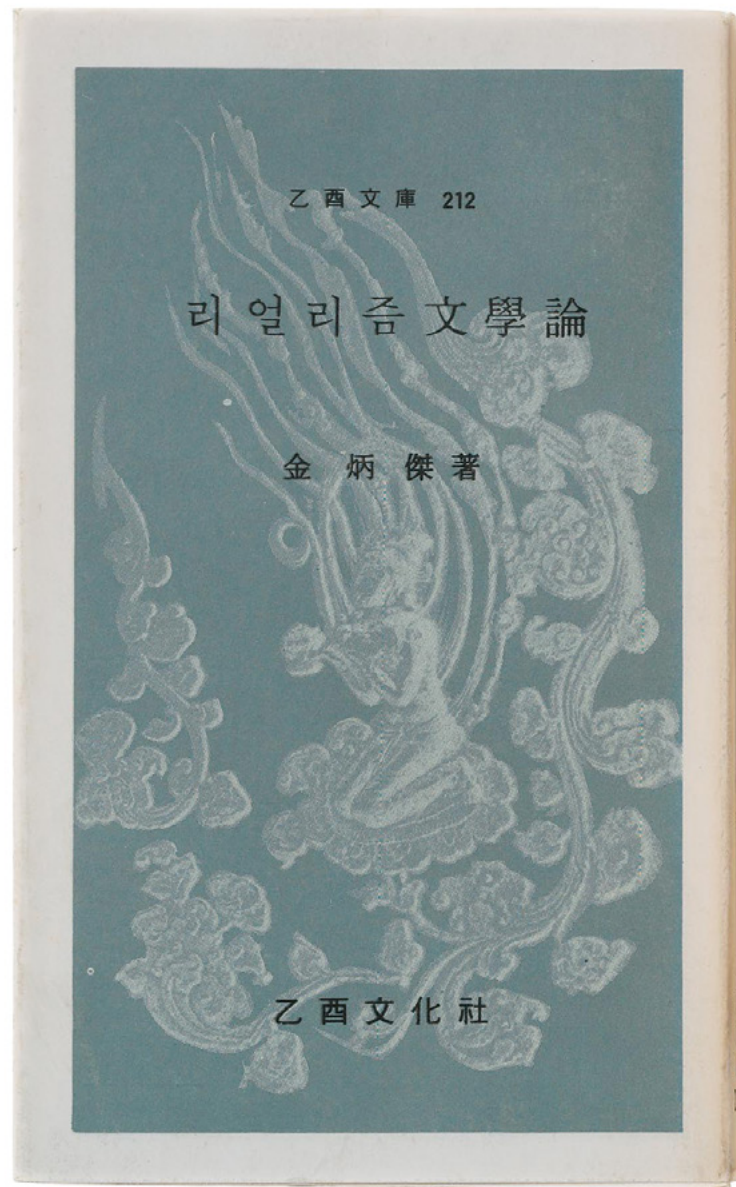
21. 세계야담사화전집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화 위주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야사를 한데 모은 전집. 「을유저어닐」은 이 전집에 대해 “역사란 흔히 정사만으로 알지만 진실은 정사 아닌 야담 사화도 역사일 수 있다… 야담 사화야말로 좀더 자세하고 정답고 흥미 있게 (역사 속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 특색이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1965년 8월에 1차분 5권이 출간되었고, 그해 말 11월에 2차분 5권이 나오면서 완간되었다.



22. 을유문고

지식의 대중화와 양서의 대량 보급을 위해 동서양과 시대를 통틀어 수많은 분야를 총망라한 문고 시리즈다. 1948년 '문화와 사상의 범국민적 보편화'라는 취지에서 박태원의 『성탄제』를 시작으로 26권까지 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69년 3월 문일평의 『한국의 문화』를 필두로 속간되어 1988년 268권까지 출간되었다. 초기에는 영미 문학과 기존 도서의 재출간하는 페이퍼백 성격이 짙었으나, 이후로는 국학과 중국 고전 문학 번역에 많은 힘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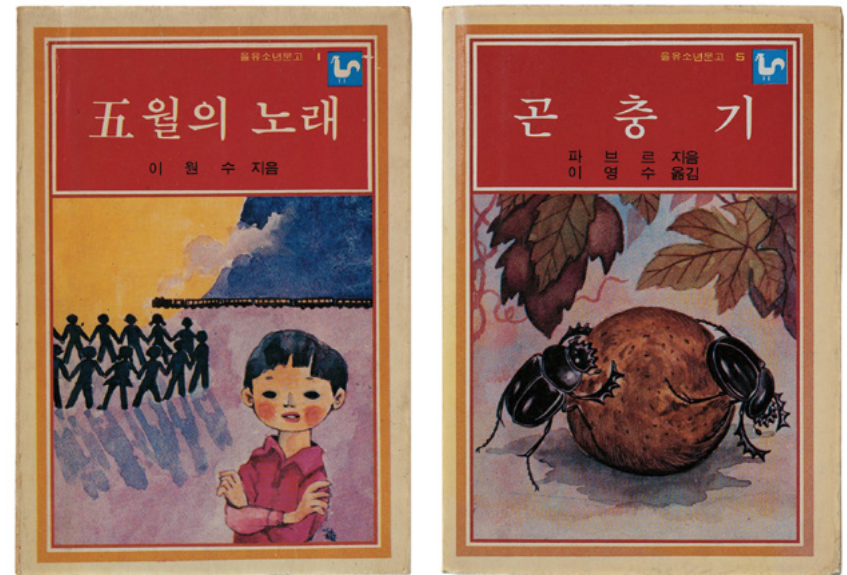
23. 한국대표여류문학전집

한국 문학사상 여성 문인들의 위치를 감안, 현역 여성 문인들이 직접 선정한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문학 전반을 망라한 전집으로, 1977년 10월에 출간되었다. 한국여류문학인회가 99명에 달하는 현역 여성 작가들의 수작을 한데 모은 독특한 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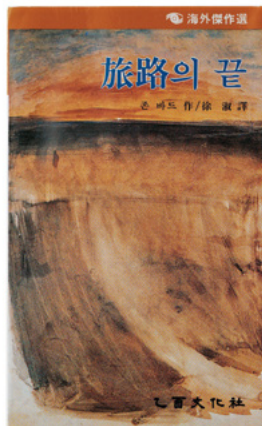
24. 을유소년문고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소년문고. 정평 높은 작가의 명저만을 모아 소개했다. 국내 창작물은 물론, 문학·과학·종교 등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을 망라했다. 유명 화가들의 원색 그림으로 꾸민 표지도 좋은 평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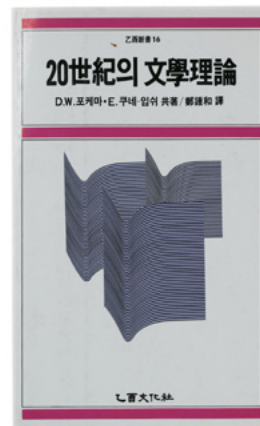
25. 해외걸작선

세계 문단에서 주목받는 참신하고 전위적인 미국 작가의 최신작만을 엄선했다. 미국 문학을 전공한 권위자로 번역진을 구성했으며, 모든 작품이 국내 초역이었다. 1979년 『점원』으로 시작된 이 시리즈는 『내 이름은 술라』를 쓴 토니 모리슨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진가가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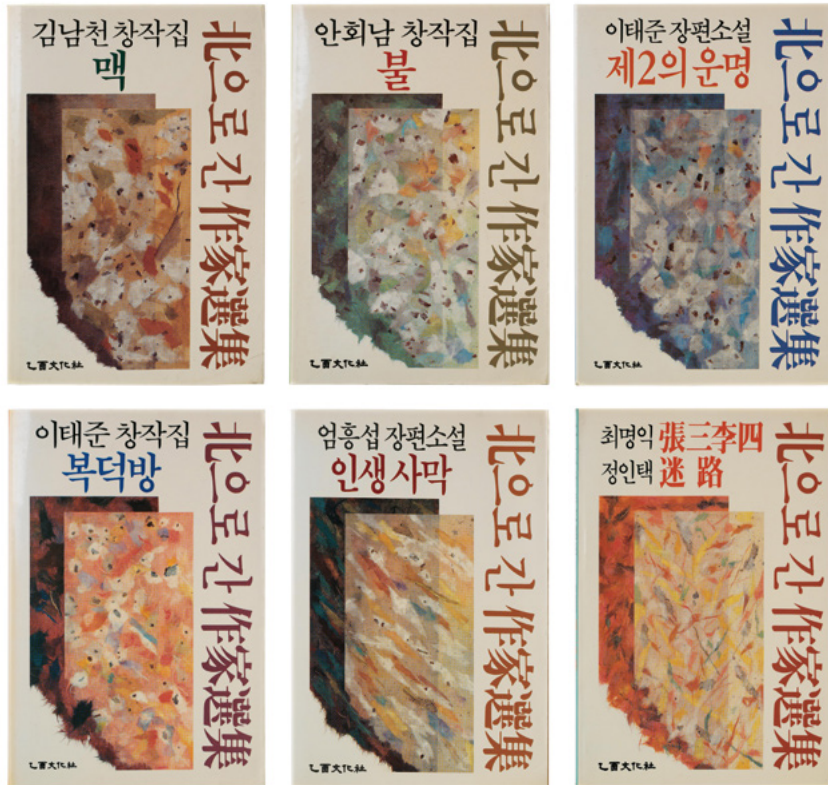
26. 을유신서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독자들을 위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각 분야 가운데서 학술 및 교양서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적 고전이 될 만한 양서를 선별한 시리즈. 참신한 체제와 성실한 완역으로 인정받았다.



27. 북으로 간 작가선집

1987년 10월에 남·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 조치가 단행되면서
을유문화사가 창립 초기에 펴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시 엮은
선집. 한국전쟁으로 야기되었던 오랜 문학사적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28. 을유작은책방

다시 읽어도 감명 깊은 동서양의 대표 고전 문선. 오래 전에
출간되었으나 독자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책이나, 비교적 최근의
작품이지만 고전의 향기를 지닌 책들을 모은 시리즈다.



